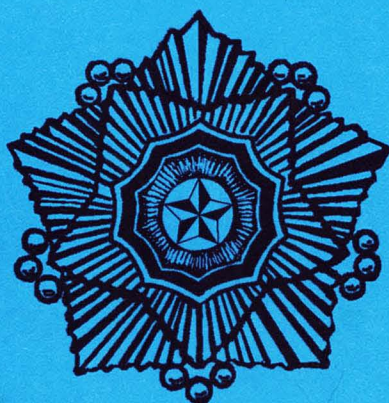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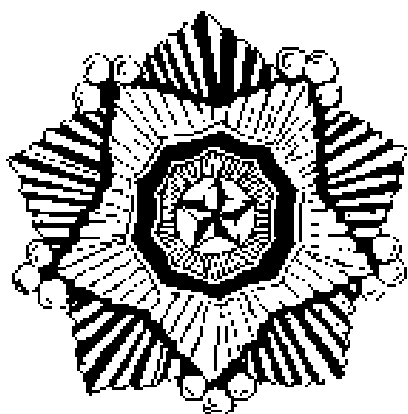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 조선문학



5

주체 92(2003)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5호

(루계 제 667 호)

◇◇◇◇◇◇◇◇◇◇

## 차례

◇◇◇◇◇◇◇◇◇◇

동강의 모닥불 .....	4
새날의 축복 .....	5
경애하는 <b>김정일</b> 장군 명언 .....	14
즉흥시까지 들어 주시며 .....	15
밤나무집 셋째 .....	16
자연묘사에 비낀 역사적사변의 의미 .....	17
땅의 새 노래 .....	19
수령님과 《대통령감》 .....	20
어머님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	21
줄다리 .....	21
눈보라는 후덥다 .....	22
기다리는 마음 .....	34
영생하는 작가의 초상 .....	35

류다른 추억 .....	45
주인공을 찾아 몇 천리 .....	46
땀 .....	54
청춘회고 .....	55
《손에 무기를 들고 진행한 전투보다 어려운 전투였다》 .....	57
서정시와 시인의 개성 .....	58
초불의 바다 .....	62
나는 선반공시인이다.....	63
지혜와 총명, 어리석음.....	63
생활의 《진주》는 어디에 있는가.....	64
흙과 속삭인다.....	67
정다운 발동소리 .....	67
신광사의 물소리(외 2 편).....	68
《언어올림픽》에서 패권을 잡은 조선어 .....	68
새로 온 러단장 .....	69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	79
5 월이 부르는 노래 .....	80

# 동강의 모닥불

리진철

밀림의 고요를 깨치며  
귀 따갑게 울어 예던 풀벌레소리도  
지친듯 잠들어 버린 동강의 밤  
어둠속에 반짝이던 별들마저도  
조는듯 마는듯  
소리없이 깊어 가는 동강의 밤

밤이슬은 축축히  
외투깃을 적셨는데  
모닥불 마주하신 **김일성** 장군님  
이 밤도 꼬박 새우시려나  
빨찌산 김대장의 사색속에 깊어 가는  
밤, 동강의 밤

모닥불앞에서  
한자 또 한자  
밤 새워 집필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자자구구 읽어 가시는  
그이의 눈앞엔  
어둠이 아니라  
새날이 벌써 펼쳐 저 있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어둠속에 신음하던  
2천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생명수처럼 흘러 들  
《조국광복회 10대강령》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시는  
청년장군의 거대한 주먹에서  
잠재해 있던 조선의 기운이  
꿈틀하며 용을 쓴다  
백만관동군이 비명을 지르며  
숨 막힘에 발악을 한다

모닥불 모닥불이 탄다  
한가치로는 쉬이 죽는 불  
그 한가치에 달린 불이 모이고 모여  
이렇게 죽지 않는 불이 되었다  
이제 이 모닥불이 또 합쳐 지면  
얼마나 큰 불이 될 것인가

작은 모닥불에서도  
어둠을 사르는  
조선의 거대한 불을 보시는  
**김일성** 장군님의 안광에도  
붉게 비껴 지는  
불, 타오르는 불

이 불길앞에서  
끝없이 깊어 가는  
동강의 밤이 탄다  
숨 막히게 내려 앉은  
조선의 어둠이  
활활 벗겨 진다  
해방의 새 날이  
푸름푸름 밝아 온다

## 새날의 축복

박해란

끝안을 넓게 비치던 가을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숲속은 금시 어둡해 졌다. 나무우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청승맞게 울더니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 그 바람에 황이 든 잎사귀 몇개가 가지끝에서 떨어져 저 새로 흙을 엮은 무덤우에 내려 앉는다. 잔디도 변변히 덮지 못한채 황량한 풀숲에 누워 있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 무덤가에 내려 앉은것은 아닌지...

오래희로인은 생명을 잃고 땅에 떨어진 락엽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땅속에 두번 다시 옮겨 묻힌 안해의 신세와 바람에 불려 거처없이 날려 다니는 락엽의 신세가 무엇이 다르랴. 쓸쓸한 마음을 더욱 굵어 내리듯 산아래쪽에서 청 높은 남자의 노래소리가 간간이 들려 왔다.

몇해만에 와보는 고향이런가  
꿈결에도 그리웠던 향촌마을아  
내가 살던 정든 집 언제 헐렸나  
오동나무 한그루만 홀로 서 있네

안해의 묘를 이장해 주고서는 술 한잔을 걸치고 제 설움에 겨워 울던 상여군들이 산을 내리며 목청을 뽐슨 소리였다.

고향을 그리는 노래소리에 오래희로인은 땅속에 누워 있는 안해를 생각했다. 안해는 《간도대토벌》 때 왜놈들의 총탄에 가슴을 맞고 그 어혈로 지지리 고생하다가 끝내는 작년 이맘때 눈을 감았다. 밤마다 떠나온 고향이 그리워 이불깃을 적시던 안해를 죽어서나마 고향하늘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묻어 주자고 읊힌 곳이 공교롭게도 산주인의 선산이었을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허가도 없이 남의 선산을 더럽혔다는 억울한 《죄》와 돈이 없는탓에 안해는 제사날을 하루 앞두고 한적한 가시밭 덩굴밑에 외로이 옮겨 눕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지지리도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안해, 불쌍한 안해...

로인은 축축히 젖어 드는 눈곱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그러나 눈물방울은 어느새 제돌우에 놓인 웅배기잔에 툴렁 떨어 져내렸다. 마치도 제명을 못다 살고 간 안해의 억울한 운명이 뿌연 액체로 녹아 술잔을 채운듯 싶다.

그는 잔을 집었다. 그리고는 더운 눈물이 섞인 뿌연 액체를 꿀꺽 삼켰다. 고달픈 인생의 쓴 맛처럼 목안에 넣은 술맛도 쓰디쓰다.

어허, 살아서도 죽은 목숨 같은 이 인생이 언제면 끝이 나타나.

로인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넓은 공간 한 끝에서는 지는 해가 여전히 제 갈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더니 별안간 해는 산너머로 자태를 감추어 버렸다.

해가 빛을 거두자 서편 하늘에는 석양이 비졌다. 저 황혼마저 스러지면 어둠이 깃들것이다. 암흑이라는것이 얼마나 지겨운 자연현상인가를 로인은 이미 가슴속에서 체험하였다. 고향 온성을 뒤에 남기고 두만강을 건너 온 이후로 어느 하루라도 가슴에 흰한 빛을 안고 살아 온 날이 있었던가.

고향에서는 그래도 집근처의 웅달샘이 제 고향의 샘물이어선지 별로 달았고 땅 한뼉기를 두쳐도 제 나서 자란 땅을 다루는 재미에 등이 굽는 줄을 몰랐었다. 고향땅의 그 힘겹고도 정든 생활이 로인에게는 한가닥의 빛이었다. 그 소중한 빛을 잃지 않으려고 로인 자신은 물론이고 고향사람들과 온 삼천리강토의 남너로소가 3.1인민봉기에 떨쳐 나섰었다. 그러나 2천만의 피를 끓이던 독립만세의 함성은 왜놈들의 총칼밑에 찾아 버리고 족쇄에 묶인 사람들의 피눈물은 도랑을 이루었다. 왜놈경찰서에 잡혀 가 매를 맞고 나온 오래희로인은 부어 오른 허리를 부여잡고 처자형제들과 함께 두만강 나루배에 몸을 싣고 말았다. 배전에 부딪쳐 처절씩 소리를 내던 두만강의 그 물소리를 어찌 잊을수 있으랴. 지금도 그 물소리는 타향으로 떠나는 나그네들을 부르며 가지 말라 애절하게 웨치는 고향의 하소연처럼 때없이 가슴벽을 흔들곤 한다.

피나리보짐을 왕청현의 막바지산골인 여기 석현땅에 내려 놓은지 어언 10여년 세월이 흘렀다.

오래희로인은 무정하게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았다.

남한테 싫은 말 한마디 못해 본 안해는 이미 저세상사람이 되었고 슬하에 두 자식이 있건만 지금은 외지사람이 되어 만날 길도 막연하다. 마을에서 야학을 가르치던 큰아들 중화는 왜놈들때문에 야학이 폐교되자 처자와 함께 룡정 어디엔가로 내려갔다. 왜놈과 결판을 보겠다고 3년전에 집을 떠나간 둘째 중성은 여직껏 중무소식이다.

언제 돌아 올지 기약할수 없는 먼 길을 떠나야 할 아들에게 병고에 시달리던 안해는 자식대를 물려 주었으면 하고 바랐었다. 그리하여 오래희로인은 동네처녀들중에서 뼈대가 굵고 마음이 무던한 머느리감을 물색하였다. 홀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순박한 처녀를 머느리감으로 정했을 때 중성은 장가들 나이도 안된 자기에게 웬 색시냐며

펄쩍 뛰었다. 그러나 자리에 누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두말없이 잔치상을 받았다. 잔치상이야 조밥그릇이 놓인 작은 소반이었다. 그래도 색시한테 써는 물고 가서 손주애가 벌써 말을 번지기 시작했다.

둘째 중성이가 지금 어디에서 때식이나 굶고 있지 않는지, 생사여부라도 알면 좋으련만...

한편 집을 떠날 때 왜놈들과 끝장을 보기전에는 집에 아예 발을 들여 놓지 않겠다고 하던 아들이 자기의 결심을 허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놓였다. 그럴수록 로인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라는 손주애한테 원심이 켜여 지는 것이었다.

불쑥 까닭 모르게 열이 생겨 제 엄마의 등에 업혀 집으로 한발 먼저 내려 간 손주애의 얼굴이 떠올랐다. 묘를 옮기는데 따라 다니느라 바람을 맞은탓일까. 혹시 무엇을 잘못 먹었는가?

(어쨌든 밤을 무사히 넘겨야 할텐데...)

구차한 살림이라고 병도 사람을 우습게 알고 접어드는가보다.

이제는 서컨하늘에 비졌던 락조마저 사라졌다. 땅거미가 지는 풀숲에 몸을 맡기고 있노라니 마음이 더욱 쓸쓸해 왔다. 눈으로는 석양빛이나마 볼지라도 가슴속으로는 한점의 빛도 숨새여 들지 않으니 타향살이의 신세가 막막할뿐이다. 반디물도 캄캄한 밤에는 등대처럼 느껴 지는 법인데 어찌면 이 세상엔 희망의 빛이라고는 개뿔벌레만 큼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로인은 마음속에 쌓인 시름을 털어 버릴양으로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 나 산을 내렸다. 그의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듯 어둠이 오막살이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

온 저녁 손주애의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찬물 찜질을 해주던 오래희로인은 담배생각이 나서 토방으로 나갔다. 토방이라야 큼직한 돌 하나를 놓은 것이 전부였다.

그는 돌우에 걸터앉아 곰방대에 엽초를 재웠다. 소슬한 저녁바람이 답답하던 그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식혀 주는 듯 했다.

로인은 곰방대를 깊숙이 빨고 나서 밤하늘에 눈길을 보냈다. 청청한 하늘에서 크고 작은 별들이 설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어허, 별이 많기도 하다.)

그는 낯익은 사람처럼 총총히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저것들이 별이 아니라 땡땡 영근 난알이라면 좀 좋으랴. 그러면 모두 땅에 뿌려 실컷 농사를 지어 볼수 있으련만...

문득 맏아들이 야학생들에게 들려 주었던 옛말이 떠올랐다.

《먼 옛날 하늘나라에는 가난한 농부들의 소원

을 풀어 주는 착한 별 하나가 살고 있었답니다...》

참말로 그 별이 하늘 어디에서 빛을 내고 있다면 로인은 그 별에 손주애의 병을 고쳐 달라고 빌고싶었다. 엉뚱한 미련에서 벗어 나자 속이 허거퍼진 오래희로인은 혼자서 쓴 웃음을 지었다. 사람이 길지 않은 목숨을 가지고 한조각의 희망도 없이 살고서야 산 목숨이라고 할수 있으랴.

로인은 애꿎은 담배만 풀썩풀썩 태웠다. 10여년 전 그의 가슴에 한점 빛으로 스며 들었던 흥범도의 병대장마저 이 땅을 하직하고 연해주로 가버렸으니 이제 누가 과연 조선에 독립의 서광을 안아 오랴.

정지간에서 머느리가 짙광이를 달이는 냄새가 밖으로 풍겨 나왔다. 고열에 들떠 앓음소리를 그치지 않던 손주애는 땀을 뺀고 잠들었는지 기억이 없다.

(말은 안해도 애 에미의 속인들 오죽이나 탈가?)

가는 생각 오는 생각에 속만 답답해 올뿐이다.

로인은 빼금빼금 빨던 곰방대를 입에서 빼내여 재를 털었다. 속이 답답할 때마다 그래도 마음을 알아 주는 건 엽초뿐인 듯 싶다. 곰방대처럼 사람도 가슴속에 쌓인 재를 훌훌 털어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오래희로인은 빈 곰방대를 저고리 안주머니에 찌르고 자리를 일었다.

바로 이때 삽작문밖에서 《주인님 계십니까?》 하는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밤중에 뉘시오?》

귀 설은 목소리에 로인은 경계심을 바싹 돌우고 이렇게 물었다. 둘째의 행처를 찾으랴고 번질 나게 드나들던 왜놈들이 며칠전에는 무슨 변이 났는지 집안팎을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달아났던 것이다.

《우린 지나가던 길손들인데 댁에서 하루밤 폐를 끼치려고 들렀습니다.》

활달하면서도 껍 부드러운 음성이 로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가 삽작문을 열어 젖혔을 때 프락으로 두명의 젊은이가 들어 섰다.

《아버님, 밤중에 불쑥 뛰어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검은 학생복차림에 키가 크고 흰칠한 젊은이가 그의 앞에 허리 굽혀 인사를 하였다. 그 길손의 옆에서 몸이 버그러질사한 보통키의 청년이 함께 허리를 굽혔다. 키가 크고 빛을 뿜는 듯 한 길손은 이제 겨우 스무살안팎으로 보이는 매우 젊은 인상이었는데 진중한 태도며 무게가 갖는 목소리에는 호남아의 씩씩한 기상이 엿보였다.

학생복차림의 이 젊은이분이 바로 에 조선헌명군을 조직하신 혁명군대장 **김일성** 동지이시었다.



지금 그이께서는 일제의 억압에 눌리워 기를 펴지 못하고 사는 이 나라 백성의 처지인양 기를 가는 농가를 이윽히 살펴 보고 계시었다. 고삭아 버린 짚이영이며 누렇게 퇴색한 창호지가 너풀거리는 문밖은 이 가정의 설음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허울만 남은 집을 지키려고 들성듬성 세워져 있는 싸리올바자는 세찬 발길에 채운 모양 엮음줄이 끊어져 나간채 모재비로 넘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이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한것은 토방돌걸에 놓여 있는 닭장이었다. 싸리나무로 엮은 닭장안에서 밤눈 어두운 어미닭 한마리가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닭을 대로 닭아 빠진 살림에도 숨 가진 짐승이 있다는것이 정녕 놀라우셨다. 정성스레 엮은 닭장이고보면 이 집 가산의 전부인듯 싶었다.

그이께서는 올바자너머 동리쪽으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거기에는 땅밑으로 찾아 들듯 추녀 낮은 오두막들이 이제 더는 솟구치기 어렵게 쇠잔한 모습으로 침울하게 서 있었다. 불빛마저 없는 그 집들은 수만 당한 민족의 모습인양 온기가 전혀 느껴 지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뜰안에 널려진 삼줄이며 장작개비들을 치우느라 서두르는 오래희로인을 조용히 부르시었다.

《아버님, 어려운 살림을 하시자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이의 어조에는 인정미가 넘쳐 흘렀다.

《집을 떠나다니는 사람들의 고생이 더 크지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옷방으로 떠미는 로인의 청을 마다하시며 땅바닥에 장작개비를 깔고 앉으시었다. 그리고 그에게 손수 담배불을 붙여 주고 나서 집안형편을 일일이 물으시었다.

오래희로인은 허물없이 대하시는 그이의 소탈한 인품에 끌려 이미 눈을 감은 안해며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들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씀 드렸다. 그러면서 속으로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길손이 어떤 사람일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밤길을 가다가 집에 머물러 간 나그네들은 많아도 이 젊은이처럼 돌아비살림을 하는 늙은이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따뜻이 위로해 준 사람들은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초면의 이 길손은 고달픈 인생에 몸을 맡긴 늙은이에게 친자식보다 더 후더운 정을 기울이고 있는것이다.

그는 그럴수록 집주인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이 야속해 지며 웅색함을 금할수 없었다.

로인은 아직도 등잔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대고 소리쳤다.

《머늘애야,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밤때식을 끓여 드리려무나.》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러한 로인을 만류하시었

다.

《아버님, 길 떠난 사람들이 아무렴 배를 곯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걱정은 마십시오.》

그러시고 손님들앞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는 녀인에게로 친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아주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걸 보니 우리 때문에 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는게 아쉽니까.

우린 잠깐 들린 길손들이니 밖에서 다리쉽이나 하다가 첫 새벽에 떠나렵니다. 그러니 마음 쓰지 말고 어서 들어 가 눈을 붙이십시오.》

그이께서 끝내 사양하시는 바람에 로인은 때식 짓는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럼 아궁이에 군불이라도 좀 때리다. 방이 더워지면 구들에 올라 가 눈들을 붙이시우.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잠이 제일 그림다우.》

그는 뒤울안에서 마른 장작을 한아름 안고 나왔다.

《아버님, 년세 많으신분이 나무단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기가 힘드실텐데 우리때문에 우정 군불을 때지 마십시오. 우리야 아직 젊은 사람들인데 밖에 있는것이 더 좋습니다. 할 일도 있구 해서...》

로인은 나무단을 추슬러 안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인정사정이 이리도 밝으실가. 분명 평범한 나그네의 걸음을 하는분들은 아니야. 그럴수록 자기의 성의를 다하고 싶어 졌다.

그는 혼자소리처럼 입을 열었다.

《나무집이 아무리 무거워도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소. 산에 그 흔한 땀감마저도 제 땅이 아니다보니 마음대로 할수 없구려. 땅임자도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우릴 상가집 개만 큼도 여기지 않으니 그게 괴로운 일이라우.》

로인은 정지문을 열었다. 그가 사라진 문 틈새로 무거운 한숨소리가 새어 나왔다.

어데선가 《찌룩 찌룩》하고 풀벌레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 왔다.

×

이 시각 **김일성** 동지의 귀전에는 오래희로인이 남긴 한숨소리가 조국의 신음소리처럼 돌려와 가슴벽을 허비였다. 그이의 발길이 닿으시는 곳마다에서 들려오는 수만 당한 민족의 탄식이었고 절규였다. 더는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 이 수만의 역사를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그이께서는 길림시절을 회상하시었다. 참으로 그 시절은 그이께 있어서 새로운 혁명의 원리를 체득하고 무르익히신 귀중한 나날이었다. 그 시절에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바로 조선인민자신이며 조국해방은 반드시 조선인민의 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체의 진리를 발견하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어 올해 봄에는 고유수에서 새 세대 청년핵심들로써 정치 및 반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무으시었고 여름에는 카를로회의를 소집하시어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그리고 우리 혁명을 총대로써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이 바로 무장투쟁로선이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시어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도 결성하시였다.

드디어 조선혁명은 자기의 사상과 참모부를 가지고 항일혁명의 첫 기슭을 떠나 망망대해로 나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슴이 벅차오르시어 자리에서 일어 나시였다.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별들이 깜박이고 있었다. 온 밤 울어대던 풀벌레는 힘이 진했는지 소리를 멈추었다. 밤은 여전히 소리없이 깊어 가고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삼작문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조선혁명군 성원인 최동무를 부르시였다.

《최동무, 이리 와 다리심을 하시오. 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이께서는 최동무에게 자리를 내어 주시며 다정히 속삭이시였다.

《온성에 나가 로동자들앞에서 할 정치사업내용을 생각하고 있던 중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였다.

《그러니 당조직의 분공을 연구하고 있었구만.》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탄광출신인 그에게 온성지구를 혁명화할데 대한 분공을 주시였던것이다.

《최동무, 국내에 나가 사업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들과 사고교락을 같이 하는거요. 언제나 인민의 아들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꼭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일해 나가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동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게 되고 또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혁명투쟁에 적극 동원할수가 있소.》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최동무를 미덥게 바라보시였다. 참으로 자신과 뜻을 같이 해나가는 이런 혁명동지들을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멀다 않고 걷고 싶은 심정이지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은하계가 펼쳐진 밤하늘에 눈길을 주시였다.

별 하나가 꼬리를 길게 그으며 아래로 떨어지더니 빛을 감추었다. 궤도를 잃은 그 작은 물체는 별이 아니라 별조각이었다. 별은 영원히 자기의 궤도를 탈선하는 법이 없는것이다.

불쑥 그이의 심중에는 자신께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오중화나 오중성이와 같은 열혈청년들의 모

습이 떠오르시였다. 그들을 혁명의 궤도에 들여세운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궤도에서 혁명가의 삶을 빛내어 나갈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으셨다.

《최동무, 온성에 가게 되면 교편을 잡고 있는 오중성동무와 손을 잡고 일을 잘해보오. 오중성동무가 나를 만나러 길림에 왔다가 내가 감옥에 있다는것을 알고 다시 온성에 들어 가 반일교육을 비롯하여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소. 집에도 소식 한장 전하지 않고 있는것을 보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달라붙은 모양이요.

지금 그에게 마음을 나눌 동지가 얼마나 그림겠소.》

《김일성 동지, 우리가 수백리길을 걸어 그를 찾아간것을 알면 몹시 기뻐 할겁니다.》

그이께서는 최동무의 말을 수긍해 주시였다.

《그렇거요. 이번에 우리가 온성으로 가는 길에 여기 석현에 들러 보길 참 잘한것 같소. 목재판로동자들속에 들어 가 활동하고 있는 오중화동무의 소식도 알게 되고 오중성동무에게 아버지소식 이랑 알려 줄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요. 오중성동무가 집소식을 알면 힘을 얻을거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여전히 깜박이며 숨박꼭질을 하고 있었다.

저 별들은 지금 저마끔 솟아 빛을 내고 있는것 같지만 실은 자리길이 같은 별들이 모여 하나하나의 성좌를 이루고 있는것이다.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도 저 태양계의 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뜻으로 뭉쳐진 동지라는 집단속에서만 혁명가의 삶을 빛낼수 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반짝이는 별들에 눈길을 주신채 화성의숙으로부터 길림을 거쳐 카툰에 모여 들었던 동지들의 믿음직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그려 보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최동무쪽으로 몸을 기울이시였다.

《최동무, 당조직에서 분공한것처럼 이번에 온성에 내오는 기층당조직의 활동을 잘 지도해 주오. 국내에 처음으로 내오는 당조직이니만치 결성은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나는 그곳 조직책임자를 오중성동무에게 위임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그 동무는 가정적으로나 자신의 사상적각오상태로 보아 자기 스스로 선택한 혁명을 끝까지 할 동무입니다. 나는 그 동무가 능히 자기 사업을 잘해 나갈수 있다고

보오. 최동무는 그 동무와 같이 애국심이 있고 반일투쟁정신이 강한 청년들로 조직을 확대하고 당조직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창건하게 될 항일무장투쟁대오의 핵심골간을 더 많이 키워 내야 하오.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치는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일제와의 투쟁으로 옹결하게 이끌어 준다면 우리는 거대한 힘을 얻을수가 있소. 스



스로 혁명을 자각한 사람들은 변함없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슬바람이 불어 왔다. 9월의 마지막밤임을 증명이나 하듯 차고 쌀쌀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최동무는 전혀 찬 기운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팍 차오르고 있었다.

그는 눈길을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방금전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 보시던 은하계의 자리별들을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았다. 저 하늘에서 다른 별들보다 더 밝은 빛을 뿌리고 있는 별들이 바로 태양 가까이에 있는 별들인것이다.

최동무는 자기의 곁에 계시는 그이의 당부만 아니었다면 로인에게 이분이 바로 소식을 몰라 애 타하는 둘째 아들을 만나러 온성으로 가시는 조선혁명군 대장 **김일성** 동지이시라는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굳이 자신의 성함을 소개하는것을 만류하시였던것이다.

그는 머지 않아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 반짝이게 될 또 하나의 별을 생각하며 삼작문 밖을 나섰다. 별들이 태양을 옹위하며 자기의 자리길을 돌고 돌듯이 혁명의 령수를 받들어 전사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것이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 가고 달빛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

손주애의 곁에서 새우잠에 들었던 오래희로인은 광술불이 빠지직 하고 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어느 새 다 타서 사그러지는 광술이 마지막기운을 모으는 소리였다.

그는 등피를 벗기고 등잔안에 새 광술을 집어 넣었다. 방안이 환해 졌다. 문득 집에 들린 길손들이 생각나자 로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젊으신분이 맨 땅에 장작개비를 깔고 앉으신채 열심히 삼줄을 다듬어 바줄을 꼬고 계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이께서 꼬신 삼바가 한통구리는 실히 되였다.

《이거 정말 면목이 없수다. 하루밤을 쉬려고 잠간 들린 손님들을 여태 밖에 세워 놓고 있었으니 늙은게 집주인구실을 못했나 보웨다.》

《아버님, 이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어렸을 때 저의 할아버지한테서 배워 둔 거랍니다.》

그이께서는 일손을 멈추시고 로인을 쳐다보시였다.

《아버님, 그런데 왜 벌써 일어 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버님의 잠을 깨운게 아닙니까?》

《아니라우. 옷방이 비어 있길래 나와 본거라우.》

로인은 정지간으로 들어 가더니 뚝배기를 들고 나왔다.

《원 때식이나 이었는지. 사양 말고 이 물이라도 들어 보시우.》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로인의 손에서 뚝배기를 받아 드시였다.

《이게 찢팡이차가 아닙니까?》

《산에서 햇열매를 따왔지요. 마시면 거뽀할거우다.》

그이께서는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찢팡이차를 드시였다. 뚝배기를 기울이고나니 참말로 심신이 상쾌해 지였다.

《최동무, 이리로 와서 찢팡이차를 마시오. 피곤이 싹 달아 났소.》

그이께서는 삼작문가에 서 있는 최동무에게도 뚝배기를 권하시였다.

오래희로인은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마음속에 갈마들었던 죄스러움이 가뻐워 지는듯 싶었다. 자기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별치 않은 차를 맛나게 드시며 무척 기뻐 하시는 이분이 정녕 농군의 후손이 되시는분일가? 삼을 얼마나 정결하게 다듬어 꼬았는지 로인은 그분의 얼굴과 그이께서 꼬신 바줄통구리를 홀린듯이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뿐이였다.

갑자기 방안에서 어린애의 가느다란 앓음소리가 새여 나왔다. 이어 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애가 또... 어찌면 좋아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 나시였다.

《어린애가 앓는게 아닙니까?》

그러시고 로인을 재촉하시며 방문을 여시였다. 광술불빛이 희미한 아래목 노전우에 혼수상태에 빠진 어린애가 누워 있었다. 서너살밖에 안되어 보이는 어린애는 고열에 시달려 눈 뜰 힘마저 잃고 얼굴은 피기가 가서 저 창백했다. 경련에 몸을 떨 때마다 거친 숨을 겨우 툭아 쉬고 있었다. 다급하게 몰아 쉬는 그 숨소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는 어린 생명의 마지막호소인양 애처롭게 어른들의 가슴을 허벼내고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고통에 시달리는 어린애의 병상태를 가늠하시자 이 집 머느리가 떠온 더운 물에 수건을 적시여 어린애의 배를 덮혀 주시였다. 그리고 짜늘하게 식어 버린 환자의 손발을 따듯이 주물러 주시였다. 조금후에 어린애는 진통이 멎었는지 숨을 고르롭게 내쉬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아이의 혈을 찾아 손가락끝으로 눌러도 주시고 안마도 해주시였다. 그러시는 그이의 이마에는 땀발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오래희로인은 아직 의술을 터득할 나이가 안된 젊으나 젊으신분이 온 심신을 바쳐 환자를 다루는 모습을 뵈을 잃고 바라보았다.

(혹시 병을 봐주려 길을 떠난 의원은 아닐가?)

그러나 분명 의원차림은 아닌분들이었다. 하지만 의원인들 환자의 병을 이보다 더 각근히 봐주고 성의를 바칠수 있을가!

로인은 길손들이 도대체 어떤분들일가 하고 궁냥을 해보았으나 짐작이 가지 않았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린애가 잠들었을 때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시며 무엇인가 급히 적어 넣으시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최동무를 부르시여 방금 쓰신 편지를 그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었다.

《여기서 한 20리 가면 심리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아버님과 함께 의원을 지내시던분이 살고 계시거요. 종이에 환자의 병상태를 적었으니 지체 말고 약을 지어 와야겠소.》

청년은 쪽지를 받아 들자 곧 트랙에 내려 섰다. 미처 영문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오래희로인은 삽작문을 여는 소리에 버선발로 밖에 나갔다.

《해보시우. 이 밤중에 왕복 40여리나 되는 산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소? 떠나지 마시우다. 잠시 묶어 가려고 들린 손님들을 고생시키다니 안될 말이우다.》

로인이 막무가내로 청년의 손을 잡아 끌었으나 그는 사양할 자세가 아니었다.

《로인님, 걱정 마십시오. 저분의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 유명한 의원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 한푼 받지 않고 병을 고쳐 주어 덕망이 높은분이였지요. 아버님의 의술을 넘겨 받아 처분도 병을 잘 본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저분을 부탁합니다.》

어느새 그는 어둠속으로 바람같이 사라졌다.

오래희로인은 망두석처럼 한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 눈 부시게 반짝이는 별 하나가 마주쳐 왔다.

불쑥 야학방에서 아들이 들려 주던 옛말이 떠올랐다.

《옛날 옛적 하늘나라에...》

(이건 분명 옛말이 아니야, 착한 그 별이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여 귀인을 보내준게 틀림이 없어.)

로인은 정녕 집에 찾아 든 행운이 믿어 지지 않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다가 급히 방안으로 들어 갔다. 그리고는 손주애의 이불깃을 꼭꼭 여며 주고 계시는 그이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 집에 들린 손님이 뉘집 자손인지도 모르고 이 늙은게 주책머리없이 폐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웨다.》

로인의 인사에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아버님, 자식 같은 사람앞에 별 말씀을 다하십시오. 길 가는 나그네들이 집주인의 성의를 무시했으니 오히려 제가 아버님께 사죄를 드려야

할가 봅니다.》

그이께서는 송구하여 어쩔바를 몰라 하는 로인의 마음을 늦춰 주시려고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오래희로인은 허겁지겁 손을 내저으며 감동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되뇌일뿐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린애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 대시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었다.

《아버님, 우리가 이 집에 들러 보길 잘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라서 병을 호소할줄 모르기때문에 제때에 손을 쓰지 못하면 신상에 큰일이 생길수 있답니다.》

로인은 저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다.

《애가 어제부터 앓기 시작했지요. 허나 약을 지어올데가 없으니 속만 태우고 있었지요. 애비 얼굴도 모르고 이 세상에 고투리를 내민 손주애를 잃고서야 이 늙은게 아들앞에 체면이 안 서겠기에... 어린것의 생명이 꺼지면 함께 죽을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오래희로인은 손등으로 축축한 눈굽을 닦았다.

로인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마음은 저려 드시었다.

마음씨 어질고 넘원마저 소박한 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정상이야말로 낮 설은 이국땅에서 제 한가정조차 건지지 못하고 살아 가는 이 나라 인민이 겪고 있는 슬픔이었던것이다.

《아버님, 왜놈들한테 맞아 고생하시다가 눈을 감으신 어머님의 묘도 지켜 드리지 못하고 늙으신 아버님께 집안살림을 떠맡기고 나다니는 아드님들을 대신하여 제가 아버님께 용서를 빕니다.

이 집 아드님들은 왜놈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자고 가정을 떠나 투쟁의 길에 나선 애국자들이고 혁명가들입니다.

저는 장한 아드님들을 두신 아버님께 이 나라의 아들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희로인은 감격이 목을 짹 채워 그이께 아무 말씀도 드릴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릴뿐이었다.

광술불이 고즈넉이 타오르는 방안에서 그는 소탈하시고 인자하신 그이의 인품에 끌려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 버린 10년전 대한날에 있었던 일을 터놓기 시작했다.

...그날은 《간도대토벌》이 온 동북땅을 휩쓸었던 이듬해 정월이었다.

홍범도의병장이 수십명의 인원을 데리고 그의 집에 당도했을 때 기승을 부리던 눈보라도 뜸해졌다. 대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짧아 질대로 짧아져 군데군데 살점이 드러나 보였고 그들이 어깨에 멘 탄피에는 총알이 비어 있었다. 행렬속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람루한 옷을 걸친 홍범도를 알아본 오래희는 그의 손을 와락 부여잡았다.

《홍대장, 이제 어찌된 일이요? 왜적군대를 벌

레 잡듯 쓰러눕히던 그 호랑이기는 어데 두고 이런 꼴로 오셨소?»

홍범도의 술빛 같은 눈썹이 경련에 떨듯 푸들거리더니 붉은 눈물방울이 불을 타고 흘러 내렸다.

《오형, 내가 의병들을 이끌고 온 간도땅을 메주 밟듯 하며 왜놈들과 싸워 온걸 오형도 알지 않소. 처자권속을 왜놈의 손에 다 잃으면서도 오랑캐의 씨를 말리우기전에 산에서 내리지 않으리라 맹세코 싸워왔지만 세월이 갈수록 왜놈의 토벌은 더욱 악착해 지고 독립의 길을 밝혀 줄 등대는 아무리 둘러 봐야 보이지 않는구려. 그래서 살아 남은 부하들만을 데리고 아라사로 가는 길이요.》

《그러니 승전길이 아니라 이국땅 연해주로 피난 간단 말이요?》

오래희는 가슴속에서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의병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걸고 타향살이 슬픔을 견디어 왔건만 인제는 희망의 조각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었다.

홍범도는 굶주림에 지쳐 있는 대원들을 가리키며 부탁하였다.

《오형, 다시 돌아 올 날 기약할수 없는 길을 떠나는 우리 애들에게 리별주라도 마시게 한상 차려 주구려.》

오래희는 온 형제일가가 힘을 합쳐 애지중지 기르던 돼지를 잡아 술상을 차렸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가고 방안에는 술잔이 부딪치는 소리, 취중에 울음을 삼키며 사나이들이 부르는 허 께부라 진 노래소리가 멎을줄 몰랐다. 그들을 보는 오래희의 잔조롭힌 눈가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쳤다.

홍범도가 비칠거리며 일어 나 오래희의 술잔에 자기의 잔을 쫓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잔을 떨구며 처량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원통하구나. 남아의 굳은 마음이 총과 함께 꺾어 졌으니 내 이 땅에 남아 할 일이 무엇이냐. 오직 바랄것은 아침뿐이로다.

이 마음 새 아침을 기다릴제 야속하게도 밤이 너무 길구나.》

온 방안이 울음판이 되었다.

《대장,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날은 오는 법이 아니겠소. 우리 함께 타향에서나마 서로 의지하며 아침을 기다려 봅시다.》

오래희는 축축히 젖어 드는 목소리로 이렇게 간청했다. 그러나 홍범도는 고향 같은 주름이 깊숙이 패워진 이마를 세차게 흔들었다.

《오형, 태양이 없는 하늘에선 동이 뜨지 않는 법이라오.》

그는 자신을 더 지렁해 내지 못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가슴을 쿵 쿵 쳤다.

《아, 불쌍한 백의민족에게 아침을 불러 오는

태양은 정녕 저 하늘에 없단말인가?》

홍범도는 오래희의 가슴에 피의 절규를 웅이처럼 새겨 넣고 떠나갔다. 그리고 그의 가슴속에 한가닥 남아 있던 희망의 빛마저 말짱 걷어 안고 스러져 가는 황혼속으로 영영 사라졌다...

어린애의 머리말에 앉으시여 오래희로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조선혁명군 대장 **김일성** 동지의 심중에는 민족의 녀을 애 타게 부르며 바람에 날리는 가랑잎마냥 정처없이 방황하는 동포들의 모습이 아프게 안겨 오시었다.

그렇다. 지금 2천만 동포는 조국이 해방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살길에 대한 희망을 잃은 인민들의 가슴에 해방의 빛발을 안겨주자면 하루빨리 무장대오를 조직하여 피바다에 잠긴 이 땅에 혁명의 첫 총성을 울려 주어야 한다.

그이의 눈앞에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 받으신 두 자루의 권총이 삼삼히 떠오르시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유물을 소중히 보관하시었다가 자신께 주신 총이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밀천을 마련해 주신 아버님이 더없이 고마우시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심중에서 울려 오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시었다. 그것은 총대로 시작한 혁명을 기어이 총대로 완수하라는 아버님의 유언이였고 어머님의 당부였다. 그리고 총 한자루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동지들의 간절한 녀원이였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총대혁명의 결심을 굳히시는 그이의 사색을 깨울세라 등잔불은 고즈넉이 타오르고 있었다.

×

광술불이 휩 꼬리를 그으며 방문이 열리였다.

얼굴에 땀투성이가 된 최동무와 흰 두루마기차림의 중년사나이가 방안으로 들어 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를 알아 보시자 자리에서 일어 나시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였다.

《선생님, 그동안 옥체건강하셧습니까?》

《어... 성주! 이 사람...》

그이를 알아 본 의원은 손을 내밀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몇해만인가. 부친의 산소에서 서로 헤어진 후 처음일세 그려.》

**김일성** 동지께서도 감회 깊은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으시였다.

《선생님, 제가 먼저 찾아 뵈와야 할텐데 손수 밤길을 걸어 오시게 하여 정말 미안합니다.》

《자네 편지를 받으니 보고 싶어 견딜수 있더라우. 그래서 저 사람이 만류하는걸 내 기어코 따라 왔다네. 참 자네 삼촌되시는분이 풍산땅에서 일본순사놈을 보기 좋게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과연 가문의 피는 어데로 빠질데가 없다고 생각

했네. 자네가 길림에서 학생시위를 벌려 왜놈들을 혼썰내 주었을 때도 난 자네 선친의 생각을 했어.

부친이 생전에 남긴 《지원》의 뜻을 온 일가분이 받들어 나가는것을 보면서 나도 뜻 있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소리없이 웃으시었다.

의원은 가슴속에 쌓였던 그리움을 설새없이 터놓았다.

《그래, 어머니는 편안하신가?》

《예, 저희들의 일을 도우시느라 누워 계실 틈도 내지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정말 강직한분이요.》

의원은 녀사의 옛모습을 그려 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잠시 화제가 동강났다. 불쑥 그는 자신의 의무를 깨달았다.

의원은 급기야 가방을 열고 청진기를 꺼내여 목에 걸었다.

이윽고 방안에는 약탕관에서 끓어 오르는 약냄새가 훈훈하게 풍기고 있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환자의 곁에서 의원을 도와 시중을 들어 주시였다.

초약내가 폐부를 찌르자 오래희로인은 가슴에서 쏘아 들었던 시름이 서서히 날아 나버리는것만 같았다.

그는 토방돌에 앉아 곱방대를 입에 물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방안에서 생면부지의 손님들이 손주애의 생명을 지켜 밤을 새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행운을 지고 다니시는분이 틀림 없어. 우리 집에 귀인이 들어 애의 명을 이어 주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 나 정지간으로 들어 갔다.

《며느라야, 어서 올라 가 아길 들여다 봐라. 저분들이 우리 애를 살려 내셨구나.》

로인은 웃고름을 입에 가져다대고 땅바닥에 주저 앉아 흐느끼는 며느리를 재촉하였다.

《애야, 울지만 말고 어서 올라 가자. 올라 가서 고마운분들께 절을 드리자꾸나.》

그는 며느리를 앞세우고 방에 들어 갔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노전우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생님들 덕분에 이슬지듯 할번 했던 우리 손주애가 살아 났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의원이 로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로인 장님, 이 김선생님자제분이 아니였더라면... 정말 애가 큰일이 날번 했습니다. 제때에 응급치료를 하고 처방을 보내주었기에 애가 살아 난겁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로인은 수수한 학생복차림의 젊으신분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러는 그를 만류하시였다.

《아버님, 젊은 사람에게 왜 이러십니까? 아버

님이 이러시면 제가 더 웅색해 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젊은이들치고 자기 인민이 겪고 있는 불행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데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나라를 찾기 위해 가정을 떠나 왜놈들과 싸우고 있는 태의 아드님들을 대신하여 밤을 좀 밝혔을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훌륭한 아드님들을 두신 아버님께 큰 절을 드려야 할가 봅니다.》

오래희로인은 황망히 그이의 팔을 잡고 말씀드리였다.

《원, 내가 무슨 상감마마라고 큰 절을 하고 계시는 귀한분의 절을 받는단 말이요. 안될 말씀이요.》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 났다. 즐거운 웃음소리에 잠에 들었던 어린애가 눈을 떴다. 어린애가 눈을 뜬것을 제일 선참 보신분은 바로 **김일성** 동지이시였다.

《아버님, 애가 눈을 떴습니다.》

그이께서는 영문을 몰라 두눈을 깜빡이는 어린애를 포대기채로 감싸안으시더니 로인의 팔에 안겨 주시였다.

로인은 손주애의 이마에 얼굴을 마구 비벼 댔다.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쳐 올라 어린것의 얼굴에 방울방울 떨어 져 내렸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눈을 뜬 어린애의 모습을 보고만 계실수 없으시여 로인의 품에서 아이를 다시금 받아 안으시였다. 어린애의 눈동자를 들여다 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는 환한 미소가 빛발치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후더워 오르는 마음을 식히시려는데 뒤통문을 조금 열어 놓으시였다. 열어 놓은 문틈으로 신선한 공기가 흘러 들었다.

그이께서는 마음이 상쾌해 지시여 아기를 안으신채 조용한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시였다.

거촌 산 등성이 끝까지로  
봄빛은 우리를 찾아 오네  
아가는 움 트는 조선의 꽃  
아가는 움 트는 조선의 꽃  
...

그이의 노래를 새겨 보는 오래희로인의 가슴속에는 참말로 희망의 봄빛이 비쳐 오는것만 같았다.

손바닥만 하게 보이는 하늘에서는 첫 새벽을 알리는 서광이 비끼고 있었다. 저 푸른빛이 흑시이분의 안광에서 비쳐 지는것은 아닐가. 그는 숭엄히 눈길을 들어 그이를 우려했다. 그이께서도 오래희로인을 돌아 보시였다. 그러시고 담담하신 어조로 말씀을 하시였다.

《아버님, 우리 민족의 장래가 이 애들에게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애들이 조선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랄 때

조선의 앞날도 창창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어린애를 애어머니에게 안겨 주시었다.

《아주머니, 아드애를 잘 키우는것이 남편의 일을 돕는 일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상봉의 기쁨을 나눌 그 날을 위해 굳세게 살아 주십시오.》

애어머니는 어린애를 꼭 껴안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드리었다.

새벽녘이 된것을 깨닫자 의원은 자리를 털고 일어 났다. 그리고 오래희로인을 향하여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애가 눈을 떴으니 전 돌아 가렵니다.

로인장님, 김선생님 자체분의 덕분으로 우리 서로 인연을 맺었으니 앞으로 마음을 의지해서 독립의 날을 기다립시다.》

모두 떨쳐 나 의원을 동구밖까지 내려워 주었다. 새벽하늘에서는 별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어느 집에선가 닭이 해를 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울음소리에 화답하듯 닭장안에서 어미닭이 깃을 푸드덕거렸다.

오래희로인은 밖에서 땅을 보고 있던 최동무마저 방안으로 떠밀었다. 정지간으로 들어 간 그는 머느리를 조용히 불렀다.

《머늘애야, 술에 물을 부어라. 우리 애를 살려준 고마운분들께 닭을 잡아 아침상을 올리자꾸나.》

머느리가 동이를 이고 삽작문을 나설 때 어미닭은 둥지에서 나와 먹이를 찾아 몸을 기우뚱이고 있었다.

학생복을 어깨에 걸치신 **김일성** 동지께서 어느새 닭장문을 여시고 닭을 내놓으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처마밑에 매달려 있는 뒤옹박에서 닭모이를 한줌 꺼내시어 마당에 뿌려 주시었다.

《구구... 어서 많이 먹고 알을 짹짹 낳아라.》

씨암닭은 부지런히 땅바닥에 부리를 쫓고 있었다.

오래희로인은 어망결에 발밑을 감도는 닭을 덥석 불안았다.

《꼬꼬덕 꼬꼬...》

불의의 침습에 놀란 닭이 날개를 푸드덕이며 잔털 몇오래기를 공중으로 날려 보냈다.

《아니, 닭을 어찌자고 그러십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놀라운 표정으로 다급히 물으셨다.

로인은 닭을 두손으로 꼭 그러건채 말씀 드렸다.

《옛날부터 은혜를 갚겠거든 머리를 베어 신을 삼아 올리라고 일러 왔는데 먼 길 가시는 손님들한테 신은 삼아 들리지 못할당정 집에서 기르던 닭이야 잡지 못하겠습니까. 부디 식구들의 성의를 마다하지 말아 주시우.》

그이께서는 날개를 붙잡힌채 겁 먹은 눈길로

목을 길게 빼대는 닭을 애처롭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아버님, 자식이 부모를 위해 밤을 좀 새웠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인사를 차리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들구실을 한것으로 여기시고 닭을 그냥 놓아 주십시오.》

《아니올시다. 내 자식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온밤을 꼬박 밝히면서 해주셨는데 닭을 잡지 못하면 애들두 날 타할거웨다. 그러니 내 심정을 알아 주시우.》

《이러시면 정말 안됩니다. 최동무, 이리 와서 어서 닭을 놓아 주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신이 꼬신 삼바로 넘어진 씨리울바자를 손질하고 있는 최동무에게 도움을 청하시었다.

최동무가 로인에게 다가와 닥쳐 올 운명을 기다리며 작은 눈을 데룩거리고 있는 어미닭을 받아 땅에 내려 놓았다. 씨암닭은 자기의 존재를 천하에 시위하려는듯 《꼬꼬덕 꼬꼬...》하고 연방 소리를 지르더니 **김일성** 동지께서 서계시는 토방돌앞에 크고 하얀 알을 낳고 푸드덕 닭장우에 날아 올랐다.

그 모양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아버님, 닭이 알을 낳았습니다. 하마트면 이 황금덩이가 가마안에서 버럭덩이가 될번 했습니다. 하하하...》

그이의 호방한 웃음소리가 새벽대기속으로 울려 퍼졌다.

《닭이 새벽알을 낳은건 난생처음 봅니다. 예로부터 닭이 새벽에 알을 낳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지요. 닭도 은인을 알아 본것 같습니다. 허허...》

이렇게 말하는 로인의 가슴은 별안간 쩡해 왔다.

참말 우리 집에 은총이 비껴도 단단히 비꼈나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닭알을 정히 집어 로인의 손에 쥐여 주시었다.

《아버님, 덕에선 이 닭이 큰 재산일텐데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닭알을 받아 손주애에게도 먹이고 급할 때에는 살림에 보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닭알을 모아 병아리도 깨워 보십시오. 그것들이 자라는 모양을 들여다 볼 때면 가슴에 쌓인 시름도 한결 덜어 진답니다.》

그이께서는 생각에 잠기신채 말씀을 이으셨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도 이웃에서 준 병아리를 애지중지 키워 엄지닭으로 자래워서는 알을 받아 또 병아리를 깨워 닭을 키우곤 했습니다. 그 닭들이 알을 낳으면 우리 어머님은 가난한 집들에도 나누어 주시고 아버님을 찾아 오는 독립운동자들에게 닭곰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

습니다.…」

그이의 감회어린 말씀을 들으며 오래희로인은 마음속으로 끓어 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대대로 인덕이 높은 가문의 자제분이 틀림 없어.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형편을 그리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고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분, 가난을 이겨 낼 방도까지 환히 가르쳐 주시는 소탈하고 인정 많으신 이분이 훌륭한 조상분들로부터 덕망을 유산으로 물려 받으신게 틀림 없어.)

머느리가 방안에 아침상을 차렸다. 조밥에 호박 찌개장이 그이의 앞에 놓여 있었다. 색 다른 음식이라면 손님들의 밥그릇우에 삶은 닭알이 한 개씩 얹혀 있는것뿐이었다.

그이께서는 더운 김이 피어 오르는 밥그릇을 바라보시며 소사하에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시였다. 자신은 죽물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동지들이 찾아 가면 색다른 음식을 차려 주시느라 마음 쓰시는 어머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젖어 드는 마음을 달래시려고 화제를 돌리시였다.

《정말 우리 인민은 마음씨가 곱고 이웃이 서로 화목한 소박하고 의리심이 깊은 민족입니다. 자기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나라를 찾으려고 나선 우리들에게 온갖 지성을 아끼지 않는 아버님과 같은 인민들의 눈물겨운 성의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큰 힘을 얻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으시였다. 그러나 심중으로 이렇게 이으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인민의 이 뜨거운 마음을 명심하고 조국을 꼭 해방시키고야 말것입니다.》

오래희로인은 환하신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며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내가 잘못 보진 않았어. 이분이야말로 캄캄한 밤하늘을 밀어 내고 새날을 불러 오실 해님이 분명해!)

열어 놓은 피창으로 엷은 새벽빛이 흘러 들었다.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 오고 있었다.

이윽고 길손들은 길 떠날 차비를 갖추고 밖으로 나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프락에 서시여 찌그러져 가는 농가를 기억에 새겨 두시려는듯 오래도록 더듬어 보시다가 옷옷 안주머니에서 종이에 쓴것을 로인의 손에 쥐여 주시였다.

《아버님,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받아 주십시오. 오늘이 이 맥 어머님의 제사날이라는데 아드님들이 차려 드리는걸로 알고 술을 부어 주십시오.》

로인은 황망히 손에 들어 있는것을 그이께 드리였다.

《이것만은 절대로 안되우다. 큰일을 하시는분들에게 로자는 마련해 드리지 못할망정 돈을 받다니요. 이걸 도로 넣어 두시우.》

로인이 한사코 사양했으나 그이께서는 다시금 그의 손에 꼭 쥐여 주시였다.

그이께서 손수 삼작문을 여시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실 때 동녘하늘에서는 아침노을이 장엄하게 펼쳐 지고 있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아침노을속으로 걸어 가시는 위인의 영상을 우러르는 순간 오래희로인의 머리속에는 락조가 비낀 어둠속으로 멀어 저 가던 홍범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떠올랐다. 새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밤이 너무 길다고 울분에 차서 웨치던 그의 절규가 로인의 귀를 짹 메웠다.

(홍대장, 지금 어디에서 새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거요. 당신이 애 타게 찾던 태양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소. 이제 그 태양이 우리 조선에 독립의 새 아침을 불러 올거요.)

캄캄한 어둠을 가셔 내며 아침노을이 하늘가로 피어 올랐다. 태양의 빛발을 받아 안은 붉은 노을은 이 땅에 도래한 새 력사의 탄생을 축복하듯 장엄하게 누리에 펼쳐 지고 있었다.

##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명언

《실력은 꾸준하고 정력적인 학습의 열매이다.》

《지식은 곧 힘이며 지식의 힘은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전진할수록 더욱더 커진다.》

《지식은 사람의 가치를 빛내이는 보석이다.》

《기초가 약한 집이 오래 갈수 없는것처럼 기초지식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꿈도 허황한 공상이 되고 만다.》

《지식이 지식을 낳는다.》

《배짱은 아는데서만 생긴다.》

《모르면서도 아는데 하는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제가 제 발등을 찍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폭 넓고 깊은 지식, 만능의 지식을 소유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 일군들, 지성인들이 점령하여야 할 봉우리이다.》

## 즉흥시까지 들어 주시며

주체87(1998)년 6월 8일이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경희극 《편지》 공연을 보아 주신데 이어 이날 밤에는 주요 창작가들과 배우들을 몸 가까이 불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들일행이 도착하자 다 왔는가고 하시며 오늘 공연을 잘했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축배까지 부어 주시였다.

이날 경희극 《편지》를 창작한 작가를 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경희극 《편지》는 확실히 잘했다고, 그대 동무들의 생각이 나서 불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받아 안은 사랑이 너무 커서 걱정애 넘쳐 있는 작가의 머리속에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창작생활을 하여 온 못 잊을 지난 시기의 일들이 감회롭게 떠올랐다.

보통병사였던 그를 작가대렬에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가 창작한 예술 영화들과 경희극 《한마음 한모습으로》, 《통장훈》, 《약속》, 《축복》 등 여러편의 작품들을 친히 보아 주시고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시켜 주시였다.

경희극 《편지》도 그이의 그렇듯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완성된 작품이였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작가에게 돌려 주시고 오늘은 그 바쁘신 속에서도 시간을 내시여 또다시 공연을 보아 주신데 이어 이렇듯 몸 가까이 부르시여 창작성공을 축하해 주시는것이 아닌가.

작가는 평범한 병사에 불과했던 자기를 온 나라가 다 아는 작가로, 《**김일성상**》 제관인으로까지 키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고마운 사랑을 생각할수록 끓어 오르는 감사의 열망을 터뜨리지 않고서는 못 견딜 강한 충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세차게 끓어 번졌다.

그래서 어느 한 기회에 그이께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말씀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나라의 혁명시인 리찬은 해방직후 어버이수령님께서 함흥에 오셨을 때 즉흥시 <래양찬가>를 읊었습니다.

장군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시 한수 읊지 못한다면 어찌 조선의 작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이께서는 외람된 청을 올리는 작가를 나무람할 대신 오히려 너그럽게 웃으시며 시작이 멋있다고 어서 하라고 말씀하시며 박수까지 쳐주시였다.

홍분된 작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그시

두눈을 감고 어느 때의 습관 그대로 자연스럽게 즉흥시를 읊기 시작 했다.

꿈만 같습니다

어제날

전호가의 달빛을 등불 삼아

소박한 병사수첩에

숫저운 시를 써보며

장군님 그리워 눈물 짓던 이 병사가

오늘은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심장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안아 키워 주신

내 삶의 은인

인생의 길에 어둠이 있으면

등불 높이 쳐들어 어둠을 가셔 주고

창작의 길에 빈곤이 있으면

무한대의 나래를 달아 주신분

작가가 여기까지 읊었을 때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눈을 감고 시를 읊는 그가 보기 딱하여 눈을 뜨고 하라고 조용히 말해 주었다.

급해 맞은 작가는 속으로 흠칫 놀랐다. 정신을 마작 가다듬은 그는 두눈을 번쩍 뜨고 그이를 우러렸다. 재물을 부리는 자식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켜 보는 아버지런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앉아 계시는 그이의 다심한 눈길을 일별한 그는 안정된 마음으로 계속 시를 읊었다.

슬하에 두신 천만자식

그모두의 운명을 한품에 안으시고

준엄한 력사의 전구를

앞장에서 헤쳐 가시는 어버이

한없는 자애와 뜨거운 광망으로

우리모두를 감싸 안으시고

험한 길도 가장 많이 걸으시는분

비바람 눈보라도 제일 많이 맞으시는분

그런데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딱한 일이 벌어 졌다. 작가가 방금전에 하던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두눈을 감고 시를 읊었던것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것이 작가의 본의 아닌 습관이며 더구나 시구절을 생각하며 즉흥시를 읊자니 그로서는 능히 그럴수 있는 행동으로 보신듯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그의 시를 그냥 들어 주시였다.



아 이 세상 만물에  
 생과 성장의 은혜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는것이 없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천만가지 일을 다 자신께서 하시고  
 사랑을 주기만 하시는 우리 장군님

뜨는 해  
 지는 달을  
 조선의 하늘에 멈추어 놓고  
 천년만년  
 충성 다해 모시고 따르리라  
 아아 **김정일** 장군님  
 우리의 조선이시여!  
 우리의 세계이시여!

즉흥시가 끝났다. 그제서야 작가는 감았던 눈을 떴다.

바로 이 순간, 작가의 눈앞에는 밝게 웃으시며  
 제일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환하게 안겨 왔다.

뒤이어 장내에 우렁찬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작가의 마음은 갑자기 무거워 졌다. 작가의 실수를 깨달은것이다.

(일군의 지적을 받고도 또 눈을 감았으니...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인가.)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를 탓할 대신 오히려 작가를 가까이로 부르시었다. 그러시더니 즉흥시가 아주 훌륭하다고 치하까지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작가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감사는 제가 아니라 이 전사의 미숙한 즉흥시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한없이 너그럽고 소탈하신 장군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뿐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를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고맙습니다!)

**박봉운**

## 밤나무집 셋째

**채동규**

고향은 나를 품어 길러 주었다  
 우리 집 뒤뜰엔  
 해묵은 밤나무 두그루가 있어  
 한여름엔 숨 막히는 밤꽃향기  
 한가위쯤엔 싹누렇게 떨어지는 밤아람들...  
 그래서 나는 밤나무집 셋째로 불리웠다

지금도 낮 익은 향촌길에 오르면  
 밤나무집 셋째가 온다고  
 아득한 들끝에서 누군가 소리치리  
 고향 떠나 살면서 오늘까지도  
 그리도 내 넋을 끌던 그 부름소리

어릴적 밤나무집 셋째의 모습은  
 아득한 세월에 있어도  
 고향이여 나는 오늘도  
 너의 아들 밤나무집 셋째...

먼 북변의 개발지에서  
 돌격대제복 입고 흘러 간 청춘시절

뼈가 저려 드는 힘겨운 순간마다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내 심장의 불길로 더 후덥게 타올랐나니  
 나는 여전히 밤나무집 셋째였다

나는 지금  
 고향을 멀리 둔 도시에서  
 아무개 아버지로, 시인으로 불리운다  
 허나 고향이여 너는 내 가슴에 깃들어  
 깨끗한 추억을, 숭고한 시를 주거니  
 너의 흠속에 인생의 뿌리를 둔  
 나는 오늘도 밤나무집 셋째

어릴적 밤나무집 셋째는  
 크낙한 조국의 품에서 성장해 왔거니  
 만일 이 땅에 준엄한 시각 닦쳐 와  
 결전의 앞장에서 내 쓰러진다 해도  
 그 어떤 다른 칭호 원치 않노라  
 고향이여 조국이여  
 나를 그저 밤나무집 셋째로 불려 다오!

## 자연묘사에 비낀 역사적사변의 의미

장희숙

창조와 변혁으로 들끓는 이 강산에 또다시 5월이 왔다. 활력이 솟구치는 약동하는 계절, 환희의 계절이다.

봄빛이 한껏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의 가슴속에는 67년전 머나먼 동강의 밀림속에 울려 퍼졌던 환희의 함성이 5월의 노래로 메아리쳐 온다.

약동하는 봄날처럼 젊음과 열정에 넘치신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대강을 펼쳐 주시던 잊지 못할 동강의 그 5월, 우렁찬 만세와 박수소리, 감격의 흐느낌이 태고연한 정적속에 잠겼던 동강밀림을 뒤흔들며 백두산기슭에 메아리쳐 가던 그 봄날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페이지들을 뜨거운 감회속에 다시금 번지여 보느라니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기게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문학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묘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이 장편소설의 화폭들마다에서 내비쳐 지는 다양한 형상의 기교들중에서도 자연묘사의 기교,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생동하게 펼쳐지는 자연현상에 대한 묘사는 오늘도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작가가 자연묘사를 단순한 자연현상에 대한 묘사로만이 아니라 작품에 형상된 력사적사건과 사변의 본질과 의의를 더욱 돋우고 부각하기 위한데로 지향시켰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작가가 쓰고 있는 자연묘사의 수법은 상징적인 비유적묘사의 수법이라고 할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이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행하신 백두산에로의 행군로정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으로 그 의의를 밝힌 작품이다. 그러므로 백두산에로의 행군로정은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과 편협한 좌경배타주의자들에 의하여 빚어 진 혁명의 난국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하나하나 타개되고 혁명의 활기가 되살아 나는 뜻 깊은 장정이였으며 조국광복회창건을 위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작가는 바로 활력에 넘쳐 발전하는 혁명투쟁의 이러한 기본흐름을 새봄의 도래와 활기와 관련된 눈석이, 봄비, 봄우뢰 등 특징적인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작품의 발단, 발전, 절정, 해결장면들에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편소설의 앞부분에는 바야흐로 봄을 알리는 눈석이의 징조인 눈밑에서 습새여 나오는 가느다란 물소리에 대한 묘사가 있다.

《과연 들렸다. 마치 꿈결에서처럼 어디선가 쏘르륵거리는 가느다란 물소리가 들려 왔다. ... 그것은 눈밑에서 습새여 나온 물이 실처럼 가는 줄기를 이루어 가지고 조롱박만큼이나 될 물웅덩이에 떨어 지는 소리밖에 다른것일수 없다. 그것은 분명 해묵은 풀잎을 타고 봄이 오는 소리였다. ... 마침내 봄의 입김앞에서 늙은 겨울이 더이상 버틸만 한 기력을 못가지여 물러 앉기 시작한 모양인지?》

얼마나 의미심장한 뜻을 안고 있는 자연묘사인가.

작가는 이 자연묘사에서 3월이라는 계절적법칙이 가져다 준 단순한 자연현상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백두산기슭에로의 행군길에 오르신 수령님의 력사적진출의 의의를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즉 이 자연묘사의 밑바탕에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기슭에로의 진출의 발자욱을 땀신것은 우리 혁명에 새봄의 활기를 가져다 주는 력사적사변의 시작으로 된다는 사상이 진하게 깔려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이 활짝 꽃피여 날 주체25(1936)년 봄에 대하여 강세호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밤장면에 대한 묘사에서는 처절씩 떨어 지는 고드름소리에 뒤이어 락수방울소리에 대한 자연묘사를 주고 있다.

떨어 지는 고드름과 락수물, 이것은 무르익기 시작한 봄의 징조이다.

작가는 바로 이런 자연묘사를 통하여 수령님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봄이 바야흐로 무르익어 간다는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작품의 사건발전체계를 놓고 볼때 마안산밀영장면은 절정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심각한 대목이다.

《민생단》으로 물리워 버림을 받다싶이 하는 100여명의 혁명동지들, 민족배타주의자들의 독소에 시들어 가는 아동단원들의 처참한 모습...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피우지도 앓으시던 담배를 다 청하신다. 그이로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였고 엄혹한 현실이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대용단을 내리시여 저주로운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 태워 버리시고 혁명전사들의 정치적생

명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기본으로 새 사단을 형성하신다. 뿐만아니라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밝은 웃음을 다시금 찾아 주신다.

가장 심각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해결된 마안산 사건의 역사적본질을 작가는 눈석이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겨우내 두터운 눈이 하얗게 덮여 있던 밀림속의 땅거죽은 온통 시꺼멓게 변해 버렸다. 유구한 세우리를 두고 덧쌓이며 썩어 온 락엽층밑으로는 흐린 눈석임물이 숨새여 내렸다.

넘쳐 나는 봄시위물이 마안산계곡들을 팔팔 울리며 쏟아져 내려왔다.

풍만하게 넘치면서 흘러 내리는 눈석임물은 얼음장들을 뚫고 뚫고 바다로 흘러 갔다.》

이 자연묘사를 통하여 우리가 감득하게 되는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마안산계곡에 넘쳐나는 눈석이의 장쾌한 광경에 대한 생동한 화폭인가. 아니다. 이 묘사속에 깊이 깔려 비쳐지는 보다 깊은 뜻을 가슴 후덥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작가는 바로 뚫고 뚫고 내려가는 얼음장들을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배타주의자들의 형명대오에 끼쳤던 배신과 불신의 분위기로, 넘쳐 나는 봄시위물을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곳곳에서 모여 오는 혁명전사들의 흐름, 활력 있게 발전하는 혁명의 거세찬 흐름으로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묘사하였던것이다.

작가의 이런 묘사적기교로 하여 마안산의 역사적사건이 가지는 커다란 정치적의의와 본질이 더욱 뚜렷이 부각될수 있다.

주력부대로 결성된 대오가 첫 전투에로 진출하는 장면을 첫 봄비가 내리는 자연묘사로 결속한것도 그런 실례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의 묘사적특징은 조국광복회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동강회회의와 관련된 자연묘사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도송화강줄기에 떠나려 가던 성에장들이 거의 없어 저 가고 있던 얼마전에 백두산쪽에서는 동강마을이 생긴 이래 아직 들어 본적 없다는 장엄하고 신비한 우뢰소리가 길게 메아리쳐 왔다. 하늘도 땅도 짝 갈라 내는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며 울려 오기 한참전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눈 부시게 솟아 있던 백설의 백두산이 갑자기 떠오르는 희뿌연 구름속에 잠겨 버렸다.

그리고 우뢰소리가 울려 온지 여러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성에장들이 없어 저 가던 이도송화강지류의 넘쳐 나는 봄시위물결우에 빙산마냥 두터운 얼음장들과 물에 채 녹지도 부스러지지도 않은 커다란 눈덩어리들이 부석들과 함께 끊임없이 떠나려 왔다.

뒤번져 진채 물결우에 실려 흘러 내려 오는 성에장들에도 부석덩어리들이 얼어 붙어 있었다.

백두산마루턱밑에 붙어 있던 거대한 눈무지의 얼음산이 썩 버그러지며 무너져 내려 동강마을이 생겨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얼음사태를 일으킨것이다.

백두산에서 마지막 화산폭발이 있을 뒤에 그렇게 요란한 천둥소리가 울린것은 처음이었다.》

작가는 이 묘사에서 조국광복회창건의 역사적의의와 조국해방위업승리의 필연성을 천지개벽의 징조라고 하는 자연의 변화-천둥소리를 내며 울려 퍼진 봄우뢰에 대한 묘사로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봄우뢰는 조종의 산에서 조국해방의 대군이 태어났다고 온 세상을 향해 터친 웨침이며 곧 그 대군은 얼음사태마냥 삼천리강토우에 쏟아져 내려 왜놈들을 모조리 휩쓸고야 말것이니 하늘이 내신 수령님의 뜻대로 천지개벽이 일어 날것이라 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자연묘사가 순수 자연풍토에 대한 묘사로서가 아니라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사변의 본질, 기본흐름과 일치하면서 그 의의를 강조하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설화하였다는데 이 소설의 자연묘사가 가지는 특성이 있고 건인력이 있는것이다.

자연묘사에서 작가가 시종일관 견지한 수법은 형상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비유적묘사수법이다.

작가는 자연묘사를 작품발전체계와 론리에 따르는 발단, 발전, 절정, 해결장면의 서두와 마지막에 주면서 그 역사적사변의 본질과 의의에 맞게 물소리, 락수물소리, 눈석이, 봄비, 봄우뢰 등 봄과 관련된 자연현상과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평면적인 비유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양양되어 가고 있는 혁명투쟁의 흐름과 발전에 따라 자연묘사도 날로 무르익는 봄의 자연적변화와 일치시키면서 상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것이다.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끼듯이 한쪽의 자연 묘사에도 전설적인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과 역사적사변의 본질적의미가 뜻 깊게 담겨져 있으니 이는 작가의 깊은 사색과 탐구의 결과가 아닐수 없다.

## 땅의 새 노래

송해경

새봄이 왔다.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 사랑의 생명수가 이 땅을 푸근히 적시며 흘러 드는 새봄.

프락포르의 번쩍이는 보습날에 물결치며 뒤번져지는 드넓은 전야, 검스레한 흙빛에 대조되어 더욱 이채로운 모판의 푸른빛...

풍요한 가을을 마중 가는 이 땅의 노래인가 프락포르의 동음 힘차게 울리는데 하늘중천에서는 종달새가 지중지중 새봄을 노래한다.

어리광치는 봄바람에 머리칼을 날리며 나는 끈게끈게 뻗어 간 포전길을 따라 걷는다. 다리가 시도록 끝없이 걷고 또 걸어도 더 걸고만 싶은 이 길... 정말 여기가 올망졸망한 뽕기논들이 다닥다닥 배죽게 들어 앉았던 그 땅이란 말인가?

주름살처럼 얹혔던 잔 두렁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아, 이 땅을 비치는 태양은 은혜롭구나. 위대하구나. 수수천년 숙명처럼 두르고 있던 잔주름살들을 끈게 퍼서 《미남》으로 만들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고마움이어!

논두렁우에 시름없이 앉아 가없이 펼쳐진 논벌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내 가슴에 정답게 젖어 드는 물소리, 물소리...

그 물소리를 타고 나는 아득한 옛 시절의 추억의 세계속에 깊이 잠겨 든다.

...나의 고향은 아호비평밀의 심심벽촌이다.

그 땅에서 나서 자란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나의 분조장이었다.

하늘을 찌를듯 아아한 산봉우리들이 사방을 둘러막아 선 심심산골인 우리 농장에는 비탈밭들이 많았다. 소달구지도 오르기 힘든 경사 급한 산비탈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뽕기밭들...

해마다 봄이 오면 두엄을 밭에 내는것이 큰 걱정거리였다. 프락포르로 산밑에까지 날라다 놓은 두엄을 소달구지나 등짐으로 올려야 했다.

더는 못 올라 가겠다 거품을 물고 대가리를 내젓는 황소의 코뚜레를 당기고 지쳐 내달리는 달구지바퀴를 어깨로 떠밀고... 그러다 끝내는 등짐으로 두엄을 저울리지 않으면 안되곤 했다.

뜬 김이 오르는 두엄을 두어삼태기씩 짊어 지고 가파로운 언덕길을 한치한치 오르느라 목에선 겨불내가 나고 온몸은 땀으로 폭 젖곤 하였다.

그렇게 몇번을 거듭 오르내리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맥이 쭉 빠져 저녁에 밥숟갈을 들 힘마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코 버릴수는 없는 땅이었다. 그 하나 하나의 뽕기밭들마다에는 우리 부모들의 원한의 력사, 피눈물의 력사가 깃들어 있었다.

나라 없던 수난의 그 시절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애어린 손으로 뒤엎킨 잡관목을 찍어 내고 연약한 가슴으로 집채 같은 바위돌을 안아 굴리며 화전을 일구지 않으면 안되었던 나의 어머니, 그 척박한 한조박 뽕뽕기에서 나는 보잘것 없는 낱알마저 없었더라면 아마 열백번도 더 굶어 죽었을 불쌍한 화전민의 딸...

옛 시인이 서글프게 읊조렸듯 《호미와 가래에게 등심살을 벗기우고 감자와 기장에게 속기름을 다 빼앗긴》 빼만 남은 그 척박한 뽕조박에 명줄을 걸고 피땀으로 땅을 걸구고 눈물로 땅을 적시던 나의 부모들...

그 땅에 깃든 피눈물의 력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어머니였기에 그 땅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 땅을 가꾸는데서 조금도 《홍정》과 《양보》를 몰랐다. 힘들다고 하여 두엄을 《적당히》 저울린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해마다 봄철이면 누구보다 술선 지계를 지고 나서곤 했고 두엄을 지고 오르는 분조원들의 앞장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반삼태기는 더 짙어진 어머니가 서 있었다.

땅은 두엄으로가 아니라 땀으로 걸군다는것이 어머니가 버릇처럼 외우는 말이였다.

하지만 중학교를 갓 졸업한, 행복만을 알고 자라난 애어린 단발머리소녀였던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도 힘에 부치였다. 해마다 봄이 오면 나의 가슴 한 구석에는 시름겨운 근심이 떠돌곤 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두엄지계를 질가?... 하는.

한번은 두엄지계를 지고 오르다 지치고 지친 끝에 주저앉아 어머니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에- 이놈의 땅... 못 생겨 먹기두 했네. 어머니, 꼭 내버리고 말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옛날처럼 꼬박꼬박 등짐을 진단 말이에요?!...

혹- 난 이제 더 못하겠어요!》

두엄을 부리우고 내려 오던 어머니는 가파로운 비탈길옆에 퍼터버리고 앉아 울고 있는 나를 이윽도록 지켜 보더니 내 어깨우에서 지계를 벗겨제가 대신 지고 일어 섰다.

《네가 지친 모양이로구나. 힘들면 좀 쉬려무나. 하지만 이 땅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거라. 이 땅이 어떤 땅인데 그런 몸쓸 말을 함부

로 한단 말이냐. 아서라, 이 땅에 땀을 바치고 피를 바친 선렬들의 령혼이 노한다. 다시는 이 땅을 타하지 말어라.》

조용하나 준절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나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일어나 어머니의 어깨에서 지게를 벗겼다.

그때부터 중학시절 소설책이라면 정신없이 찾아 읽던, 아직은 문학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철부지문학소녀였던 나의 심장속에서는 붓을 들고 무엇인가 쓰고 싶은, 그러지 않고서는 못 견딜 충동이 날마다 시간마다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수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땅을 가꾸어 가는 고향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

묵묵히 말이 없는 땅, 그러나 너무도 곡진한 사연과 소원을 응심깊이 품고 있는 고향땅...

날마다 적어 가는 나의 일기는 그 땅에 깃든 절절한 사연으로 부피 두터워 갔고 밤을 패며 써내는 작품의 주인공은 그 땅처럼 말 없고 순박하고 솔직하며 성실하고 굳센 고향사람들-어머니의 모습이였다.

결국 그 땅이 나를 작가로 키운것이다...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고 아득한 저 멀리 지평선우에는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피여 올랐다. 그 노을빛이 어려 더욱 넓어 진듯 보이는 이 땅.

내 자욱자욱 옮겨 짙는 이 변혁의 땅우에도 또 얼마나 눈물겨운 수난의 력사, 소원의 력사가 굽이쳐 온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스며들어 있는것인가.

어린 시절 두엄지계를 지고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

나 이 땅이 확 넓어 졌으면 하고 공상해 보던 일이 떠오른다.

그것은 문학을 꿈 꾸던 애어린 소녀였던 나 하나만의 공상이 아닌 어머니와 고향사람들, 우리 농민들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꿈이었다.

수수천년 꿈속에서나 그러 보던 우리 농민들의 그 소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어디에 비길수 있으며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저 멀리 지평선우에서 붉게 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이 땅과 가슴 헤치고 속삭이노라니 내 고향땅이 노을속에 어려 오고 어머니가 환히 웃는 모습으로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는듯 싶다.

...우리 농장에도 불도젤들이 왔다.

이 산골도 벌방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불도젤들이 말이다.

이젠 우리의 소원이 풀리게 됐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러 보았다.

빼기밭, 비탈밭들이 모두 없어 지고 네모반듯한 규격포전들이 펼쳐 진 내 고향의 새 모습을, 그 전변된 땅에서 기계로 농사 지으며 흥겹게 일하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마음속으로 귀를 기울이고 분명히 듣는다. 내 고향의 모습이, 내 조국땅의 모습이 달라 지는 위대한 변혁의 우뢰소리를...

그것은 이 땅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우리 조국과 인민이 드리는 송가였다. 나는 그 노래를 내 심장속에 새겨 넣으며 오래도록 거닐고 또 거닐었다. 내 고향땅을 걷는 심정으로...

## 수령님과 《대통령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배같은 <대통령감>이 우리 부대에 굴러든것은 인복이 있는 나에게 차례진 큰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로 귀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와 우리를 도와준 셈이 되였다.

100여명에 달하는 <민생단>형의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사단이 편성되고 마안산아동단원들의 생활처지가 개선된 다음부터 나는 모든 힘을 조국광복회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에 집중시키였다.》

《리동백은 김산호와 함께 이 사업에서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성실하고 빈틈없는 방조자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그가 입대하자마자 곧 조국광복회창립준비위원회 성원으로 망라시켰다. 그 준비위원회 위원들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원은 김산호와 리동백이였는데 김산호는 대외조직과 연락사업을 맡았기때문에 주로 바깥에 나다니며 일을 보고 대내에서 준비사업을 주관하여 맡아본것은 리동백이였다.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작성하는데서도 그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어머님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부각상앞에서-

서봉제

세월은 검은 머리우에  
흰 서리를 덮으며  
이제는 반세기도 더 넘어 섰건만  
어머님은 유격대의 차림새  
그날의 변치 않은 옛 모습 그대로 오셨습니다

꺼져 가는 운명처럼 기울어 가던  
신사동의 이끼 덮인 동기와귀틀집  
한숨속에 눈물마저 말랐던 그 할머니도  
터갈린 작은 손에 크림을 발라 주시였던  
그 소년의 손목도 꼭 잡으시고  
어머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아쉽게 헤어졌던 마을사람들  
찾아서 다시 오신 이날에도  
못 잊을 그날처럼 그날처럼  
장군님 우러러 옆에 가까이 세워 주신것은  
회령집의 혈육들과 다름이 없으시여  
한집안 식솔처럼 다 모여 선것 아닙니까

하루낮도 아니고  
하루밤도 아니고  
격전의 싸움터로 달려 가시던 그 짧은 저녁  
마을녀인들이 정성 다해 올린 농마국수맛도  
별맛이라 그리도 달게 드시며  
밝은 웃음 지으시던 백두산의 너장군!

**김일성** 장군님 함께 모시였던  
상봉의 그 저녁 백날 천날로 이어 가고 싶었던만  
왜놈들을 쳐부시는 그 길로 바빠 가시며  
어머님 두고 가신 정 깊은 사랑

가사

과수분조처녀들 줄다리를 건느다가  
훈련에서 돌아 오는 병사들과 마주쳤네  
땀에 젖은 군인들이 나란히 비껴 서니  
흔들흔들 줄다리 좀 더 넓었으면

빨간 사과 가득 안고 돌아 오던 처녀들  
농장일손 돕고 오던 병사들과 또 만났네

약속으로 남기신 뜨거운 그 언약

오늘은 수수한 음식상을 장군님께 드렸지만  
이제 조국이 해방되면 꼭 찾아 와  
수령님 높이 모시고 해방잔치를 차리자 하시던  
그날의 그 말씀 가슴에 맺혀  
다시 오신 이 길, 다시 만난 기쁨은  
감격의 눈물로 솟는것 아닙니까  
그립던 정은 더욱더 깊어 지는것 아닙니까

걷고 걸으신 혁명의 가시덤불길우에  
쓰리고 가슴 저린 아픔 많이도 안으시여  
인정은 그러히도 깊으셨습니까  
사랑은 불처럼 뜨거우셨습니까  
강하시면서도 눈물이 흐르셨던것은  
아, 그것이 원쑤에 대한 증오로 화산마냥 타올라  
끝내야 찾아 오신 해방의 날이여

신사동의 그 밤 어머님 불러 주신 그 노래  
군복차림으로 온 마을을 품어 주시던 그 모습  
암흑을 사른 해빛이였고  
얼음장을 녹인 불이였고 열이였고  
이 나라 인민을 안아 주신 사랑의 품이었나니

아, 옛 전장 신사동으로 다시 오신 그 모습  
20대의 너장군을 저 하늘이 알고  
언 땅, 언 가슴들을 녹여 주신 그 사랑  
백두산발이 전설로 깊이 간직한 김정숙동지  
젊고 젊으시여도 조국의 어머님이시였습니다!  
그날에 벌써 천년 미래의 어머님이시였습니다!

## 줄다리

렴형미

사과 한알 들지 않고 뿌리치며 달려 가니  
흔들흔들 줄다리 좀 더 좁았으면

군민의 정 오고 가던 못 잊을 줄다리로  
장군님의 병사들이 명령 받고 떠나 가네  
잘 가시라 잘 있으라 작별의 손 흔드니  
흔들흔들 줄다리 좀 더 길었으면

## 눈보라는 후덥다

-한 처녀돌격대원의 일기-

박일명

평양역은 사람들로 붐빈다.  
환희와 걱정애 넘친 우리 돌격대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들!

우리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이 안겨 진다. 그러나 축하를 받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펼쳐 질것이며 어떤 운명의 우여곡절이 있겠는지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승리만을 새겨 갈것이다.

사람들이여, 우리를 믿어 달라! 그리고 부러워하라.

백두산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하여 떠나는 충성의 별무리들을...

주체89(2000)년 12월 X 일

### 《폭풍!》

휘익- 휘익-

눈보라가 지동치듯 울부짖는다.

온 하루 눈사람이 되어 막돌을 채취하느라고 몸이 자기 몸 같지 않게 얼었다. 하루일을 마치고 들어 와 온돌방에 앉으니 솔곳이 졸음이 온다. 나는 안간힘을 쓰며 졸음을 쫓느라고 모지름을 썼다. 오늘 하루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잠 잘 권리가 없다. 오늘 밤만은 야간작업을 그만 두었으면... 허나 칼날 같은 소대장 김석철이 《나를 따라 앞으로!》 할것은 볼 보듯 뻔하다.

우리들이 삼자연에 도착한지도 벌써 20여일이 되었다. 돌격대생활은 청춘시절에 한번 해볼만 한 일이다. 청춘시절은 랑만의 시절이고 희망의 시절이며 위훈의 시절이다. 하여 용약 탄원하였으나 워낙 몸이 약한 나에게 있어서는 견디기가 참 어렵다.

꽤 견디여 내겠는지 겹부터 앞서는것을 어쩔수가 없다. 더우기 소대장 김석철과 얼굴을 마주하기가 지겹다. 어쩌면 그가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함께 나오게 되었는지 일종의 운명의 희롱처럼 나에게겐 생각된다. 나의 생활의 앞길에 찬 눈보라만 일으켜 놓는 그런 사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가.

《이름은 김석철이라고 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체대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기관에 배치된 받았어. 결함은 뭐랄가, 그저 입이 무거운거라고 해야 할지. 그리고 보면 그것도 우점이지.

참새들처럼 재재거려서야 무슨 남자라고 하겠니.》

이것은 함께 일하는 언니가 몇달전에 한 청년을 나에게 소개해 주면서 한 말이다. 김석철, 그 이름은 이미전에 들었고 사람도 알고 있었다. 언젠가 금요일로동에 나갔을 때 옷옷을 벗어 던지고 걸싸게 일을 해제끼던 사람, 눈도 팔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쉴 때에도 쉬지 않고 곡괭이질을 하던 사람!

《새로 온 사람이래. 체대군인 대학졸업생, 아직까지 미혼이래. 대상자를 찾는다나.》

《어쩔 저렇게 일을 잘할가. 저런 남잔 아마 부업일도 잘해 줄거야.》

《마음에 드는가부지. 그럼 말을 떼봐.》

우리 처녀들은 동경과 찬탄의 말들을 주고 받으며 그에게 선망어린 눈길을 보냈다.

《저건 처녀들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는 객기야. 총각들이란 그런것을 자랑으로 여긴단다.》

한 처녀가 통을 놓았다. 그 말을 들었는지 청년은 허리를 펴며 우리들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정확히는 나에게 눈길을 박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 지며 그의 눈길을 피했다. 다시 그쪽으로 눈을 주니 그는 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다.

《정말 별난 사람 다 있구나.》

나는 기본이 언짢아 저 자리를 피했다.

그런데 뜻밖에 언니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린것이다.

《언니, 난 아직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든다는거지. 처녀들이란 남자들이 눈에 들지 않으면 다 그런 식으로 물리치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건 내가 강요할 일이 아니지. 하도 사람이 진국이 돼서 한번 너에게 말해 본거야. 달리 생각지 말아.》

그것으로 더 말은 없었다. 하지만 후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이 언니에게 나에게 대하여 호기심이 상으로 물었다는것, 그리고 내가 자기 마음에 든다는것을 은근히 표시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청년만 보면 왜 그런지 기본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한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그날은 학습날이었다. 좀 늦어 회의실에 들어 가니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한 뒤라 앉을 자리가 없었다.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가운데 한자리가 비어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조용히 들어 가 앉았다. 그런데 옆에 그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싱긋이 웃으며 《학습에 늦으면 되겠소.》라고 알은체 시카를렸다. 나는 쓴외 보듯 얼굴을 돌리고 책을 펼쳐 들었다. 그는 무안을 당한듯 몇번 마른 기침을 했다. 이런 불쾌한 인연은 그가 나를 좋게 불리만무였다.

며칠전의 일은 그것을 실증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막돌을 채취한다는건 소경 막대질하거요.》

사람들은 불평을 부리기 시작했다.

삼지연지구는 부사땅이다. 백두산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삼지연일대를 화산재로 덮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막돌채취는 탐사대원들의 쇠돌찾기만큼이나 힘에 겨웠다. 부사층을 벗겨 내고 생땅을 파헤쳐야 돌이 나오는데 그것도 돌이 있는 곳이 따로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때에는 하루종일 두더지처럼 땅만파다가 마는 때도 있었다. 무릎을 치는 눈을 쳐내고 정대와 함마로 퐁퐁 언 땅을 까내면 감자알 같은 돌들이 나온다. 어쩌다 머리통만 한 돌이 나오면 황재를 했다고 패재를 부른다. 그렇게 하루종일 막돌을 채취하고 나면 온몸이 물 먹은 솜처럼 땅속으로 잦아 든다. 몇번이고 소대장에게 제기를 했다. 다른 소대처럼 돌이 많은 리명수나 포대쪽에 내려 가자고. 그러나 김석철은 막무가내였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동차가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헐하고도 쉽게 할 생각은 안하고 알짜 힘내기를 하려 드니 의견들이 왜 없겠는가.

어느 날 나는 중앙지휘부 측량분과에 있는 4촌 오빠를 찾아 갔다. 탐사대출신인 오빠의 도움을 받아 막돌원천을 찾아 내려는것이였다.

오빠는 나를 데리고 삼지연에서 오래 살았다는 한 로인을 찾아 갔다. 로인의 말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옛날 삼지연지구에 강이 흘렀는데 장마철마다 산골물이 범람하여 감자밭을 다 쓸어가군 했다는것이였다. 사람들은 감자밭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로 강둑을 쌓았는데 그 돌이 오랜 세월 흠에 묻혀 있을것이라고 전설처럼 이야기하였다. 그것만 찾으면 그야말로 떡합지를 타고 앉는 격이 될것이였다. 나의 가슴은 너무도 벅차올라 금시 심장이 밖으로 튀어 나올것만 같았다.

오빠를 따라 로인이 이르던 그 옛날 강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거슬러 오르던 나는 우뚝 멈추어 섰다. 앞에서 눈사람이 되어 마주 오는 사람은 분명 김석철이였다. 그도 나를 알아 본 모양 한순간 멈추어 서더니 이윽하여 내려 오던 길을 되밟아 올라 가는것이였다. 나를 피하는것이 분명했다. 그날 나는 그 강둑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희망은 잃지 않았다. 래일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 땅을 헤쳐 보리라 마음 먹었다. 그러면서

소대장이 왜 거기에 나왔겠는가 하는 의문은 버릴수가 없었다.

저녁에 소대장은 총화뒤끝에 누구에게라없이 한마디했다.

《우린 수천리 떨어진 이곳에 산보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자 명심하기 바랍니다.》

분명 나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 올랐다. 사람들은 소대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마주 보며 머리만 기웃거렸다. 나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김석철에 대한 알곳은 감정이 가슴속에 잔파도를 일으켰다.

나는 구차한 변명으로 될것 같아 더 말하지 않았다. 어느 때든 소대장도 나를 이해할 때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든 말하지 않고서는 밤에 잠을 잘것 같지 못했다. 어머니가 늘 말하던 그 《못된》 성격이 또 머리를 쳐든것이다.

나는 림창섭아바이를 찾아 갔다. 남 모르게 나를 도와 주는 아바이였다.

《그런 일이 있었군. 하지만 소대장을 고깝게 생각진 말라구. 그래서 인간이지. 감정이 없다면 무슨 사람이겠나. 허허.》

아바이는 혼연하게 받아 들였다.

다음날 나는 일 끝난 뒤 몇명의 남동무들과 함께 오빠가 지평이로 공병들이 지뢰를 찾듯 눈을 꺾꺾 찍으며 정해 준 곳으로 나가 그 강둑을 찾았다. 오랜 세월 락엽이 쌓이고 흠에 묻히다 보니 한동안 신고해서야 찾아 냈다. 동무들은 큰일을 했다고 귀가 솔가울 정도로 나를 찬양했다.

하지만 김석철은 아침 작업지시뒤끝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할뿐이였다.

《은옥동무가 소대막돌채취계획을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았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정신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언짢았으나 속으로는 패재를 불렀다. 아마도 자기가 어제 총화시간에 서뽐리 말했다고 생각할것이였기때문이였다...

문소리가 났다. 부엌문이 열리면서 은숙이의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옥언니. 폭풍!》

글쎄 그렇겠지. 나는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다. 소대부에 가니 사람들이 다들 모여 있었다.

《동무들! 12월전투계획이 달라 졌습니다.》

소대장의 뜻밖의 말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장해 졌다. 그의 얼굴은 별로 엄숙해졌으며 근엄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오늘 소대는 통나무 100립방을 12월중으로 할데 대한 새로운 전투명령을 받았습니다. 날자는 이제 20여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준비된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이상 무조건 수행해야 합니다. 통나무생산전투장

은 국가에서 정해 준 여기서 30리 떨어진 곳이에요.》

나는 눈앞이 아찔해 졌다. 몸이 떨려 났다.

《통나무를 찍어 본 동무들이 있소?》

누구도 말이 없었다. 침묵뿐이었다.

석철은 더 긴말을 하지 않았다.

《하, 이 친구들이 왜들 심중해 졌나. 너무 겁을 먹지들 말게.》

최동무가 먼저 일어 서며 휘파람을 불었다.

주체89(2000)년 12월 X 일

### 두려워 하지 말라

눈!

눈보라! 어제 또 오늘도 눈보라는 계속 되었다.

대오는 붉은기를 앞세우고 전투장으로 떠났다.

조용하던 삼지연의 겨울은 벽적 뚫어 번졌다.

눈 덮인 숙소마다 붉은기들이 나뭇긴다. 돌격대원들이 끌고 다니는 발구에도 붉은기가 꽃혀 나뭇긴다. 삼지연은 그야말로 붉은기도시!

《야! 정말 볼만 하구나. 어때요. 무슨 생각이 안들어요?》 정확이 최동무에게 건넨는 말이였다.

《글쎄. 무슨 생각?》

《돌부처. 전 말이에요. 여기저기 나뭇기는 붉은기를 바라보니 마치나 유격근거지에 들어 온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린 유격근거지에 온 신입대원이구.》

《그렇지요. 이제야 마음이 통하는군요.》

《하하하.》

《유격근거지라. 거참 그럴듯 해.》

림아바이가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함뱌 담으며 긍정했다.

《그러니 우린 유격대작식대원이구만요.》

은숙이 두볼에 보조개를 파며 방실 웃는다.

《이렇게면 그렇지.》

정확이 은숙이의 코등을 톡 다치며 말했다.

《에이, 고 손목 잡지도 가만 못 있지.》

은숙이 흠칫 놀라 비켜 서며 눈을 흘긴다.

《언니 욕 좀 하라요. 무슨 남자가 잡지도 가만 못 있을가. 훌라닥거리면서...》

은숙이 나의 한쪽팔에 매달리며 하는 말이였으나 나는 그저 히죽이 웃어 보였다. 은숙이는 소대의 막내가였다. 동무들은 그를 《애기곰》이라고 부른다. 키에 비해 몸이 통통하고 얼굴은 동실하다. 걸음새도 곰처럼 뜨직뜨직하다. 일을 할 때면 몸을 아끼지 않는다. 곰처럼 힘도 세다. 웬만한 돌은 남자들 못지않게 닳끔 들어 어깨에 메고 나른다. 정확이도 은숙이와 석달차이로 그 역시 소대의 막내이다. 둘은 동창생들이라고 곧잘 룡질을 주고 받는다.

대오는 수림속으로 들어 섰다. 길 좌우로는 이팝나무, 전나무, 종비나무들이 하늘높이 쪽쪽 뻗어 있다.

눈은 쉬임없이 내리고 있다. 12월계획이 달라진것은 눈때문이었다. 12월 한달동안 내리는 눈이 쌓이고 쌓이면 허리를 친다고 한다. 그러면 나무하기가 곤란해 진다. 눈이 적당히 깔린 12월이 통나무생산적기라고 한다.

길은 끝이 있을상 싶지 않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것이 길인가 싶다. 가면 갈수록 수림은 더 울울창창하여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키 어려웠다.

《가만.》

정확의 갑작스러운 소리에 대오가 멈추어 섰다.

《저기를 좀 봐요. 산중턱엘 말이에요.》

모두의 눈길들이 그가 가리키는쪽으로 쏠렸다.

《백포를 쓴 유격대원들이 매복하고 있는것 같지 않아요.》

잠잠히 걸자니 또 심심한 모양이었다.

《그럼, 우린 왜놈 <토벌대>란 말이야? 아이쿠.》

《하하하.》 《호호호》

사람들은 눈물이 찼금 나오도록 한바탕 웃었다.

그 소리엔 나도 웃었다. 정말로 산중턱에 빨찌산들이 매복하고 있는것만 같았다. 금시 돌격나팔 소리가 울리고 산아래로 쏟아져 내려 울것만 같았다. 그런 생각은 통나무전투장에 도착할 때까지 없어 지지 않았다. 참 이상했다. 빨찌산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백두산지구라는 생각이 항시적으로 체현되어 있는 까닭인것 같았다.

김석철은 웃지도 않고 묵묵히 걷고만 있다. 자기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그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뜨겁지 못할가. 너무도 랭정하다. 《돌격》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도 오늘은 펍 여유작작하다. 다그어 대지도 않는다. 여드레팔십리라고 산천구경을 하며 느릿느릿 걷다 보니 채벌장까지 꼭 2시간 30분이 걸렸다.

채벌장에는 돌격대원들로 붐비였다. 털모자를 꼭꼭 눌러 쓰고 허리에 바까지 질끈 동여 맨것이 제법 벌목공들 같아 보였다. 벌써 작업에 붙은 소대도 있는지 산중턱에서 와지끈 나무 넘어지는 소리도 났다. 귀맛 좋게 기계톱소리까지 들린다. (우리도 기계톱으로 나무를 하면 얼마나 쉬울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였다.

림지를 받으러 갔던 김석철이 왔다.

《자, 오늘부터 우린 통나무생산전투를 하게 되오. 누구도 통나무를 해본 사람은 없소. 우리 함께 배우면서 합시다. 주의할 점은 털모자를 꼭꼭

매지 말것. 항상 나무 넘어 지는 소리를 들어야 하오. 나무가 넘어 질 때에는 평리한채 하지 말고 멀리 피할것. 그렇지 않으면 여우 도리깨에 맞듯이 나무가지에 맞을수 있소. 로동안전원동무는 역할을 높여야겠소.》

우리는 산으로 올라 갔다.

썩! 밀림이 설레었다. 나무가지들에 소담히 쌓여 있던 눈들이 쏟아져 내렸다. 순간에 목덜미로 눈이 들어 가 녹아 내려 등골이 싸늘해 졌다. 그러나 몸은 핫핫 달아 올랐다. 몸이 달아 오르니 숨쉬기가 힘들었다. 숨을 들이 쉴 때마다 찬 기운이 코를 찌른다.

아름드리나무앞에 우리들은 멈추어 섰다.

휘유-휘유- 긴숨을 내뿜으며 오르던 동무들이 모자를 벗어 들었다. 김이 문문 피여 오르던 머리우에 하얀 서리꽃이 피었다. 잠간사이에 너도나도 백발로인이 된듯 싶었다. 사람들은 서로 그 모양을 마주 보며 웃었다.

《여기가 우리의 전투장이요. 자, 작업시작!》

석철이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옆에서 다섯자가 넘을 장대기 두대를 준비했다. 우리들은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도 몰랐다. 석철이가 아버지와 대뜸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베넘겨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먼저 나무를 어느쪽으로 넘기면 좋겠는지 방향부터 잡는다. 그리고 톱질을 한다. 톱이 나무밑둥을 거의다 먹어 들어 가면 나무에 장대기를 대고 넘기려는 방향으로 힘껏 민다. 자칫잘못하면 나무밑둥이 돌면서 사람을 칠수 있기때문에 긴장해야 한다고 했다. 드디어 톱질이 시작 되었다.

사르릉! 사르릉!

톱질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모두들 빙 둘러 서서 톱질하는것을 지켜 보았다. 얼마후 나무밑둥에서 《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힘껏 밀라.》 하는 웨침소리가 울렸다.

갑자기 나무우듬지에서 눈이 쏟아져 내려 온몸을 들썩웠다. 나는 목덜미로 눈이 들어 가 등골이 선뜩 하자 자기도 모르게 잡고 있던 장대기를 놓고 눈을 털었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동무들도 그 순간에 주춤했다. 그 사이에 나무는 뒤쪽으로 기울어 졌다.

《어마나!》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장대기를 다시 잡았다. 만약 반대방향으로 넘어 지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 질지 몰랐다.

《나무가 반대방향으로 넘어 진다. 힘을 쓰라.》

김석철이 이렇게 웨치며 비호같이 달려 와 장대기를 잡고 《공》 하고 힘을 썼다. 나무가 다시 본래 자리에 돌아 오자 재차 웨쳤다.

《하나, 둘, 영차-》

모두가 힘을 합치자 나무는 본래 정한 방향으

로 기울어 지기 시작하였다. 잠시후에 나무는 옆의 나무가지들을 치면서 넘어 졌다.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 앉았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마에는 땀이 흥건히 내뿜었다. 김석철의 도끼눈이 나에게 쏘였다.

《장대기를 놓으면 어찌자는거요. 죽자고 그래. 헛참.》

나는 얼굴이 활짝 붉어 졌다. 나는 온몸지 않은 눈길로 김석철을 쏘아 보았다. 하필이면 너자인 나에게 왜 큰소리를 치는가.

《허허. 처음이니 그럴수 있지. 그래 어떤가. 해낼만 한가?... 겁들을 먹지 말라구. 무슨 일이나 첫 술에 배 부를리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긴장한 공기를 가져 주었다.

온종일 나에게서는 김석철이 한 말이 가슴에 체병처럼 달려 내려 가지 않았다. 괴롭기 그지없었다.

《언니. 왜 그렇게 침울해 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숙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일은 무슨 일.》

《그런데 언니 언제 봐야 웃음이 없구 흐린날이야. 마음속에 무엇인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것 같애. 거 뭐랄가. 누구에 대한 사모의 감정이 배반을 당한듯 한...》

《뭐?... 넌 정말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소대장동지와 싸웠어요?... 난 다 알아. 언니 지금 소대장동지와 사랑싸움을 하는거야. 호호호.》

《뭐 사랑싸움? 내가 그 <망두석> 같은 사람과? 정말 넌 알지 못하면 가만이나 있어. 붙는 불에 키질이나 하지 말구.》

은숙은 심중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멈추어 섰다.

《언니 너무하군요. 그건 소대장동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뭐? 네가 어떻게 소대장을?...》

《언니도 이제 알게 될거예요. 소대장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라요?...》

꽤 오래전의 일이라요.

중학교를 졸업한 소대장동지는 몸이 약해서 군대에 나가지 못하고 농촌지원대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거름나르기경기가 조직되었는데 남녀가 한조가 되어 한달동안 거름을 어느 조가 더 많이 밭에 내는가 하는데 따라 등수를 평가하게 되었다나요. 다른 조들은 서로 웃고 떠들면서 기세충천하여 일하는데 소대장과 한조가 된 처녀는 진종일 가야 말 몇 마디뿐 우스개소리 한마디없이 거름만 수걱수걱 저 나르는 소대장과 일하기가 따분하고 힘이 들어 병치료를 간다고 하면서 집으로 도망을 쳤대요. 그러니 경기는 진것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열흘간 집에 있다가 와서 경쟁도표앞에 선 처녀는 두눈이 덩둘해 졌대요. 글썽 경쟁도표의 빨간 줄이 다른 조보다 앞섰다는거예요. 발으로 나가보니 꼭 같은 두무지의 거름더미가 있었다는거예요. 알고 보니 소대장동지는 매일 처녀의 뒤통까지 꼭꼭 하느라고 낮이나 밤이나 쉬임없이 지계를 지고 거름을 날랐대요. 처녀는 너무도 감동되어 그날부터 함께 뛰었대요. 소대장동지는 말없이 처녀를 도와 주어 거름더미는 쌍둥이처럼 똑같이 쌓아 졌대요. 드디어 소대장동지의 조가 1등을 했대요. 그런데 소대장동지는 처녀에게 고맙다고 했대요. 처녀는 일은 누가 하고 인사는 누가 받는가고 어쩔바를 몰라 하니 소대장동지는 동무때문에 내가 몸이 더 단련됐으니 인민군대에 나가게 되었다고 진심으로 기뻐했대요. 지금도 그 처녀는 아이어머니가 되었지만 불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소대장동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그가 누군데?…》

《우리 언니예요.》

《언니?…》

은숙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석철의 나에 대한 은근지 않은 태도는 분명 지난날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이 아닌가.

저녁총화시간이었다.

나는 한쪽구석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다. 이제 김석철의 소낙비 같은 폭설을 어떻게 이겨 낼 것인가 하는 위구심을 안고, 그런데 김석철은 산에서 있었던 일은 일언반구 없었다. 제기할 것이 있으면 제기 하라는 말에 나는 머리를 들었다. 기계톱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쿵쿵 방아를 찼었다. 가르릉 가르릉 하던 기계톱소리가 귀전에서 땀돌이쳤다. 나는 옆에 앉아 있는 최동무를 톡 쳤다.

《우리도 기계톱으로 나무를 하자고 제기해요.》

최동무는 나의 의견에 동감인듯 한눈을 찌뵈해보이더니 말했다.

《우리도 기계톱으로 나무를 합시다.》

《기계톱?… 그러면 쉬운줄은 아오. 하지만 애초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겠소.》

김석철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작업총화가 끝났다. 최동무는 의견을 제기했다가 코만 뚫었다고 입을 삐죽뚫었다.

《은옥동무, 무슨 구명수가 있소?》

《글세요.》

《우리 누나가 나서면 못 해결해 오는것이 있을라구요. 그렇지요, 누나.》

정확이 코를 벌름거리며 나를 비행기 태웠다.

《누나, 강뚝을 찾듯이 이번에 또한번 사람들을 놀래워 보라요. 아 기계톱으로 기관총 같기듯 푸루룩 하면 좀 좋아요. 소대장동지도 기계톱을

얻을수 없으니 그러는거지요 뭐.》

밤새 나는 기계톱을 해결해 올 공리를 했다. 소대장을 또한번 놀래우자는 반발심이 그 순간에 또 자라났다.

주체89(2000)년 12월 X 일

### 기쁨은 모든것을 이긴다

기계톱을 3일간 쓰기로 약속이 되었다. 4촌오빠가 삼지연군돌격대 소대장을 잘 알고 있었다. 아침 9시까지 우리 작업장에 삼지연군돌격대소대장이 직접 오겠다고 했다. 뭐니뭐니해도 혈육의 정이란 뜨겁고 열렬하며 무슨 일에서나 적극적인 라는 새삼스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사람들은 기계톱을 해결해 놓았다는 소식을 듣자 벽적 뚫었다. 《병사위원회》에서 나를 부중대장으로 추천한다고 하면서 세계 력대 녀성정치가들의 이름까지 꺼들면서 동에 닿지 않는 말들로 나를 한동안 울려 추었다. 그들이 너무도 요란하게 떠드는 바람에 나는 무안스러워 어쩔바를 몰라 했다.

점심식사준비로 대오와 떨어 저 좀 뒤 늦게 발구를 끌고 전투장으로 올라 가니 사람들은 여전히 맞뚝으로 나무를 베고 있었다.

《아니 기계톱이 오지 않았어요?》

나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어 꺼져 들어가는 소리로 최동무에게 물었다.

《그렇게 됐어요.》

정확이 시무룩한 어조로 말했다.

《안됐군요. 미안해요.》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다. 큰소리를 쳐놓았는데 기계톱이 오지 않았으니 이런 창피를 어떻게 이겨 내랴.

(이게 무슨 망신이란.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난 어찌라는거야.)

온몸의 기력이 한순간에 쑥 빠져 나갔다.

《은옥동무. 나 좀 보지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김석철이 나를 만나자는것이였다. 보나마나 기계톱소리가 나울건 뻔한 일이였다. 나는 기가 꺾이여 김 석철이 끄는대로 따라 갔다.

《내 은옥동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동무는 확실히 원가 잘못 생각하고 있소. 기계톱은 내가 돌려 보냈소.》

《뭐라구요?…》

순간에 나는 눈앞이 아찔해 졌다. 현훈증이 오면서 머리가 핑 돌았다. 다음 순간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 졌다. 나는 두눈을 똑바로 뜨고 김석철을 쏘아 보았다.

《왜 돌려 보냈어요. 동무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가요? 소대장의 위신이 떨어

질것 같아서요?...》

나는 태연해 지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그 순간에는 자기를 잊고 말았다.

《아무렇게 말을 해도 좋소. 그러나 동무는 하나는 생각했지만 둘은 생각 못했던 말이요. 우리가 기계톱을 쓰면 삼지연동무들은 밭톱으로 나무를 해야 하지 않겠소. 그게 어디 체면이 됐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말이요. 더우기 오늘은 우리가 기계톱으로 쉽게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래일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소. 사람들에게 기계톱에 대한 미련을 주게 되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된단 말이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으로 우리앞에 맡겨진 통나무계획을 수행해야 하오. 그런데 동무는 기계톱을 끌어 들임으로써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소.》

《뭐라구요? 동무는 그것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하는건가요. 난 그래도 동무들을 생각해서... 그 래 동무의 그 매정한 채찍에 사람들이 건디여 낼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요. 동무와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책 돌아 서서 산아래로 줄달음쳤다. 설음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사람들이 없는 수림속으로 들어 가 한동안 실컷 울었다. 그러고나니 어지간히 마음이 녹았혀 졌다. 나는 점심식사준비를 하고 있는 은숙이에게로 갔다.

《아이, 언니 어데 갔었어요. 한참 찾았어요. 혹시 어떤 남자에게 홀리워 숲속으로 들어 가지 않았나하구. 호호호.》

은숙이 동실한 눈을 썰쭉거리며 깔깔 웃었다.

《오, 어데 줌.》

나는 얼버무리며 은숙이의 일손을 도왔다.

《언니, 나 산에 올라 갔다 오겠어요. 감자완자를 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 내가 여기에 있지.》

은숙이 방긋이 웃어 보이고나서 애기곰처럼 통통한 몸을 움지락거리며 산으로 올라 갔다.

나와 은숙이 어제밤을 밝히면서 만든 감자완자다.

동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식생활을 다양하게 해 줄것인가를 여러모로 생각해 온 우리였다. 동무들이 배가 고파 하면 나와 은숙이는 굶으면서도 남동무들에게 밥을 덜어 주곤 하였다. 동무들이 배가 고파 얼굴을 찡그리는것을 보는것이상 피로운것이 없었다.

그래서 어제밤 특식으로 감자완자며 감자로 김치깍두기까지 창안하여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 기계톱으로 나무를 하면 좀 덜 힘들것이고 거기에 식사준비까지 어느 때와는 좀 별식을 했으니 기뻐 할 동무들을 그리며...

그러나 나의 즐거운 생각은 풍지박산되고 말았

다.

《앗, 따거워.》

불무지결에 무릎을 꺾어 앉아 생각에 움혀 있던 나는 발바닥이 뜨거워 오는 바람에 놀라 일어 서서 쿵쿵 뛰었다.

발목을 눈속에 넣고 한참 비벼서야 뜨거운 감이 없어 졌다. 숨신이 불에 탔다. 바닥고무도 한 쪽이 몽청 떨어 져 나갔다.

《에이, 이를 어쩔담.》

얼친데 덜친다고 신발까지 태우고나니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언니- 동무들이 내려 와요.》

은숙이가 늑쟁개비를 썰과리처럼 마주 치며 구울듯이 뛰여 내려 왔다.

《아이, 언니 왜 그래요. 얼굴이 빨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언니, 고무 탄내가 나요. 신발을 태우지 않았어요?》

은숙이 코를 벌름거리며 나의 주위를 맴돌았다.

《오, 신발을 좀 태웠다.》

《아니, 어찌다가...》

《글쎄 내가 깜박 잠이 들었었구나.》

《야, 어제밤 꼬박 밝히더니. 언니, 가만 앉아 있으라요. 내가 차릴테니.》

《어허, 은옥동무-》

사람들이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는지 나를 찾으며 뛰여 내려 왔다.

《은옥동무. 정말 잘 먹었소.》

《누나 솜씨가 괜찮은데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언제 감자완자하는 법을 다 배웠어요.》

그제서야 나는 은숙이가 동무들에게 감자완자를 내가 밤을 꼬박 밝히며 만든것이라고 알려 주었다는것을 알았다. 함께 하고서도 그 수고를 나에게 다준 은숙이었다. 나는 가슴이 몽클해 졌다. 이럴 때면 꼭 언니같이 생각이 깊은 은숙이었다.

《감자완자뿐인줄 알아요. 자, 이번에는 감자로 만든 김치깍두기예요.》

《뭐? 김치깍두기!...》

《이건 삼지연사람들도 잘 모르는 은옥언니의 창안품이에요.》

《야! 정말 은옥동문 못하는것이 없구만. 새콤달콤한 감자로 만든 김치깍두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령. 은옥동무에게 공훈료리사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언제나 돌격대원들의 식생활에 마음 써오던 동무는 고심어린 탐구끝에 감자로 김치깍두기를 새롭게 창안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동무의 자랑찬 성과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은옥동무에게 공훈료리사칭호와 함께 로력훈

장을 수여한다. 그리고 감자로 만든 김치각두기에 금상을 준다.》

최동무의 희떠운 소리에 박수소리와 함께 환성 소리가 터져 올랐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요란한 속에 정확의 각두기노래가락이 울려 나왔다.

나는 활기로운 이들의 모습에서 나의 기쁨을 맛보았다. 흐리터분하던 머릿도 맑아 졌으며 마음속 온갖 시름도 깨끗이 가서 졌다. 이들속에만 있다면 그 어떤 아픔도 괴로움도 모두 이겨 낼 것이다.

주제89(2000)년 12월 X 일

### 쓰러져서는 안된다

나는 새벽에 일어 났다. 아침에 신을 신발격정에 깊은 잠을 들지 못했다.

발이 날개라고 했는데 숨신이 불에 탔으니 나에게서 날개가 부러진셈이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침에 당장 무엇을 신고 산으로 간단 말인가?)

나는 배낭도 뒤져 보았다. 그것은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헛손질에 불과했다. 할수없이 나는 불에 탄 숨신을 들고 살펴도 보았다. 천을 대고 기워서라도 신을 판이었다. 은숙이가 나의 걱정을 알고 눈을 비비며 일어 나더니 로동화 한켠레를 꺼내놓았다. 다행스러웠다. 양말을 더 꺼내고 발싸개까지 하면 운동화보다는 펍 나을것이었다.

은숙이가 고마웠다. 어려운 대목대목 나를 위해 준다. 나이는 어리지만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모르겠다.

이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예요?》

내가 일어 나기 바쁘게 문이 열리었다.

《오, 나야.》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 이걸 받으라구.》

《아니?...》

나는 두눈이 쾅해 졌다. 아버지의 손에 숨신이 들려 저 있지 않는가.

《숨신이 불에 탔다지. 맨발로야 어떻게 산에 오르겠나.》

《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에 눈물이 불쑥 솟구쳤다. 아-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어느새 불에 탄 숨신을 보고 이렇게 원심을 쓴것이었다. 세심하기 이를데 없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고마워요!》

나는 뜨거움에 젖어 숨신을 받아 들었다.

숨신은 신통히도 나에게 꼭 맞았다. 포근하고 부드러웠다. 아버지의 아버지 같은 사랑에 무었으로 보답할까? 덕은 덕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하루가 다르고 이들이 달랐다. 그렇게 두렵던 통나무생산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제법 자기 궤도에 올랐다고 할까. 나무 넘어지는 방향도 제격 포착하고 처음처럼 힘내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나무를 베어 넘겼다. 처음에는 작은 나무만 베어 넘기고 가는 나무만 골라 끝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름드리나무만 골라 베어 넘겼고 굵은 나무만 끝졌다고 싱갱이 질을 하였다.

《소대장동지, 오늘은 이 이깔나무를 먹읍시다. 미끈한게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정확이 아름드리나무밑을 맴돌며 희뽀게 말했다.

《허, 정확이가 제법인걸. 그러나 아직은 안돼.》

김석철 역시 나무주위를 맴돌며 아래우를 더듬다가 신심이 없는지 말했다.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마냥 미끈하게 뻗어 오른 이깔나무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다. 첫날 본 그 나무였다. 그러나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지나쳤던 우리들이었다.

《소대장동지. 한대가 한차는 될것 같아요.》

나도 가늠해 보니 그렇게 될것 같았다.

나도 이제는 벌목공이 다 된듯 싶었다. 대톱질도 남동무들 못지 않게 잘한다. 통나무도 벌써 여러날 끌어 내렸다. 모든 작업이 손에 익었다. 나무가 넘어 진다고 하여 겁먹고 달아 나지도 않았으며 웬만한 나무는 장대기로 밀지 않고도 베어 넘기는 묘리도 터득하였다. 그러나 하루생산량이 많아 지니 힘은 곱절들었다. 게다가 소대장의 요구성은 점점 더 나사못 조이듯 했다.

통나무를 끌고 내려 가던 아버지가 쓰러졌다. 오늘은 나와 한조가 되어 아버지가 나를 위하느라고 힘을 너무 많이 쓴 때문이었다. 나는 《보조로력》이고 아버지는 《기본로력》인셈이었다. 아버지 보기가 미안했다. 힘이 약한것이 한스러웠다. 같은 사람인데 너자들은 왜 남자들보다 힘이 약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나는 어떻게 하나 《기본로력》이 되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곤 했다. 얼굴에는 콩알 같은 땀이 샘 솟듯 했다. 한번 통나무를 끌고 토장까지 내려 가면 속내의는 땀에 폭 젖는다. 통나무에 앉아 잠깐 쉬고 또 산으로 오르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아버지 일 없어요?》

《일 없소. 그만 미끄러 저 넘어졌는가 보군.》

아버지는 혼연하게 웃어 보였으나 얼굴은 해쓷해 졌다.

《좀 쉬고 내려 가자요.》

나는 통나무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한가지 물으랴요?》

《뭔데?...》

《아바인 왜 여기로 탄원했나요. 이젠 나이도 들었는데.》

아바이는 이제 두해만 있으면 록십이 된다. 이런 육체적으로동에는 이제 한물이 아니라 몇물이 졌다. 그런데도 아바이는 자원해 나왔다고 한다. 어떤 목적에서일가?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물어 보려고 하던 말이었다. 사람은 목적을 향해 생활을 지향시킨다.

《그러니 꼭 짚어 말하면 여기로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거겠지?》

《글쎄요..》

《허허. 그건 내가 은옥이에게 물어 보려던 말이었는데 선손을 떼웠군.》

《호호호. 그래요? 글쎄 뭐라고 할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거예요.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전 너무 고이 자랐어요. 평양-남포고속도로 건설장에 달려 나간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모습을 텔레비존으로 본 다음부터는 저도 한번 돌격대에 나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그것뿐이에요.》

《허허. 그렇다. 내 생각에는 은옥이가 결심을 잘 한것 같애. 청춘시절에 한번 해볼만 한 일이지. 그래야 먼 후날 후대들에게 몇몇하질 않겠나. 나의 청춘시절은 이렇게 흘러 갔다라고 말이야. 나도 그래서 나왔다고 할가. 이렇게 인생말년에 내 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 땅을 위해 난 너무도 한 일이 없구나 하는 후회를 안고 말이야. 이를테면 생의 자옥을 남기기 위해서랄가.》

아바이는 숙연한 감정에 잠겨 멀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 졌다.

잠시후 아바이는 나에게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내 한가지 물으라나?... 은옥인 소대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네?...》

갑작스러운 물음에 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 올랐다. 그 물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몰랐으나 아바이의 너부죽한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는 처녀들의 마음을 산란케 하는 그런 의미의 물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바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가?... ) 김석철의 사람됨을 이미 《망두석》이라는 응축된 한마디의 말로 뱉어 버린 나였다. 그것은 돌격대생활의 나날 더욱 굳어 졌고 웅어리졌다.

《허. 은옥이는 뭔가 오해하고 있어. 소대장은 참 좋은 사람이야. 생각이 깊구, 인정도 뜨겁구. 이제 지내 보면 다 알게 되겠지.》

아바이는 표표해 지는 나의 얼굴에서 내 마음을 읽은듯 말했다.

《인정이 있다구요?...》

나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 났다. 김석철에 대한 말만 나오면 기분이 나빴다.

오후에 들어 서면서 푸실푸실 날리던 눈꽃은

함박눈이 되어 펄펄 쏟아 졌다. 잠간사이에 통나무를 끌어 내리는 길은 발목이 잠길 정도로 눈이 덮였다. 통나무끌기가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오후에는 은숙이와 함께 나무를 끌었다. 녀자들끼리 끝냈다고 은숙이 우격다짐해서 한조가 되었다. 남동무들은 우리를 생각해서 가는 나무를 끌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도 나에겐 힘에 부쳤다. 더구나 점심밥을 정학에게 주고 났더니 허기까지 졌다.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그만 눈우에 쓰러졌다. 눈앞이 아물아물하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언니, 언니야, 왜 그래요?...》

은숙이가 나의 몸을 마구 흔들어서야 나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은숙이가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참느라고 두눈을 습벽이며 나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뒤에서 통나무를 끌고 내려 오던 김석철이 다가왔다.

《소대장동지, 은옥언니가 쓰러졌어요.》

《뭐요?...》

김석철의 목소리에 나는 안간힘을 쓰며 일어나 앉았다. 그 순간에도 나는 그에게 나의 몰골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태연해 지려고 모지름을 썼다.

《어떻게 된 일이요?》

김석철이 재차 물었다.

《언닌 아침도, 점심도 굶었어요.》

《뭐라구? 왜 굶었소. 왜 밥을 먹지 않았소?》

《정학동무가 배가 고파 한다고 자기 밥을...》

《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소. 누가... 동문 정말... 그게 동무들을 위한 일인줄 아오? 자기는 쓰러지면서... 그건 자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냐 갈단 말이요.》

김석철은 무엇이 그리 격분한지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웨쳤다.

《뭐라구요?... 동문 너무 혹독하군요. 아-》

나는 얼굴을 싸쥐었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나는 다시 쓰러졌다.

주체89(2000)년 12월 X 일

### 고난은 행복을 창조한다

몇시나 되었을까?

눈을 뜨니 방안은 조용했다. 벌써 9시가 넘었다. 어제밤에 쓰러져서는 정신없이 끌어 떨어 진 것이다. 산발을 타며 몸을 혹사하다 보니 가뜩이나 약한 몸이 견디 내리 만무했다.

머리맡에 아침식사가 쟁반우에 놓여 있었다.

은숙이의 편지도 있었다. 나는 편지를 들었다.

《언니, 오늘 아침엔 이동작업준비로 늦어 통나무생산전투장으로 갑니다. 언니를 깨우려다가 소



대장동지가 깨우지 말라고 하여 그냥 갑니다. 어제 일을 너무 고깝게 생각지 마세요. 소대장동지는 언니를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언니를 며칠 쉬게 하라고 소대장이 지시를 했어요. 오늘부터 우린 닷새동안 밀집숙에 천막을 치고 항일유격대식생활을 해요. 30여리길을 오가는 시간에 통나무를 한대라도 더 베자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 며칠 꼭 쉬세요.》

나는 편지를 맥없이 방바닥에 놓았다. 병 주고 약 준다고 김석철의 호의가 달갑지 않았다. 육체적피로보다도 정신적압박감이 나를 더 괴롭혔다.

(내가 이대로 꽤 견디어 낼수 있을까? 더우기 그 소대장밑에서…)

나는 몸이 오싹해 졌다. 전번에 오빠가 중앙지휘부 후방부 계산원으로 가라고 할 때 갔어야 했다는 막심한 후회가 들었다.

뜻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예요?》

나는 손더듬으로 머리를 대충 다듬고 기척을 냈다. 오빠였다. 범이 제소리 하면 온다더니 오빠가 측량기를 메고 성큼 들어 섰다.

《오빠가 어떻게?》

《오, 측량작업을 나갔됐다. 아까 측량을 하다가 은숙이를 만났됐다. 소대장도. 네가 앓는다더구나. 그래서 왔지. 그런데 어데가 아파서?…》

《그저 좀 피곤이 몰리다 보니… 그런데 무슨 측량을 해요?》

《오, 살림집들이 들어 앓을 자리지. 새해 정초부터는 본격적인 건설전투가 시작될게다. 우린 척후병들이지.》

《오빠네가 수고하는군요.》

《수곤 무슨… 너 몸이 더 약해 진것 같구나. 불이 다 꺼지고 입술은 조갈이 들고… 그러지 않아도 한번 온다 온다 하면서도 일에 몰리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누나. 너 기분이 좋지 않았구나. 무슨 근심덩이를 안고 있는 사람처럼…》

《그저 몸이 약하다 보니…》

《글쎄 그 몸으로 네가 북방의 추위를 꽤 견디어 내겠는지 걱정이다. 새해부터는 령하 40도까지 내려 간다는데. 너 이제라도 전번에 말이 났던 후방부로 가지 않겠니? 아직 사람을 선발 못했더라. 그것도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던데. 회계학교를 나온 너 같은 책임자가 어데 있겠니. 전직이 또 회계원이 아니냐.》

《그래요?… 이제라도 일 없을가요.》

《일 없지 않구. 너만 찬성하면 당장 옮기자.》

나는 더 말을 하지 못했다. 정작 떠나자니 마음이 무거웠다.

《왜 결심이 안 켜니?》

《정작 떠나자니 여러모로… 동무들 보기에

도…》

《별 생각을, 일 없다. 그러지 않아도 아까 소대장과 네 문제를 놓고 토의가 있었다. 사람이 참 관찮더구나. 너에 대해서 얼마나 극진한지. 네가 소대사람들의 사랑속에 있다더구나. 소대일에 술선 나서구, 대중을 위해서 헌신한다면서… 정말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다 기쁘더라. 대중의 신망속에 산다는게 쉬운줄 아니?》

나는 놀라운 눈길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소대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믿어 지지 않니? 그러면서 네가 약한계결함이라구 하더라. 일은 점점 더 힘이 들고 날은 점점 더 차지는데 네가 꽤 견디어 내겠는지 걱정이라면서 소대를 위해서는 너를 내놓기 아쉽지만 너를 위해서 본인의 결심대로 하자고 하더라. 그러니 문제는 네게 달렸다.》

(나를 위해서?… 그게 진심일까?…)

하지만 나에겐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 지지 않았다. 분명 그는 그런 식으로 나를 다른데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시시한가. 앞에서는 분을 발라 주고 뒤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두말할것없이 그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피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없는것이 더 마음 편하다는 생각으로 오빠에게 사랑발림식으로 말한것이다. 속이 뻘히 들여다 보이는것이 알뜰기 그지 없었다.

(내가 떠난다구?… 하지만 그렇게는 못 가.)

김석철에 대한 반발심이 굴뚝처럼 솟구쳐 올랐다. 어떻게 했으면 종단 말인가? 홀 떠나자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고 그냥 있자니 김석철과 함께 있을수도 없었다. 마음이 번거로웠다.

이왕 이렇게 된바에는 떠나자.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대장의 눈밖에 나서 밀려 나는것이 아니다. 나는 상급의 조치로 소환되어 가는것이다. 나에게 알맞는 초소로…

《오빠, 가겠어요. 그러나 당장은…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몸도 아프고…》

《좋다. 그렇게 하자. 내 후방분과장에게 말을 하겠다. 네가 온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게다.》

오빠가 나가자 나는 왜 그런지 쓸쓸해 졌다. 외로와 졌으며 고독해 졌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기분을 돌려 세워 보려고 애를 썼으나 대렬에서 떨어 저 나가는듯 한 서운한 감정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나는 온 하루 육체적아픔보다도 정신적시달림속에서 헤매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나는 고함을 지르며 깨어 났다. 꿈을 꾸것이었다. 상기고 싶지도 않는 무서운 꿈이었다.

…눈보라치는 허허벌판을 나는 홀로 걷고 있었다. 눈은 무릎까지 졌다. 무겁게 발을 옮겨 놓으

며 나는 겁 먹은 눈길로 자주 뒤를 돌아 본다. 승냥이가 뒤에서 네굽을 안고 달려 오고 있었다.

《승냥이다. 승냥이다.》

나는 소리치며 달아 났다. 승냥이는 입을 무섭게 벌리고 당장 덮칠듯 달려 왔다. 나는 온몸의 기력을 다하여 발을 옮기는데도 움직여 지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했다. 승냥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시뻘건 혀가 널름거린다. 나는 그만 비명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넘어졌다...

그 순간에 나는 깨어 났다.

온몸이 오싹해 졌다. 더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동무들의 모습이 새록새록 안겨 온다. 은숙이며 정확이 그리고 아바이의 모습도...

꿈속에서처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금방 꿈을 꾸고 난지라 나는 겁이 왈칵 났다.

(이 밤중에 누가?...)

나는 살머시 일어 나 문앞으로 다가가 귀를 강구고 한동안 밖의 기척을 살폈다.

쿨럭! 쿨럭! 기침소리가 났다.

《누구예요?...》

《나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것 같았다.

김석철이 찾아 온것이였다.

《아!-》

나는 가는 신음소리를 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두손으로 모두어 잡고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담?...)

나는 한동안 망설이면서 태연해 지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왕 이렇게 된바에 만나자.)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에 그의 초췌해 진 모습이 보이였다. 얼굴은 온통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밤길을 걸어 왔을것이였다.

《몸은 좀 어떻소? 회의뒤끝에 잠깐 들렸소.》

나는 고개를 외로 뜬채 잠자코 있었다.

《아침에 오빠를 만났댔소. 동무때문에 오빠가 걱정하더구만. 그래 어떻게 하겠소. 동무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동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니...》

김석철은 그답지 않게 뜨직뜨직 말했다.

《고맙군요. 저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저를 때버리려는건가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인가구요? 제가 그렇게 동무에게 방해가 되는가요? 난 그래도 소대를 위해 제 힘자라는것 하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동무에게는 눈에 걸리던가요? 제가 소대장의 사업에 방해가 되던가요. 제가 그렇게 보기 싫도록 밍던가요?》

나는 자기를 주체하지 못했다.

《아니, 내가 동무를?...》

《동무에게는 정말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줄

아는 지휘관다운 뜨거움이 없어요. 동무의 몸에서는 랭기만이 풍겨요. 저도 동무하고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동무가 마음대로 옮겨 놓는 장기쪽은 결코 아니예요.》

나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걱정을 터치고야 말았다.

김석철은 몸을 휘친거렸다. 그는 몸을 가누느라고 한동안 헛손질을 했다. 벽에 손이 닿자 그는 거기에 의지하여 섰다. 그리고는 나를 정기 없는 눈길로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 바라 볼수가 없었다. 그의 입에서는 《후-》하는 숨소리가 길게 새어 나왔다.

《난 변명하려고 하지 않소. 내가 동무를 욕되게 했다면 용서하시오. 하지만 난 동무를...》

김석철은 더 말을 잊지 않았다. 그 무엇이 가슴에 마쳐오는지 아니면 말 못할 안타까움이 있는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목단추를 끌었다.

나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밤중에 찾아 온 사람을 면전에서 심장에 칼을 박은것이였다. 나는 정말 모진 녀자였다. 그러나 용서를 빌고 싶지는 않았다.

김석철은 이윽고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동무가 소대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것이면 더 바랄게 없소. 난 동무가 그렇게 나오리라고 믿고 싶었소. 고맙소.》

《뭇라구요?...》

나는 그만 아연해 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운명의 희롱인가? 그렇게 보기엔 김석철의 태도가 너무도 꾸밈이 없었고 얼굴에는 순박한 빛이 어려있었다.

《자, 이건 아바이가 동무에게 보내는 편지요.》

그는 나에게 편지를 넘겨 주고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어 갔다.

나는 한동안 못 박힌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편지를 받아 든 손이 떨리였다. 마지막에 던진 그의 젖은 음성은 나의 가슴을 오리오리 찢어 놓았다.

나는 방안으로 들어 와 편지를 뜯었다.

《은옥이, 소대장동무에게서 동무에 대한 말을 들었소. 오빠가 동무를 후방부로 옮기겠다는 말을 듣고 소대장이 승낙은 했지만 마음이 피로워 하루종일 밥도 제대로 들지 않았소. 동무들도 은옥이가 후방부로 옮겨 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저녁밥을 먹는등마는등 했소. 은숙인 울기까지 하면서... 소대장동무는 자기가 지휘관구실을 잘 못하여 은옥이 다른데로 옮겨 가게 됐다고 자기 비판까지 했소. 그게 어디 소대장탓이겠소.》

은옥이, 후방부로 가기전에 내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동무는 김석철이를 좋게 보지 않는것 같은데 후방부에 가도 김석철이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알고 가야 하겠기에 말을 하오. 소대장이 지

난 날의 일로 동무에게 모질게 논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것ियो. 은옥이를 욕되게 하려고 지금껏 강한 요구성을 제기한것은 결코 아니요. 소대장동무는 지금껏 어떻게 하나 은옥일 이모저모로 단련시키고 이끌어 주려고 무진애를 써왔소. 동무도 생각날거요. 강쪽자리를 찾던 날을... 소대장동무는 동무보다 먼저 그 강쪽을 찾았었소. 그러나 그 성과를 모두 동무에게 안겨 주느라고 내색하지 않았소. 그날 밤 총화시간에 동무에게 한 말은 동무의 진정을 알려고 했던것ियो. 동무의 오빠를 모르고 있던 소대장이었소...》

《네?...》

나는 놀랐다. 그날 나를 본 김석철이 멀리 피해 가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은옥이, 소대장은 매정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यो. 사실은 그 숨신도 소대장동무가 밤을 새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 온것ियो. 소대장동무는 낮에 은옥동무의 신발을 보니 숨신이 불에 타서 구멍이 뚫어 졌더라고 하면서 가뜩이나 소화장애로 애틀고 있는 동무인데 발이 차면 견디지 못할거라고, 숨신을 동무에게 좀 가져다 주라고 했소. 자기가 가져다 주면 받지 않을거라고 하면서...》

《아-》

나는 더이상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쓰러지듯 엎어 졌다.

《아- 어머니, 난 어쩌면 좋아요. 나를 위해 그토록 마음 써온 동무를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에 멍이 들게 하였으니...》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나는 어쩌면 종단 말인가. 다음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것이 밤 어디에 쓰러져 있을것만 같았다.

《석철동무! 석철동무!》

나는 종주먹을 쥐고 그가 사라진쪽을 향해 허둥지둥 뛰어 갔다. 그러나 나를 마중하는것은 수림뿐이었다.

주체89(2000)년 12월 X 일

## 고 백

아침추위는 칼로 생살을 란도질하듯 두볼을 찢으며 달려 들었다. 그러나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온몸은 후더운 열기로 핫핫 달아 올랐다.

온몸에 힘이 솟구쳐 올랐다.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항용 그러하듯 지나간 일은 추억속에 묻어 버리고 아름다운 생활을 마중하여 가는 흥분으로 충만되어 있는것이다.

나는 얼마나 속된 인간인가. 나는 얼마나 편협

한 녀자인가. 나는 너무도 웅졸하고 모진 처녀였다.

지금도 눈속에서 통나무를 찍고 있을 동무들이 눈앞에 다가들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들을 만나 보고 싶었다. 나를 위해 남 몰래 마음 써온 김석철이 못 견디게 그리워 졌다.

내가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를 위해 주는 좋은 동무들을 두고... 후방부로 가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부끄러웠으며 동무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통나무생산전투장 한쪽에서 은숙이 점심식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갈 생각을 잊고 멈추어 섰다.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콧구멍으로

《은숙아!》

《아니, 언니!》

은숙이가 막 달려 왔다. 그러던 그는 우뚝 멈추어 섰다.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긴, 내가 너를 버리고 어디로...》

《언니!》

은숙이 나의 품에 와락 안겼다. 집을 떠나 서로 의지하고 다정했던 어린 처녀!

난 그보다도 못한 숙맥이었다.

《아바이, 은옥언니가 왔어요.》

은숙이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산으로 달려올라 갔다.

《은옥동무!》

소대장동무들이 쏟아져 내려 왔다.

《왔구만요. 난 누나가 가는줄 알고 혼이 났어요.》

《우린 은옥이가 오리라고 믿었어. 가지 않을거라구.》

《아바이!》

나는 흘러 내리는 눈물을 닦을 녀를 잊고 동무들을 둘러 보았다. 뿌잇한 안개속에 웃고 있는 다정한 동무들이 정답게 보였다.

그런데 김석철은 보이지 않았다.

《아바이, 소대장동무?...》

《소대장은 지금 숙소에서 앓고 있네. 너무 몸을 혹사했지. 은옥이한테 갔다 온 다음부터...》

《네?...》

나는 망연자실하여 서 있었다.

《소대장동무한테 가보라구. 은옥이가 왔다면 아마 자리를 차고 일어 날지도 몰라.》

아바이는 뜨거움에 젖어 나를 떠밀었다.

아- 내가 이제 그를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나는 그에게 너무도 혹독했다.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그날 밤 비칠거리며 걸어 가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한낮의 태양은 밀림우에 따듯한 빛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었다. 눈을 밝으며 걸던 나는 열결

에 눈을 들어 앞에 나타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흠칫 놀라 멈추어 섰다. 나무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마주 오는 사람은 분명 김석철이었다. 앓는 몸으로 다리를 절면서까지도 또 작업장으로 나온다.

불 같은 사람! 지칠줄 모르는 사람!

내가 저런 사람을 몰리해하다니.

나는 그에게로 발뼘발뼘 다가갔다. 그도 나를 알아 보았는지 흠칫 놀라며 멈추어 섰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채 아무말없이 마주 바라보기만 하였다.

《소대장동무, 제가...》

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자꾸만 뜨거운것이 솟구쳐 올랐다.

《왔구만. 난 은옥동무가 꼭 오리라고 믿었소.》

《저때문에 소대장동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전 정말 나쁜 여자예요.》

《아니, 아니요. 난 오히려 은옥동무를 고맙게 생각했소. 내 치명적인 결함을 짚었으니까.》

《아니예요. 그건 동무를 모르고 한 소리예요. 저 같은 사람때문에...》

《그런것만은 아니요. 난 벌써 오래전에도 한 처녀에게서 버림을 받은적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처녀도 소대장동무에게 돌아 오지 않았나요.》

《?...》

김석철은 놀란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주체89(2000)년 12월 X 일

### 《산고래》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날이다.

래일이면 우리는 새 세기의 첫 아침을 백두산에서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21세기를 기념하여 스물한가지의 특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나와 은숙이는 며칠째 지우고 쓰고 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울 새로운 음식들로 스물한가지의 《봉사안내표》를 만들었고 수십리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음식감들을 구해 왔다.

아침에 문득 정확이 배낭을 메고 싱글거리며 찾아 왔다.

《왜 왔어요. 또 먹을것이 없나 하고 왔어요? 오늘은 없어요.》

은숙이 제풀에 토달거리며 앵돌아 졌다.

《체, 내가 뭐 먹새긴가.》

《그럼 왜 왔어요?》

《우린 특별전투를 나간단 말이야.》

《특별전투? 그게 뭔데?...》

《체. 그건 비밀이란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누구랑 함께 가나요?》

《오, 그건 소대장, 아바이, 나, 그리고...》

《소대장동지두요?...》

그 말에 나는 끼여 들었다.

《아니 오늘은 문화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지요. 그래서 선발된 몇명만 간단 말이에요.》

《어데로요?》

《이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익 내 욕 먹는셈치고 누나에게만 말하겠어요. 우린 <산고래>를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산고래>?...》

《그래요. 21세기를 맞으면서 큰 잔치상에 놓는 다나요.》

《잔치상, 호호호.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그쯤 알아 두세요.》

정확은 싱글거리며 뛰어 갔다.

나는 김석철이 마지막전투를 조직했다는것을 알았다. 나도 이해의 마지막전투에 참가하고 싶었다.

눈치 바른 은숙이도 나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나를 더욱 놀라게 한것은 선발된 몇명이 아니라 소대가 모두 모였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왜들 다 나왔소?》

김석철은 놀란 눈길로 우리들을 바라보았다. 더 할 말이 없다는듯 한동안 뜨거운 눈길로 대렬을 둘러 보던 그는 나와 은숙이에게 눈길을 박았다.

《종소. 하지만 녀동무들은 떨어 지시오. 녀동무들은 다른 임무가 있질 않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가야 합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안 따라 가면 됩니까.》

은숙이의 당돌한 말에 웃음과도가 일었다.

《종소. 올해 마지막전투를 빛나게 장식합시다. 앞으로!》

출발구령은 내렸다. 이 아침 우리들은 흥분된 마음을 안고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마지막돌격전으로 행군해 갔다.

눈보라는 사정없이 우리의 몸을 휘갈겼지만 우리는 끄떡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덥게 안겨 왔다.

《산고래!》

누가 이름을 달았는지 그럴듯도 했다. 몇번 시도를 하고 달라붙었다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물러난 거목의 나무!

나는 하늘 끝에 붓초리마냥 붙어 있는 나무우듬지를 올려다 보았다.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듯 했다.

《소대장동지, 이 나무가 몇년은 자랐을가요?》

정확이 묻는말에 서로들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았다.

《120년.》

《135년.》

김석철은 나무밑을 빙 돌고 나서 150년은 실희  
넘을거라고 말을 했다. 서로들 반대도 하고 긍정  
도 하는 속에 첫조가 전투에 진입하였다. 첫조는  
아바이의 제기에 의하여 소대장과 나 그리고 정  
학이 이렇게 셋이 었다. 한조에서 천번씩 톱질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나는 김석철과 톱을 마주 잡았다.

톱질이 시작되었다. 밀고 당기고, 그럴 때마다  
사르릉 사르릉 하는 톱질소리가 고요한 밀림속에  
경쾌한 음악소리마냥 울려 퍼졌다.

《견디어 내겠소?》

《이겨 내야지요.》

김석철의 웃는 말에 나는 마주 웃으며 말했다.  
힘겨운 전투라기보다 흥겨운 전투였다. 힘을 겨  
루는 전투라기보다 마음을 주고 받는 전투였다.

《저를 아직도 원망하나요. 모진 여자라고?...》

《아니 원망하진 않소.》

《그럼 저를 용서해 주겠지요?》

《용서는 이미 했소.》

《...》

쉬임 없는 공격은 드디어 마지막 지탱점을 향  
하여 육박해 들어 갔다.

《푹! 푹!》

나무 넘어 지는 소리가 나자 모두들 긴장해 졌  
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우리들이었다.

《하나 둘, 영차-》

《따. 뿌지직-》

마지막지탱점이 부서 저 나가는 소리가 아츠럽  
게 밀림을 찢었다. 거목의 나무는 서서히 넘어지

기 시작했다. 하늘이 기울어 지는것 같았다.

드디어 육중한 몸체가 땅에 닿으며 《쿵》하고  
지심을 울리었다. 눈갈기가 뽕양게 일었다.

《잡았다- <산고래>를 잡았다-.》

정확이 너무 좋아 닝큼닝큼 뛰며 소리쳤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어쩔바를 몰라 했다.

나는 가슴이 몽클해 졌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김석철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다.

《동무들! 동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  
리들은 소대앞에 맡겨 진 통나무생산계획을 우리  
의 힘으로 해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  
다.》

《만세!》

만세소리는 백두산대지로 메아리쳐 갔다.

그렇다.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통나  
무계획을 수행하였다. 누구도 계획을 수행하리라  
고는 생각지 않았으며 엄혹한 추위와 힘겨운 전  
투에서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 내리라고는 더더욱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다. 쓰러진 사  
람도 없다. 그만큼 우리들은 힘이 자라났다. 아니  
정신이 굳세어 졌다고 해야 옳을것이었다.

새해에 우리는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을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파업도 두렵지 않다.

새 세기는 우리의 세기로 빛날것이다.

썩!

밀림이 설레인다.

눈보라가 인다. 그러나 우리들은 추위를 느끼  
지 않았다. 눈보라는 백두산의 숨결처럼 우리의  
가슴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준다.

우리의 어깨우에 눈이 쏟아 저 내린다.

축복의 꽃보라인양...

## 가사

# 기다리는 마음

김선지

눈 내린 새벽길 헤쳐 갈 때도

가슴은 언제나 설레인다고

이 길에 장군님 만나뵈울듯

굽이 도는 령길을 바라본다오

낮과 밤 따로없이 인민들을 찾으시는

아, 장군님을 또다시 만나뵈울듯

노을 비낀 저녁길 걸을 때에도

마음은 일터에 두고 산다오

이 밤도 장군님 찾아 오실듯

평양으로 향한 길 바라본다오

낮과 밤 따로없이 인민들을 찾으시는

아, 장군님을 또다시 만나뵈울듯

그리는 마음은 깊은 밤에도

장군님 모시는 꿈을 꾸다오

언제나 명절의 기쁨을 안고

그이를 모실 날 기다린다오

낮과 밤 따로없이 인민들을 찾으시는

아, 장군님을 또다시 만나뵈울듯

## 영생하는 작가의 초상

최학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란 작가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아끼며 사랑하시던 작가 석운기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였다.

석운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시는 큰 작가였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몸가까이 모시고 접견 받는 영광을 지닌것은 예술영화 《한 간 호원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 지던 주체 59(1970)년 초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간호병영웅 안영애를 원형으로 하여 영화를 만들데 대한 그이의 가르치심을 전달 받은 작가동맹 평양창작실의 소설작가들은 간호병영웅에 대한 영화문학작품을 소설가들이 맡아 쓰기로 결의하고 집체적지혜를 발휘하여 짧은 기일안에 작품을 만들어 냈다. 초고집필에는 나도 참가하여 주인공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기까지의 앞부분을 분공 받아 썼었다. 영화문학작품은 곧 심의를 거쳐 영화제작에로 옮겨 졌다.

그렇게 되어 만들어진 영화의 두개필름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형상과정에 발로된 결함을 지적하시면서 혁신적으로 수정완성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영화를 개작하기 위하여서는 영화문학부터 수정하여야만 하였다.

그 영화문학작품을 수정하기 위하여 그 작품을 만들어 낸 평양창작실의 소설가대표로 선발되여간 3명의 작가들중에는 석운기도 끼여 있었다.

석운기는 영화인들과 더불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영화를 수정완성하는 과정에 그이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녔으며 그이께서 아시는 작가로 되였다. 석운기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가까이 모신것은 그때가 처음이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이미전부터 그의 작품들과 저자 사진을 통하여 그를 알고 계시였다.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분이지요!》

작품수정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평양창작실로 돌아 온 그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인상에 대하여 우리앞에서 단마디로 규정 지은 말이였다.

《그이의 안광은 예지로 번쩍번쩍합니다!》

석운기는 자기 집에 들어선 그날 밤에 방에서 복도로 나오다가 졸도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영화창작전투장에 가서 파로했던때문이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귀중한 약들을 보내주시였다.

그 이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석운기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그의 건강을 넘려하시여 외국에 부부휴양도 보내주시였고 다른 나라에서 유능한 의료진을 데려다가 그의 치료를 담당시키는 조치도 취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석운기와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진행한 수령형상창조사업과 생활을 얼마나 현명하고 세심히 이끌어 주고 보살펴 주셨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세상에 이미 적지 않게 알려 져 있으므로 여기서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석운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4.15문학창작단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훌륭한 창작기지를 마련해 주시였을적의 일이다. 창작단을 책임지고 있는 석운기는 새 청사가 완공된 다음에도 여러 달이 지나도록 청사에 아무도 발길을 들여 놓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와서 밤낮으로 지키군 하였다.

새 청사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남 먼저 모시고 싶어하는 그의 지극하고도 가욕한 심정을 장군님께서도 아시였다.

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존총국(당시)으로 현지도를 나오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새로 건설된 4.15문학창작단청사를 가리켜 보이시면서 저기가 바로 석운기동무랑 총서 《불멸의 력사》작품들을 쓰는 4.15문학창작단이라고 하시면서 석운기동무는 우리가 마련해 준 새 청사를 내가 와서 봐주기전에는 절대로 이사할수 없다면서 거의 1년동안 비워 둔채 자기 혼자만 와서 경비를 서고 있다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 들러 주지 못하겠지만 불원간 거기에 가보겠다고 외우시였다는것이다.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의 은혜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새 청사에 맨 먼저 모시려던 석운기의 념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5돐 기념일을 하루 앞둔 주체 76(1987)년 4월 14일에 성취되였다.

그날 석운기의 안내를 받으면서 창작실들과 사무실들, 오락실과 영사실, 도서실과 연구실, 심지어 식당과 주방에 이르기까지 청사 안팎의 곳곳을 일일이 다 돌아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설계도 특색 있게 잘되고 시공도 질적으로 잘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만 하면 세계의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문학창

작기지로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창작단이 창립된 이래 창작단 작가들이 창작한 총서작품들을 비롯하여 단에서 발행한 도서들도 보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창작단 작가들이 지난 기간에 소문없이 큰일을 많이 해놓았다고, 많은 일을 해놓은 창작단 작가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창작실들과 오락실, 자료실을 꾸리는데 필요한 수많은 기재들과 비품들과 도서들을 다시금 해결해 주시였으며 앞으로의 창작사업과 청서관리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창작사업이나 생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제기할 일이 있으면 번거롭게 중간다리를 거쳐 보고하느라고 하지 말고 석유키동무가 아무때나 직접 나에게 전화하라고, 직통치기로 련계를 가지자고 은정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처럼 석유키는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다함 없는 신임을 받아 안은것이였다.

그날은 석유키가 자기의 생애에서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오른 날로 되였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있는 뜻 깊은 사연은 영화문헌과 사진에도 기록되어 화면으로 남아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은총과 끊임없이 둘러지는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배가의 열정을 발휘해 가며 불철주야로 헌신분투해 가던 석유키는 지나치게 파로했던 나머지 그후 이태밖에 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체78(1989)년 4월 28일에 별세하였다.

그를 마감으로 만나보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여년 세월이 흘렀으니 실로 터무니없이 빨리 흘러 가는것이 세월인가 싶다.

하긴 그가 떠나가고보니 그보다 여덟해나 뒤늦게 세상에 나온 나 같은것이 어느덧 세명의 손자, 손녀를 거느린 할아버지로 변했을진대 세월의 급류를 탓할것도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작가의 생명력은 그 작가가 쓴 작품들의 생명력에 정비례된다. 30대 초에 주옥 같은 중편소설 《전사들》을 내놓은것으로 우리 나라 소설문단에 혜성처럼 나타난 석유키는 마흔살도 되기전에 신생조선 대 세계제국주의최대의 련장인 미국간의 대결전을 집대성한 력작 《시대의 탄생》 1,2부와 김책동지를 원형으로 하여 항일혁명전쟁의 일단을 반영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련이어 창작발표함으로써 문학과 독자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40대 초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각색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체혁명문학창작 특히 수령형상문학창조의 길에 들어선 석유키는 당시로서는 몇명밖에 안되는 혁명문학의 개척자들과 함께 인류문학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인미답의 창작적험로의 선두에 서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대지는 푸르다》, 《봄우

뢰》와 같은 성공작들을 련속 발표하였다. 그가 쓴 모든 총서작품들과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이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아주 잘 썼다는 높은 치하의 교시를 받았다는것은 우리 나라 현대문학사의 여러 갈피에도 기록되어 있을것이다.

언제인가 소설로 각색된 《피바다》의 완성본을 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곁에 있는 일군들에게 책을 높이 쳐들어 보이시면서 이 책만 보아도 필자가 얼마나 귀중한 국보적인 존재인가 하는것이 알린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였다. 석유키가 쓴 수많은 대작들의 사상에술적 가치나 생명력에 대하여서는 내가 여기서 구태여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들은 거의다 세상에 이미 널리 공개되였다. 공개된것을 가지고 말하는것은 작품을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할수 있는 일이다. 나는 다만 작가 석유키의 인간적면모에 대하여, 그의 작가정신에 대하여, 나만이 알고 있거나 과거에는 몇사람이 알고 있었으나 이제 와서는 그 옛일들을 기억하고 있을만한 생존자가 퍼그나 적어 저서 만약 내가 여기 적어 두지 않는다면 세월의 망각속에 영영 파묻혀 버리고 말수 있겠다고 생각되기에 몇몇 단편적인 사실들이나마 이야기하고자 할따름이다.

전후의 한때에 작가동맹에서는 동맹의 정맹원들에게 《작가》라는 직명이 새겨져 있는 휘장을 내주어 달고 다니도록 한적이 있었다. 작가의 사회적권위를 높여 주기 위한 조치였던것 같다. 네모난 진곤색바탕에 작가라는 두 글자를 두드려지게 새겨 넣고 두 글자사이에는 펜촉도안을 부각한 그 영예로운 휘장은 모든 문학애호가들과 문학작품의 애독자들 그리고 문학신인들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부러운 동경의 눈을 끌었다.

언제인가 작가동맹회의실에서 소집된 작가들의 모임에 《병아리작가》라고 불리우던 우리 작가학원 5기생 학생들도 반청으로 참가한적이 있었는데 주석단에 앉은 한철야, 리기영, 송영, 박세영을 비롯하여 모든 동맹의 정맹원들이 한결같이 작가휘장을 달고 있었으나 유독 이마가 벗어진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 석유키만은 휘장을 달고 있지 않았었다.

주체49(1960)년 4월에 나는 학원을 졸업하고 작가동맹출판사(당시) 단행본편집부 편집원으로 배치 받았는데 석유키가 그 편집부에 있었다. 그가 출판사에 온것은 주체45(1956)년 가을이라고 하였다. 3년후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집이 또한 석유키가 사는 작가살림집의 같은 인민반에 있었다. 석유키가 옮겨 앉은 하였던 창작단위와 생활처소들을 나는 항상 3~4년쯤 뒤늦게 밟아 나가면서 옮겨 앉아서는 그와 함께 지내곤 하였다. 그렇게 되여 석유키와 직장에서도 인민반에서도 집필장소로 리용하곤 하였던 여러 휴양소들에서도 근 30년동안이나 같이 지낼 기회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가지곤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석유키로부터 강하게 받은 인상은 그는 휘장이나 간판이나 그 어떤 명예장이 작가적가치를 규정해 주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며 걸로 번쩍이는것은 실속이 없다는 진리를 깊이 터득한 사람이였다는 사실이다. 석유키는 작가휘장을 한번도 패용한적이 없다. 그는 《김일성훈장》수훈자였고 《김일성상》계관인이였으며 로력영웅이였다. 그에게는 수많은 훈장과 메달들이 있었으며 표창장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생전에 그는 자기 집의 어느 벽면에도 그 술한 훈장과 메달, 표창장과 명예증서들을 내걸지 않았다. 명절행사에 갈 때에만 행사보장에 손색을 주지 않을 정도로 몇개의 대표적인 훈장과 메달을 앞가슴에 달곤 하였다. 어느 때에는 그 모든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감춰 두군》하였다. 그대신 그의 집의 아무 벽면, 아무 구석에서나 흔히 눈에 띄우는것은 책이였다.

그는 장서가였다. 원고료가 생기면 가능한책 책을 사들이는데 그 돈을 몽땅 들이밀었다. 석유키야 말로 책을 유일무이한 가보로, 가산으로 여긴 사람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시대의 탄생》 제1부를 내고 원고료를 손에 넣었을 때 그는 전액을 다른 나라에서 출판한 세계문학 선집을 사들이는데 바쳤다. 좀 남았던 잔액도 희귀한 도서구입에 다 써버리고 가정살림에는 한푼도 돌려 주지 않았노라고 부인이 《불평》을 부린적이 있다.

주체75(1986)년 1월에 석유키는 락원거리에서 살다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에게 마련하여 주신 보통벌의 초고충고 급주택으로 이사하였는데 그때 보니 이사집의 절반이상이 책이였다. 내가 본 우리 나라 작가들 가운데서 그만큼 많은 개인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는 《남자는 의례히 다섯수레의 책을 가져야 한다.》는 두보의 말을 종종 외우곤 하였다.

그는 다독가인데다가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박식가였다. 그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있었을뿐아니라 매 분야의 학문에 대하여 깊이 파고 들었다. 제일 놀라운것은 퍼그나 어릴 때에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다는 중국의 허다한 고사성구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것이였다.

다문박식한 그한테서는 들을 소리가 많았다. 그는 말재주가 좋은 이야기꾼은 아니였으나 언제나 새라새로운 이야기거리로 듣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정신적양식을 제공해 주었기때문에 꿀을 많이 내는 꽃에 벌떼가 날아 들듯이 지식욕에 불타는 사람들한테 에워 싸여 지냈다.

그가 출판사 편집원으로 지낼 때 농촌에 김매기지원로동 같은 일로 나가게 되면 그의 김매기속도가 다른 편집원들이나 교정원들전체의 김매

기속도를 규제하곤 하였다.

그가 들려 주는 갖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를 얻어 듣기 위하여 호미를 들고 밭고랑을 타고 앉은 다른 모든 김매기군들이 횡대로 늘어 앉아 그의 보조에 맞춰 가며 일을 축냈기때문이였다.

그는 직심스럽게도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다. 그가 군대에서 제대되어 와서 출판사에 갓 입직해 들어 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당시 출판사의 한 큰직한 서고에는 해방직후부터 출판사에서 편집발행한 모든 종류의 특수장 정도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작가동맹출판사의 연혁사와 더불어 길이 보존해 두어야 할 영구보관용이였으므로 매권마다 특별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대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남반부출신으로서 주체39(1950)년의 제1차 남진 시기에 의용군으로 입대한 석유키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읽어 보지 못한 공화국북반부 작가들의 작품들이였다. 해방후 북반부에서 나온 그 모든 문학작품을 모조리 독파하여야만 지금껏 북에서 활동해 온 작가들과 정신적키를 같이 할수 있겠다고 생각한 석유키는 그 서고의 관리자에게 갖가지로 사정사정하여 매일 한두권씩만 퇴근때에 슬그머니 대출 받는 특전을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매일 부피 두터운 책들은 한두권씩, 얇은 책들은 너댓권씩 빌려다가 밤을 패워 가며 보곤 하였는데 한해가 채 못되는 사이에 그안의 책을 쟁그리 독파하였다는것이다. 그 기간에 그의 두눈이 충혈되어 있지 않은 때가 없었노라고 그 당시 서고관리를 담당했던 후날의 교정부장은 백발이 희속희속해 진 오늘날까지 두고두고 외우고 있다.

《그때까지 나는 그렇게 지독한 독서미치광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뭇때문에 낡은 책들을 살살이 뒤져 가며 다 읽어 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 했는데 몇년후에 <전사들>이라는걸 써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구나니 아하, 이런 멋들어 진 작품을 써내자고 <굴진을 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석유키는 이마도 두드러 진데다 뒤통도 두드러진 골상의 얼굴이다. 향간에서 흔히 말하는 남북두라는 머리를 가졌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비상히 기억력이 좋았다.

1960년대 중엽에 위대한 수령님의 새로운 한로작이 나왔을 때 작가동맹 평양창작실학습반에서 로작전문에 대한 암송경연을 조직한적이 있었다. 어느 대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품에 놀지 않는 우리 나라, 우리 당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나머지 남의 두 결상사이에 앉아 있다고 비양한데 대하여 우리도 우리의 결상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불편스럽게 남의 두 결상 사이에 걸터 앉겠느냐고 통쾌한 반박을 가하신 명로작이였다.

암송경기에서 석유키는 중요한 문구 두개를 빠



뜨리는 바람에 제2위를 차지하였다.

《네살때 한주일동안에 천자문을 떼서 할아버지로 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성균관대학교 문리과를 다닐 때는 물론 군대생활을 할 때나 편집원생활을 할 때나 이날이때껏 암기에서는 두 번째 자리에 물러 서본적 없던 내가 오늘 평생 처음으로 제2석을 차지해 본다. 이게 아마 나이들어 간다는 징조겠지.》

웃음속에 그가 한 말이였다.

석운기는 세계적인 문호들의 출생과 사망년월 일들을 거의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비상한 독학가이기도 하였다.

주체71(1982)년 여름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으로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당시 민주도이철판드와 쓰련에 관광휴양여행을 간적이 있었다. 단장인 석운기가 휴양단을 인솔하였다.

싼크프-뻬쎄르부르그(당시는 레닌그라드)의 아스토키아호텔에 들었던 우리는 통역원이 없이 거리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헛들어 버렸다. 고급중학교때 배운 발은 로어지식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 가는 길을 묻자니 허가 제대로 굴러 지지 않고 알던 단어들도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우리는 어지간히 당황해 졌다. 그런데 한옆에 서서 병긱병긱 웃으며 구경하던 단장이 로어회화를 번지는것이 아닌가! 그덕에 호텔로 수월히 돌아 올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조국을 떠나기전에 한달동안 로어를 독학했다는것이다. 한달을 독학한 그가 몇년을 로어를 배웠다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로씨야말을 잘 번져 댔다.

석운기는 자기자신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창작적으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곤 하였다.

소설창작에 대하여 처음으로 배워 나가던 1960년대 초에 나는 평안북도의 매봉저수지건설장에 현실체험을 나가서 목격했던 한가지 사실에 기초하여 습작 삼아 단편소설을 썼었다.

작가 천세봉이 함경남도 고원군 금수리에 살면서 《대하는 흐른다》의 원고를 탈고하였던무렵이다. 그 작품의 편집을 담당한 나는 고원군 금수리에 내려 가 작가에게 의견을 주고 작가가 원고를 수정하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편소설 《궤도를 따라》의 초고를 펴구었다.

나는 천세봉에게 첫선을 보이면서 물건이 되겠는지 기탄없이 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거장은 대번에 토 하나 고칠것없이 잘된 5점짜리 단편소설이라고 하면서 《조선문학》잡지편집부에 올려 보내는 자기 명의로 된 추천장까지 써주었다. 이왕이면 좀 더 광범한 의견을 받아 출세작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동한 나는 평양에 올라 오자마자 석운기에게 작품을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그는 신병때문에 나타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 지냈다. 내가 총각으로 함숙살이를

할 때였다. 저녁 퇴근길에 그한테 들렀더니 의의 있는 문제도 제기했고 이야기도 꽤잘게 엮였으며 전체적인 형상도 꽤잘게 되었으나 언어구사를 정확히 하지 못한것이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하면서 참고가 될가 하여 소설의 제1절 부분만 부정확한 언어와 문장개소들을 연필로 표식하였으니 합숙에 가서 사전까지 들춰 가며 칸칸히 따져 보라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특별한 강의 같은것을 하지 않았다. 언어를 되는데로 다룬다는것은 사색도 되는데로 즉 부정확하게, 대강대강 막연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는 레브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언어가 문학의 첫째 가는 요소로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을뿐이다.

합숙으로 돌아 가면서 단편소설의 초고 몇장을 번져 보기 시작한 나는 수치심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기조차 두려워 졌다. 부정확하게 써여 진 개소들이 어찌나 많았던지 거의 매 페이지마다 (200자 원고지) 두세군데씩 밑줄을 그어 났거나 x 자표식을 해놓은것들이 있었다.

나는 고중을 졸업하고 학원에 오기전에 반년간 중학교에서 교원으로 있으면서 문학과 문법과목을 가르친적이 있었다. 작가학원에 와서도 또한 문학과 문법을 배웠다. 그리고 고리끼의 《문학론》도 두세번 읽어서 문학의 제1요소는 언어이며 작가는 언어라고 하는 《벽돌장》으로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것도 알고 있었다.

그랬었지만 석운기가 나의 단편초고지에 표식해 놓은 틀린 개소들을 보고 나서야 나는 아직 우리 글과 우리 말의 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문학작품을 쓸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한 민중이라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석운기는 나에게 문학의 첫 신발을 신겨 준 선배이며 스승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천세봉은 뛰여 난 재능을 가진 큰 작가였다.

그의 흠냄새가 물씬물씬 풍기는 천부적재능에 대하여서는 석운기도 때때로 몹시 부러워 하였다.

그러나 천세봉은 다른 작가나 작품을 대하는데서는 지나친 《호인》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결함을 지적하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그 지나친 호인성으로 하여 천세봉은 《병아리》들을 생명력이 강한 엄지닭으로 길러 내는데서는 석운기와는 달랐다고 나는 생각한다.

석운기는 자신의 창작에 대하여서도 대단히 요구성이 높았다. 문예출판사(당시)에서 중편소설 《전사들》의 제4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별을 받았을때 그는 담당편집원에게 원고에 손을 대고 싶은데가 많으니 출판에 회부하기전에 필사원고를 한주일정도만 자기에게 보내줄것을 부탁하였다. 이미 성과작으로 공인되어 있는 작품인것만큼 편집원은 작가가 필사원고에 손을 대지

말아 줄것을 바랐다. 수정가필하게 되면 다시 필사를 조직하고 대독도 해야 하며 교정도 새로 봐야 하는만큼 편집원으로서도 상당한 시끄러움을 당하게 되는것이다. 발행기일도 지연된다. 그러나 작가가 강경하게 요구하였으므로 할수없이 순응하였다.

석운기는 약속대로 한주일후에 원고를 편집원에게 되돌려 주었다. 도대체 어데를 수정가필하였을가 하고 원고를 뒤번져 보기 시작한 편집원은 그만 아연해 졌다. 거의 매 페이지마다에 새까맣게 수정가필한 흔적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이 문장들을 수술하면서 세련시킨것들이었다. 작가는 텃부림식으로 되어 있었던 문장들을 거의다 빼버리고 집값고 품위있는 문장들로 바꾸어 놓았었다. 작가가 수정가필한것들을 훑어 보면서 편집원은 뚜렷한 원숙미를 감수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를 《고생》시키는 작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더라고 하면서 그 옛일을 지금껏 즐거움속에 회고하곤 한다. 그 회고자가 오늘날 나의 옆방에서 총서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로 활약하고 있다.

석운기한테는 자기나름의 문학적인 자막대기가 있었다. 물론 그것은 문학창작의 제반 요구를 상당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는 자막대기였다. 자기 작품이건 다른 사람의 작품이건 그 자막대기에 맞지 않을 때에는 부정하고 형상의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작품답게 될 때까지 고쳐 내도록 엄격히 요구하곤 하였다. 그리고 작품이 성공작으로 되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먼저 찾아 와 축하해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곤 하였다. 그는 자기가 관계한 작품이 아닌 경우에도 좋은 작품이 나오면 축하의 박수를 올렸다.

평안북도의 신인작가였던 김영길이 《평양각시》를 내놓았을 때 석운기는 그 자그마한 단편소설을 쓴 신인작가에게 《문학신문》지상을 통하여 웅근 한면에 달하는 축하편지를 써보내었다. 그런 일은 해방후의 조선문단에서 전무후무한 일로 될것이다.

1960년대 중반기의 어느 건군절때에 《문학신문》지상에 내가 수필 한편을 써낸적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사한 나의 만형과 그 형을 잊지 못하여 사람들이 희희낙락하는 명절때면 도리어 남 몰래 슬픔속에 젖어 들곤 하는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즐거울 때마다》라는 수필이다. 그 수필이 발표된 날 밤이었다. 잠자리에 들려고 전등불을 끄려는 때에 석운기가 잠옷바람으로 술 한병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 들었다. 사연인즉 방금 자기도 잠자리에 들어 갔다가 낮에 받아 뒀던 신문에서 나의 수필을 읽고 흥분을 억누를수 없어 왔노라는것이다. 지금껏 네가 쓴 여러편의 소설들을 다 합친것보다 이 한편의 자그마한 수필이 더 큰 충격을 주었노라고, 이렇게 심장으로 쓴 글이라야 사람들을 공감시킨

다고 하면서 축배주까지 부어 주었다.

아버이수령님으로부터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과분한 치하의 교시를 받았을적에는 옥류관에 데리고 가서 오늘은 우리 나라 소설문단이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올린 날이라고 하면서 그는 눈물까지 보였다. 후배작가의 자그마한 성과를 그토록 크게 여기며 기뻐 하는 선배작가를 당시까지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는 비록 몸이 체소하였지만 작가로서는 거인이었다.

우리 창작단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내놓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최상의 평가와 감사까지 받았을 때 석운기는 감사전달행사장에서 걱정엔 넘쳐 울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술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석운기의 고심어린 창작적노력도 적지 않게 바쳐 졌다. 작품의 최종완결단계에서는 그도 필자와 함께 열흘나 밤을 패워 가며 심의하고 조언을 주고 심지어 필사까지 해주었다.

그랬지만 작품이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렸을 때에는 모든공로를 필자 한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리고 누구보다 앞장 서서 필자를 내세워 주었다.

나는 어떤 작가가 어느 작품에 대하여 조언 몇마디를 주고 시구나 좀 보래준것을 코에 걸고 합작자로 나섰노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낮내기를 좋아 하는 그런 철면피한 일부 문사 아닌 문사에 비긴다면 석운기는 《성인》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석운기는 단장사업을 할 때나 작가동맹위원장사업을 겸직으로 볼 때는 두말할것도 없고 평범한 편집원이나 작가로 지낼 때에도 수많은 작가들의 창작에 도움을 주었다. 황건의 《새벽길》, 운세중의 《용광로는 숨 쉰다》, 한설야의 《성장》을 비롯하여 전후의 소설문단을 장식한 여러편의 부피 큰 작품들이 그로부터 귀중한 창작적인 조언을 받으며 창작완성되고 편집출판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창작되고 출판된 어떤 작품들의 경우에는 수백매 혹은 천수백매씩이나 그의 직접적인 가필까지 받아 서야 완성될수 있었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작가가 뇌혈전에 걸렸다가나 또는 이러저러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집필을 계속할수 없이 되었거나 완결해 낼수 없게 된 작품들이다.

그런 작품들에 기울여 진 석운기의 세상에 알려 지지 않은 숨은 작가적노력에 대하여 회고해 볼적마다 석운기야말로 숨은 애국자, 소설문단의 영웅중의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석운기는 그 어느 누구의 작품을 대하건 작가가 기울인 창조적노력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고 지극히 존중하였다. 그만큼 작가와 작품을 아끼고 작가가 흘린 피땀을 값높이 여긴 문학인이 드

물었을것이다.

작가동맹출판사 단행본편집부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을 편집할 때 편집부내의 거의 전체 편집원들이 해방전후의 출판물들을 살살이 뒤져 가면서 문학작품이라고 이름 지을만 한 글은 다 읽고 선별작업을 진행하였다. 수필 몇편정도밖에 난 것이 없는 어느 무명작가의 글을 한 편집원이 명단에 없는 작가의 글이라 하여 읽어 보지도 않고 빼버린것을 알자 석운기는 목에 피대를 돈구며 성을 내었다. 그 사람의 글가운데도 잡문집에 능히 편집해 넣을수 있는 잡문이 한둘은 있을수도 있지 않느냐는것이다.

금덩이만 금인가 금싸래기도 금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싸우스톱스끼도 《금장미》에서 교훈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가, 먼지를 쓸어 내는 청소부가 어떻게 먼지속에서 황금알갱이를 찾아 모아서 금장미까지 빚어 내었는가를, 모든 작가의 창조물속에는 크든 작든 문학의 황금알갱이들이 들어 있기마련이다, 이름 없는 문사의 글이라 하여 먼지투성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당신이 손바닥만 한 작품을 단 한편이라도 써봤다면 고심참담한 노력이 깃든 작가의 작품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지 않을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였다. 그 편집원은 석운기에게 사죄하고 무명작가의 수필들을 수집해 왔다.

편집원시절에도 모든 작가와 작품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였던 석운기는 창작지도일군으로 된 다음부터 작가와 작품들에 대하여 더욱더 신중하게 대하였다. 그는 일단 작가적노력이 가해진 작품을 함부로 기각시키는 법이 없었다.

창작단의 어느 한 작가가 평양에서 어느 행사때에 진행된 백만군중시위에 대한 단편소설의 초고를 써서 심의에 제출한적이 있었다. 심의륵독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들이 원고를 른독해 본 결과 작품을 성사시킬 가망이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단장 석운기만은 견해를 달리 하였다.

백매가 넘는 이 원고안에 3~4매정도는 무슨 씨앗이 심겨 저 있다, 확대경으로 그씨앗이 앞으로 어떤 식물체를 싹 틔워 낼수 있겠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열매가 생겨날수 있다, 작가를 도와 우리는 그것을 찾아 주고 꽃 피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 작가에게는 성실하게 취재하는 좋은 습벽이 있다, 그의 성실한 노력이 허실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들은 담당심의원은 포기하려고 하였던 원고를 세네번 다시 읽고 좋은 대안을 찾아내어 작가와 함께 끝끝내 작품을 성사시켰다.

석운기는 길지 않은 생애에 상당한 매수에 달하는 글들을 쓰고 다른 작가들보다 두세배나 많은 일을 하였지만 우직하게 일하지 않았다. 많은

시간을 독서하거나 사색하는데 돌리고 집필은 하루에 서너시간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서너시간동안에 쓴 원고매수는 다른 작가가 새벽부터 밤이 깊도록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서 갑자르며 써낸 매수보다 훨씬 많았으며 그렇게 빨리 써낸 그의 글들은 흠할데도 없고 수정할데도 없으리만치 완성감을 주었고 기쁨져 있었다.

석운기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장기를 즐기고 낚시질을 좋아 하였다. 잘하지는 못하였으나 탁구와 정구도 좋아 하였다. 장기는 매일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즐겨 했다. 명수급은 못 되었지만 작가동맹안에서는 너덧손가락안에 꼽힐수 있는 선수였다. 낚시질도 퍼그나 즐겨 명절날이나 휴식일에는 만사를 제쳐 놓고 낚시터로 나가곤 하였다. 시간을 짜낼수 없어서 낚시질을 나갈수 없을 때에는 낚시도구를 꺼내놓고 그것을 손질하거나 감상하는것으로 꿈틀거리지는 심정을 달래곤 하였다. 그 정도로도 성차지 않을 때에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낚시질과 관련된 책들, 대개는 낚시질입문서 같은것을 반복해서 읽곤 하였다. 시간이 없어 낚시질을 자주 나가지 못하였기때문에 실적은 다른 낚시애호가들보다 많지 못하였다. 그때문에 《리론낚시군》이라는 조롱을 받곤 하였다.

집필이 본업처럼 되고 있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독서도 휴식처럼 인정되어 있다. 독서와 사색에 많은 시간을 돌리고 있는 석운기는 얼핏 보건대 늘 놀고 있는 사람같이 여겨 지곤 하였다. 매일 오전 한것이나 책상머리에 붙어 있을뿐 오후 시간이나 밤시간에는 책을 보거나 장기를 두거나 낚시도구를 손질하거나 텔레비존에 마주 앉아 공화국기가 휘날리는 속에 종결음악이 울려 나올때까지 《한담》으로 무료한 공간을 메꾸는것이 그의 일과생활처럼 보였다. 하지만 놀고 있는것같이 보이는 그 독서, 오락 및 휴식시간이 실상은 창작을 지속하는 사색으로 일관되어 있었다는것을 나는 한두번만 느끼지 않았다.

주체74(1985)년 8.15명절전날 밤이었다고 기억된다. 당시에 우리는 어느 한 집필장소에서 《창작전투》를 벌리다가 명절전야라는것을 기회 삼아 대동강에 밤낚시질을 나갔다.

《한마리를! 그렇지만 사자를!》하고 주장한 이소프와 같이 한마리를 낚더라도 큼직한 잉어를 잡기를 늘 꿈 꾸곤 하였던 석운기는 간드레불과 함께 떠벌이낚시도구를 가지고 나갔고 나는 기계낚시대를 들고 나갔다.

말복이 갓 지난 때였지만 밤이 깊어 지자 누기찬 강변이라 대기는 어지간히 서늘해 지고 배도 좀 출출해 저서 술로 몸을 덥히고 싶은 생각이 난 나는 야간동업자를 찾았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간드레불만 가물거릴뿐 대답이 없었다. 혹시 쪽잠에 들지 않았는가 하여 어슬렁어슬렁 그리로 가봤더니 석운기는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채 간

드레불앞에 엎드려서 수첩에 무엇인가 부지런히 써넣고 있었다. 때마침 뽕병이줄을 메운 한 방울대에서 달랑달랑 방울소리까지 울렸는데 석윤기는 그 방울소리조차 감촉하지 못 하였다.

《잉어가 기별을 보내오는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도대체 뭘합니까?》

허겁지겁 달려 들며 뽕병이줄을 채워는 나를 보고서야 석윤기는 황황히 만년필을 던지고 줄을 받아 쥐었다. 때가 늦어 고기는 놓쳐 버렸다. 낚시군한테는 언제나 놓쳐 버린 물고기가 큰 법이다.

《제법 목직하던데! 어찌다 걸려 든 <사자>를 놓치다니. 한발자국만 더 빨리 뛰어 올것이지.》

그는 몹시 서운해 하며 제때에 뛰어 와주지 못한 나를 나무랐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는 의기양양하여 술고뿌를 맛짚으며 건배하자고 하였다.

《잉어는 놓쳤지만 엄청난 소득을 봤으니 이 밤을 대동강반에서 꽤운 보람이 있게 됐소.》

그는 기뻐 어쩔줄 몰라 하였다.

《그 소득이 도대체 뭘니까?》

《<기념비>의 출생이야.》

그무렵에 석윤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수도건설에 대한 정도업적을 형상하는 새로운 작품을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밤낚시질을 나왔던 맥전나루가의 대동강반에서 석윤기는 그 새 작품의 제목을 생각해 냈을뿐아니라 새 작품에 심어 넣을 종자도 생각해 낸것이다.

한번은 그가 장기를 두던 도중에 불쑥 손에 들었던 《말》 한쪽을 그냥 틀어 전체 자기의 호실로 들어 가버린적이 있었다. 나는 피우던 담배가 떨어져 저 담배를 가지러 들어 간줄로 여겼다. 몇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길래 슬그머니 그의 호실문을 열어 봤더니 책상에 마주 앉아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작품에 써넣을 좋은 글줄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것이 《대지는 푸르다》를 창작하던 때의 일이다.

장시간의 사색을 걸치며 장악하였다가 일순간에 발사하여 탄알을 목표에 날려 보내는 식으로 순식간에 써버리는것이 석윤기식의 집필방식이였다고 생각된다. 고도로 압축된 사색적인 문장들의 줄기찬 분출! 이로 하여 석윤기의 문체는 분수처럼 기운차고 류창하고 화려했던지도 모른다.

솔직성은 작가일반이 가지고 있는 거의나 공통적인 하나의 속성일것이다. 석윤기 역시 거짓말을 할줄 몰랐다. 지나친 솔직성탓으로 스스로 화를 벌여 들이는 때가 있지 않느냐고 더러 놀림을 받곤 하는 우리들보다 더 솔직하여 거짓말이라고는 어린애들만치나 통 할줄 몰랐던 사람이 석윤기였을것이다.

주체71(1982)년 여름에 민주도이쾰란드를 거쳐 이전 쏘련으로 들어 가던 때의 일이다. 동부도이쾰란드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사람들은 베를린에

서 모스크바행 국제열차로 우리를 떠나보내면서 뿔스카령토를 지나고 브레스트에 가닿게 되면 쏘련국경세관사람들이 열차에 올라 와서 증명서와 손잡들을 검사하고 소지해 가지고 온 외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것이라고 하였다. 마르크나 루블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비록 몇푼 안되더라도 시끄러움을 당할수 있는것만큼 《네프》(《없다》는 뜻)라고 대답하면 무사히 넘어 간다고 알려 주었다.

국제열차가 브레스트역에 와닿고 세관사람들이 외화유무를 물었을 때 우리모두는 《네프》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유독 대표단 단장인 석윤기만은 《에스찌》(《있다》라는 뜻)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열차에서 내렸다.

우리는 한시간나마 기다렸으나 그는 돌아 오지 않았다. 웬일일가 하고 걱정들만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 동안에 덜컥소리를 내며 오래 멎어 서 있던 열차가 떠났다. 별일이 아니니 무사히 돌아 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는 퍼그나 당황해 졌다. 브레스트에서 단장선생을 잃어 버린채 우리만 조국으로 돌아 가게 된것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들속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고속으로 달리는 국제열차에서 여기저기 지급전보를 날리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잃어버린 석윤기단장을 찾아 내기 위한 맹렬한 탐색전을 벌렸다. 그러다가 거의 두시간 가까이 지나서 잃어 졌던 단장이 열절게 웃으며 우리들의 차칸에 스스럼없이 나타났다. 세관에 가서 얼마간 시끄러움을 당하다가 무사히 풀려 난 단장선생은 그만 열차를 헛갈려 와르사와발 모스크바행 열차에 올라 탔었다는것이다. 차칸마다 훑으며 아무리 살펴 봐야 우리가 보이지 않기에 로씨야인려객전무에게 서투른 로어 절반, 손짓 절반씩을 섞어 가며 알아 봤더니 베를린발 모스크바행 열차는 뒤로 따라 오고 있다고 친절히 대주더라고 하였다. 솔직성때문에 당한 봉변이었다.

우리는 세관사람들앞에서 다 《네프》라고 대답하였는데 도대체 무슨 망녕이 들어서 단장선생은 《에스찌》라고 대답했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어쭙게 웃으며 《안주머니에 십루블짜리 지폐 다섯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마 <네프>라고 하지 못하겠더구만.》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작가란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지는 고리끼의 말이 생각났다. 작가란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석윤기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작가적속성을 누구보다 질게 간직하고 있는 인간이었다.

생존시의 석윤기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숙원은 조국의 통일이었다. 남녘이 고향인 그는 항상 조국이 통일되어 고향땅에 가보고 그리웠던 혈육들을 만나볼것을 갈망하였다. 자기의 그러한 숙원을 담아서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남녘 남

자를 붙여 남주, 남진, 남연이라고 하였다.

주체61(1972)년 여름 7.4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의 일이다.

석유키네와 같은 현관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한 월북작가의 부인이 그의 집으로 뛰어들어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조국이 통일되면 평양의 본부인이 나타나겠는데 이제 자기는 평양을 뺏기고 어떻게 살아 가겠는가고 설분을 토하였다.

《그럼 아주머니는 조국통일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소?》

석유키의 격노한 물음에 그 부인은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석유키는 그 일을 두고 퍼그나 상심해 하며 며칠 골머리를 앓다가 그 부인을 불러 왔다.

《아주머니, 조국도 통일하고 그 집에서도 통합되는 방책도 있지 않겠소? 분별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정이요. 평양문제와 조국통일문제를 그렇게 리기적인 관점에서 보는것은 조선사람답지 않은 일이지요. 그것은 우리 수령님앞에, 온 민족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주시고 싶은 제일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통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소!》

석유키는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직결시켜 놓고 살았다. 창작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사심이 없었던 그는 자신을 항상 민족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고 민족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확고한 체현자였다.

그는 어느 나라에 가서나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이 제일이시고 우리 당, 우리 나라가 제일이며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것을 사리정연한 웅변과 자신의 실력으로써 과시하였다. 외국작가들 앞에서 석유키는 그 나라 고전작가들과 고전작품들에 대하여 그들자신보다 더 깊은 파악과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실증함으로써 그들을 놀래웠다.

석유키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유럽문학이나 유럽작가들을 높이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레브 톨스토이를 깊이 파악하고 그의 문학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로씨야문학일반에 대하여서는 별로 높이 여기지 않았다.

볼고그라드에 갔을 때 우리를 안내하던 이전 소련의 한 작가가 어느 무명작가의 작품 한책을 심심풀이 삼아 가면서 보라고 준적이 있었다. 석유키는 표제와 차례만을 대강 훑어 보고는 감사하지만 자기는 로어를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온전히 봐낼수도 없고 또 사전을 펼쳐 가면서 읽어 볼만 한 짚까지지는 없을것 같다면서 책을 되돌려

주었다. 귀로에 올랐을 때 우리가 너무 무안을 주지 않았을가 하고 우려하였더니 그는 단마디로 잘라 말하였다.

《우리가 3류급의 작품이나 대접 받아야 한다는 거요? 우리를 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레절을 차릴 필요가 없소.》

우리 나라 작가들의 작품에 대하여서는 그리도 존중시켰던 석유키는 외국의 작품이라면 무턱대고 숭상하려 드는 경향에 대하여서는 질색해 하였다. 그는 일부 몇몇 작가들과 평론가들이 외국 문학작품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격찬하는것을 보고 작가들은 제 뉘를 가지지 못하고 사대적인 근성을 가지게 되면 진짜로 좋은것과 나쁜것을 가릴줄 모르는 머저리가 된다고 준절히 타이르곤 하였다.

그는 자주 말하곤 하였다. 조선의 작가는 조선의 뉘를 가지고 조선의 얼굴을 가진 작품을 써야 한다. 외국의 어떤 작품이 좋다고 하여 그것을 흉내내어 좋은 작품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재능은 흉내내지 못한다. 톨스토이를 모방하는것으로 톨스토이를 롱가할수는 없다, 가장 조선적인 성격을 그리고 가장 조선적인 생활을 반영하며 가장 조선적인 향취가 나는 문제로 참다운 우리 식 특색을 가진 작품을 만들어 내는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어 내는 길이며 톨스토이도 롱가하는 세계적인 걸작을 창조할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석유키는 평생의 야심작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기념비》를 시작하려다 만채 아쉽게도 신아홉살에 세상을 떠났다. 한해반만 더 생존하였더라면 《기념비》도 초고는 능히 탈고하여 유고로 남길수 있었으련만 야속하게 병마가 그 희귀한 재사를 쓰러뜨렸다.

그무렵에 나는 지방에 내려 가 생활하고 있었다.

주체78(1989)년 3월 말에 전국작가강습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평양에 올라 온 나는 거의 3년만에 석유키선생택으로 문병을 갔다. 그가 운명하기 한달전의 일이다. 나는 병이 너무나 위중해 저서 병원에서는 더는 살려 낼 가망이 없기때문에 그를 집에 내보내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가족들속에서 유지하다가 마치고록 하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그가 병상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누워 지낼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정작 집안에 들어 가보니 잠옷바람으로 책상에 마주 앉아 글을 쓰고 있다가 미처 만년필을 손에서 놓지 못한채 별떡 일어 나며 나를 맞아주었다. 여기저기 검버섯이 돋은 수척해진 얼굴에는 병색이 짙었지만 표정은 신기하리만치 밝았다.

《아니, 그 몸에 뭐 지금도 글을 쓰십니까?》

나는 놀랄수밖에 없었다.

《아직 살아 있으니 써야지, 쓴다는것은 살아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불사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한다면 그때 내가 본 석운기의 모습과 같았을것이다.

《죽기전에 두번째 원고몽테기까지는 마무리지어야 하겠는데... 그래야 당앞에 면목이 설텐데... 내 옆구리에 붙은 종물이라는 놈이 후하게 시간을 연장 해 주지 못할것 같애.》

그는 미구에 닥쳐 올 죽음에 대하여 태연하게 말하면서 더 많이 일할수 없는것만을 안타까와 하였다.

《그건 그렇고 소문으로 듣자니 그 집 막내가 거기 내려 가서 몸쓸 병에 걸렸다면데 사실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나.》

그는 자신이 사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리 집 아이의 건강과 나의 생활에 대하여 걱정해 주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한 다음 손수 커다란 고뿌에 부어 주었다. 그의 앞에는 고뿌가 놓여 있지 않았다.

《내가 평생 술을 그렇게 즐겼는데 지금은 한 방울도 입에 뱉수 없이 뱉어. 싫어 졌지. 혼자 마시라구.》

그는 술도 무척 즐겼고 또 많이 마셨다. 그러던 그가 한방울의 술도 마실수 없게 되었다는 슬픈 사실 앞에서 나는 가슴이 저려 들었다.

《어서 들라구. 나를 위해서 들라구. 나는 지금 술을 들수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술을 드는걸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 질것 같애. 내가 담것 술을 들수 있었던 지난 날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갈마들기때문이겠지. 자 어서!》

나는 더이상 그가 쥐어 주는 술고뿌를 내려 놓을수 없었다. 나는 눈에서 줄줄이 쏟아져 고뿌에 흘러 드는 눈물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가 다문 몇달이라도 더 살아 있기를 바라면서 마셨다.

헤여질 때 그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다.

《부디 나처럼 앓아서 단명하지 말구 건강해서 나랑 못다한 일을 대신해 달라구.》

나는 그후 다시 문병을 가지 못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얼마전에 석운기선생의 부인을 만난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부인은 이런 말을 들려 주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달전인 설명절날에 있는 일이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명절날이면 인정 많은 단장 석운기와 그의 부인을 찾아 그의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흥성거리었다.

이날 석운기는 이제 다시는 내가 작가들과 마주 앉을것 같지 못하니 손님 맞을준비를 잘하라고 어느때없이 《잔소리》를 하더라는것이였다.

이날 창작단과 작가동맹의 작가 열댓명이 찾아왔다. 그 어느때보다 성의 있게 차린 음식상 앞에서 그들모두는 이상야릇한 감정을 느끼였다. 한것은 석운기가 매 술잔마다 자기가 직접 술을 부어 주면서 자기의 술잔에는 술을 붓지 않는것

이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술 마시기가 힘드니 지난 시기 주량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던 자기 뿔까지 다하여 마음껏 마시고 즐기라고 하였다는것이였다.

이것이 그가 생존시에 작가들과 한자리에서 성찬을 벌린 마지막날이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녀탈을 넘기지 못하였다.

내가 지방의 로동현장에서 내려 가서 로동소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있을 때 맨 먼저 편지를 보내여 나를 고무격려해 주고 힘을 준 사람이 다름아닌 석운기였다. 로동단련을 하던 1년반사이에 그는 두차례나 편지를 보냈고 또한 두번에 걸쳐 사람을 보내 나의 생활까지 보살펴 주었다.

그는 뜨거운 사랑과 의리를 지닌 사람이였다.

경상동의 작가살림집에서 살던 젊은 시절에 우리 집에서 별것은 아니지만 부부싸움이 벌어져 《소란》을 피운적이 있었다. 사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석운기는 안되었던지 부인을 우리 집에 보내여 《랭전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화해시켜 주었다. 그때 부인 립정아녀성은 자기들의 젊은 시절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총각으로 지내던 병사시절에 오늘날의 남편이 7년동안이나 자기를 지긋게 쫓아 다니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생긴데도 없고 군공을 세운것도 별로 없는데다 장기환자로 전상자병원의 침대살이를 하는 주제에 그 무슨 사랑이라는 병에까지 걸려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는 영예전상자가 미모의 처녀통신병한테는 눈에 차지 않더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미모의 처녀는 결국 일곱해만에 기꺼이 그의 안해로 되는데 동의했다는것이다. 아니 그 스스로가 자기를 안해로 받아 들여 줄것을 간청하였다. 7년세월을 변함없이 나날이 뜨거운 사랑을 더해준 그 불 같은 심장에 매혹되어 버렸기때문이라는것이다. 사람들에게 대한 석운기의 사랑은 그같이 진할줄 모르는 지긋은 사랑이였다.

나는 지금 우리 소설문단에서 단편소설에 쟁기 있는 작가로 손 꼽히우는 한 소설가의 파란곡절에 찬 인생행로때문에 석운기가 여러차례나 속상해 하던 일을 잊을수 없다. 복잡한 사회정치적인 주위환경으로 인하여 그가 문학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 질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가게 될적마다 석운기는 그의 운명에 더욱더 짙은 그늘이 지고 그의 문학수업에 좌절의 순간이 닥쳐들가봐 걱정하면서 눈물이 글썽해 지곤 하였다. 그러다가 끝내는 자기의 정치적생명까지 내걸고 그 문학도를 정치적으로 보증해 나섰다. 그 작가는 지금 지방에서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역시 석운기선생에 대하여 일생토록 잊지 못할것이다.

마지막병상에서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심한 관심을 돌리던 그와 헤여진 다음 한달이 지나서 나는 해안거리에 자리 잡은 책방으

로 가다가 화성기에서 울려 나오는 방송을 듣고 석윤기선생이 서거하였다는 비보를 접하였다. 파도가 철썩 이는 해안방파제로 나가 앉아 눈물을 닦아 내고 역전체신소에서 유가족들에게 조의전보를 올려 보내었다.

거의 한해가 지나서 다시 평양에 걸음하게 된 기회를 타서 선생덕으로 조의방문을 갔을 때 나는 부인한테서 선생이 운명하기 하루전에 유언을 남기었는데 그 유언가운데는 지방에 내려 가 있는 《김책사람》을 꼭 원래의 자리에 데려다 놓고 하던 창작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당부도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운영하는 순간에조차 불민한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 준 석윤기선생의 사진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 이듬해 봄에 나는 본래의 초소로 되돌아 왔다.

남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은 나이보다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인민을 위해, 주체혁명위업을 위해, 수많은 독자대중을 위해, 동시대의 작가들과 미래의 작가들을 위해 그리 길었다고 할 수 없는 삶과 뜨거운 심장과 거대한 재능을 깡그리 바친 석윤기는 자기의 나이보다 퍼그나 더 오래오래 살게 될것이다.

평양교외의 신미리에국렬사릉에 안치되어 있는 유명렬사들의 대오속에는 작가 석윤기도 있다. 은혜로운 장군님의 보살핌속에서 그는 영생의 언덕우에 서 있다.

석윤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기억속에서도 영생하고 있다.

주체85(1996)년 4월 2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할 데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좌석에서도 실력전을 잘벌리면 그 과정에 재능 있는 작가, 예술인들이 많이 나올수 있다고 하시면서 뛰여 난 실력과 재능으로 문학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한 천세봉, 리면상 등과 함께 석윤기를 상기하시였다.

그리고 주체87(1998)년 10월 애국렬사릉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석윤기의 생전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돌사진을 정겹게 응시하시면서 그를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해마다 초여름이 다가오면 창작단청사 뒤쪽에 있는 아름다운 후원에는 단벚나무와 살구나무같은 울 과일나무들이 적지 않아서 단벚이나 살구들이 빨갛고 노르스름하게 익고 늦가을이면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게 한다. 그것들은 특히 아이들을 유혹에 빠지게 한다. 하여 울타리를 넘어 오는 기습자들이 적지 않게 생긴다. 기습자의 대부분은 집단체조랑 많이 해보

아서 한길이 넘는 쇠살창 울타리쫓은 식은 죽 먹기로 넘나들줄 아는 중학생아이들인데 간혹 소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조무래기들도 끼여 드는 때가 있다.

그때가 주체86(1997)년 6월 바로 단벚과 살구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 가며 매력적인 빛갈과 향기를 발산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후원에 산보를 나갔다가 비정상적인 현상을 목격하였다. 기습자가 들이 닥치면 과일나무들에 손상을 주기때문에 무턱대고 쫓아 버리곤 하는 관리원이 그날의 코흘리개기습자에게만은 특혜를 베풀어 자기가 탄 과일열매들을 듬뿍 안겨 주는것이 아닌가! 그것도 제일 크고 호합진 열매들을.

그 레외적인 특전을 베푸는것을 보고 놀라와하는 나에게 관리원은 변명 삼아 설명하였다.

《이 애가 글썽 석윤기단장선생의 외손자라지 않습니까. 요 꼬꼬만게 어떻게 저 높은 울타리를 넘어 왔는지. <너 어찌자구 여게 들어 왔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심은 양벚 먹어 보구 싶어 들어 왔다는거지요. 너의 할아버지가 누구시냐고 물으니 <서균기>라는거지요. 돌아가신 단장선생님앞에 죄를 짓는것 같아 이 애만은 쫓지 못하겠더군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야 거의다 그 선생님님이 단장으로 계실 때에 심고 가꾼것들이 아닙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이 애가 여기에 숨어 들어 오게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나더구만요. 그 단장선생님은 이 나무들에 달리는 열매들을 맛 보지 못하고 돌아 가셨기에 손주라도 맛 보라구...》하며 손수건으로 눈언저리를 훔치는것이였다.

그날 나는 그 관리원에게서 석윤기에 대한 애뜻한 몇가지 추억담을 들었다. 석윤기단장은 해마다 년말이면 자기 같은 신입로동자들까지 자기 집에 초청해다가 송년회에 참석시켜 주었다고, 그가 욕질 하는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고, 온실에 와서 단장실에 놓을 화분을 골라 놓고서도 운반해다 드리면 미안해서 찢찢 매더라고...

석윤기는 자기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창작단의 울타리를 몰래 넘어 숨어 드는 외손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외손자는 외할아버지를 알며 애어린 처녀로 입직하였던 정원관리원은 중년이 되도록 초대단장을 잊지 못해 하며 석윤기를 만난적이 없는 창작단의 새 성원들도 다 그를 외우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문학애호가들과 애독자들 역시 석윤기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잘 아시고 온 나라 사람들이 아는 석윤기는 그래서 이렇게 영생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것이 작가의 영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류다른 추억

김용희

애국렬사릉에 오르시여  
돌사진에 새겨 진 사람들의 그 모습  
한사람 또 한사람 새겨 보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 가시던  
아버이 우리 장군님

한장의 돌사진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여라  
박석화  
1930년생...

준엄한 전화의 그날  
포연을 헤치며 먼 길을 찾아 왔던 그  
한상의 사진을 찍어  
우리 당력사에 남기고 간 사람  
세월은 흘렸어도 잊을수 없으시여라

그 어느 날이었던가  
그 어디서 구해 온것인지 몰라도  
새옷 한벌을 내놓으며  
전쟁이 아무리 잔고하다 해도  
그런 옷 입고 지내시면 안된다고  
어서 바꿔 입으라던 사람

어머님이 살아 계신다면  
절대로 그런 옷 입고  
지내게 하실수는 없다고  
눈물이 글썽해 하던 사람

우리 수령님 아신다면  
곁에 있는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신발도 내놓으며 조르던 사람

정말 의리가 깊은 사람이라고  
살아 있다면  
그때의 일을 두시고  
손목이라도 뜨겁게 잡아 주고 싶으시여  
쉬이 걸음을 떼지 못하시여라

하나 그 청은 받을수 없어  
다른 원아들과 함께  
허름해 진 그 옷 그 신발을 신고  
지내시던 전화의 나날을  
방불히 안겨 주는 사진을 찍었던 사람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38년이란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한장의 그 사진을 받아 보시며  
-이 사진이 어디서 났습니까?  
묻고 또 물으시던 우리 장군님

그가 대답하는것만 같으시여라  
-장군님! 실은 제가  
제 목숨과 같이 간수해 오다가  
너무나 늦게야 내놓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 누구에게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상의 사진  
전화의 불길에 거뭇게 그슬은  
그 어느 집 토담벽앞  
동생의 손목을 다정히 잡고  
서계시는 장군님의 그 모습

아 잊지 못해라  
어제 날의 전사는 오늘도  
그처럼 수수하게 지내시던  
인민의 아들 우리 장군님을 모신 영광을  
우리 장군님은 어제날의 그 전사  
류다른 추억을 안고 지켜 보시여라

뜨거운 마음이 굵이치는  
애국렬사릉이여!  
너는 그 얼마나 하많은 사연  
이 세상앞에 전하고 있는것인가

이것은 전설 아닌 사실 그대로임을  
오늘도 새겨 주고 있어라  
오늘도 안겨 주고 있어라



## 주인공을 찾아 몇천리

로정법

취재란 자기 작품의 주인공이 될 사람과 사귀고 친숙해 지고 나중엔 그한테 반해서 그에 대해 쓰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얻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새 동무, 새 선생, 새 사랑을 얻기란 험치가 않다.

훌륭한 일을 하고도 작가가 찾아 가면 취재를 회피하거나 잘 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지난해 언제인가 어느 군에 취재를 나갔다가 이런 난처한 질문을 받은적도 있었다.

《소설을 쓰신다지요? 어떤 소설을 쓰셨습니까?》

작가의 회색한 머리를 기대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묻는 말이다.

《쓰느라 했지만 뭐 별로 동무의 기억에 남을만한 소설은 없습니다. 그런 소설을 써볼까 해서 동무를 찾아 왔으니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요즘 대동강맥주소문이 대단하던데 평양시민들이 참 좋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평양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함경북도 어랑에서 왔습니다.》

《어랑이요? 어랑에도 작가가 있었는가...》

말꼬리가 길게 끌다 쑥 잦아 드는걸 보니 기대가 어그러진다는 기색이 분명하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과장동무, 이 선생한테 숙소를 잡아 주고 취재조건을 보장해드리오. 선생, 무슨 애로가 있으면 이 과장동무를 만나면 됩니다. 해결해 드릴겁니다. 자, 그럼...》

《난 애로가 있어 찾아 온것이 아니라 바로 동무를 알자고 왔습니다. 좀 깊이 사귀여 볼까 해서 말입니다.》...

작가로서의 뚜렷한 제 얼굴을 못 가지고서 작가신분증을 내들기란 참으로 벅찬 노릇이 아닐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또 상대가 훌륭한 사람일수록 더 그러하다.

언제인가 부모 잃은 두 학생의 어머니로 되여준 청진시 수성중학교 최순란교원을 찾아 가니 그는 울먹울먹해서 당보와 중앙텔레비죤에서도 왔었는데 작가선생이 또 왔다면서 몸둘바를 몰라 하였다.

내앞에서 그저 어쩔줄을 몰라 하는 소박한 녀성교육자와 마주 섰을 때 나는 《어랑에도 작가가 있었는가》하는 말을 들을 때보다 더 바빴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었을 때 녀교원이 이렇게

물었다.

《지금 선생님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데 벌써 머리가 그렇게 희었습니까. 하긴 소설을 쓰시는분이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머리가 센 것이라면 아직 이려고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의 기억에 남을만 한 소설 한편 못 쓰고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먼저 주인공에게서 진지하게 배우며 꾸준히 사상수양을 쌓아나아가야 한다.》**

어느 해인가 나는 원고지 100여매 정도의 실화문학 한편을 쓰기 위하여 당시 내가 살던 함경남도 락원군에서 주인공의 고향인 황해북도 황주군으로, 평양으로, 혜산, 김정숙군, 리명수, 삼지연, 백두산에 이르는 수천리길을 반복해서 오가야 했던 일이 있었다.

그 실화문학을 쓰는데는 한 열흘가량 걸렸지만 나는 그 열흘을 위해 한달나마 주인공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가끔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작가생활을 하면서 그때처럼 취재에 애를 먹어 본적이 없었다. 하긴 100여매의 원고에다 댈수 없는 소득이 많았던 작가수업의 나날이었다고도 생각된다.

작가동맹에서 백두밀영고향집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 답사자들을 기쁘게 해준 로력영웅 김경복을 취재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래서 출장준비를 간단히 해가지고 그를 찾아 떠났다.

출장준비라야 무더운 여름철이여서 갈아 입을 옷 하나, 속내의, 차칸이나 려관방에서 읽을 소설책 한편과 잡지 서너권이였다.

마침 김경복이 황철에 와 있다니까 얼핏 가서 만나보는데는 한 열흘쯤이면 끝낼것이라고 읽을책도 러비도 그 정도에서 준비하였다.

황철에 가니 그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김경복의 고향 황주군 삼전리를 찾아 갔다.

철길과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농촌마을이였다.

강에서 미역을 감다가 나의 안내자로 나선 발가숭이 총각애를 따라 줄당콩넌줄에 가리워진 자그마한 기와집으로 들어 갔다.

예순살 전후로 보이는 김경복의 어머니가 돼지 우리의 두엄을 쳐내다가 나를 맞아 주었다.

나의 어머니를 생각해 하는 정이 가는분이였다.

인차 리진료소에서 일을 본다는 김경복의 아버지가 달려 왔다.

로친보다 좀 가벼워 보이는 령감이였다.

그는 삐딱문을 열고 들어 서기가 바쁘게 나한테 손을 내밀며 《중앙에서 부원동지가 내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경복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였다.

그러니 경복이가 집에도 안 들린 모양이였다.

로인은 내가 두번씩이나 작가라고 했는데도 그냥 부원동지, 부원동지하였다.

로친이 듣다 못해 혀를 차며 《작가선생이라 하질 않소.》 해서야 《오, 난 또.》 하며 이번엔 좀 서운한 눈길로 나의 아래우를 슬쩍 훑어 보았다.

알고보니 김경복의 일로 해서 중앙이나 지방기관의 일꾼들한테서 드문히 전화가 걸려 오는 모양이였다.

이 령감한테 작가가 아니라 《부원동지》가 있어야 더 반가와 할걸 그랬군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우리 그 사람은 끝장을 볼거요. 내 성미가 그랬소.》

령감이 한손을 뺨 내리우며 단언하였다.

로친이 바빠 맞아 《령감은 또 그런 쓸데 없는...》 하며 혀를 찼다.

참으로 재미 있는 로인량주였다.

식구는 경복이 아래로 남동생 하나, 녀동생 셋 해서 일곱인데 이제는 제 뿔뿔이 날아 가서 집에는 현재 늑은이 량주가 고적하게 살고 있었다.

김경복의 남동생이 형보다 먼저 제대되었는데 복무기한이 지나도록 군사복무를 그냥 하고 있는 형을 기다리다 못해 장가도 먼저 가서 세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하였다.

언제인가 도당의 한 부원이 집으로 찾아 오고는 크게 손님이 없었는데 그 먼 함경남도에서 내가 왔다면서 로인 량주가 맞잡고 룡망질을 해서 저녁상에 뜨끈뜨끈한 순두부를 올려 놓았다.

저녁을 먹고서는 사진첩구경을 하면서 김경복의 낯도 익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어머니가 참으로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휴가를 왔던 김경복이 어머니가 기르는 돼지를 부러워 하였다. 며칠 있으면 새끼를 낳게 되는 송아지만 한 암돼지였다.

《우리 중대에도 저런 어미돼지가 하나 있었으면...》

그래서 결국 모자가 그 돼지를 앞세우고 중대로 떠나게 되었다. 만삭이 된 돼지를 차에 실으면 락태한다고 슬슬 얼려서 걸리우게 된 것이었다.

하루길이면 된다고 해서 떠났는데 사흘이 걸렸다. 처음에는 잘 걷던 돼지가 자주 드러눕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자 가지고 가던 돼지사료까지

다 떨어 졌다. 도중식사도 마찬가지였다.

배가 고프다고 돼지는 길게 자빠져서 일어 나지도 않았다. 할수없이 김경복이 멀리로 보이는 읍거리를 달려 가 빵을 한배낭 사가지고 왔다. 사람이 빵을 한두개 먹는 사이에 그놈이 한 배낭을 다 먹어 치웠다.

땅에 배를 철철 끌며 걷는 돼지가 더위를 먹을 것 같아서 이번엔 국수를 한바께뜨 받아 가지고 뛰어 왔다. 주인들은 골숨하게 한사발씩 덜어 내고 바께뜨채로 내맡겼다. 그래도 적다고 투덜거렸다.

나중엔 아들의 전우들한테 주자고 어머니가 따로 준비했던 음식까지 말짱 빼앗겼다. 밤에 자지도 않고 너무 못되게 굴어 술까지 한고뿌 받쳐서...

사흘만에 돼지는 중대가 저 멀리서 바라보이는 산기슭의 덩불밑에서 12마리의 탐스런 새끼를 낳았다.

그 소식을 듣고 중대원들모두가 《어머니!》, 《경복동무!》 하고 부르며 달려 와 어머니한테도 아들한테도 돼지한테도 꽃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김경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초상이 어지간히 그러 지는 이야기였다. 그런 아들이 제대되어 온것은 2년전이었다.

량강도혁명전적지관리국에 배치를 받았으면서 한주일가량 집에 있다가 백두산으로 갔다.

《어머니, 지난해에 전우들과 같이 백두산담사를 가면서 고향집 뜰앞에다 심자고 불멸의 꽃 **김정일** 화화분을 정히 안고 갔는데 전적지관리소의 한 일꾼이 백두산의 기후가 **김정일** 화의 생육 조건에 맞지 않아 연구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제라도 해보자고 거기로 배치를 받았습시다. 집안의 만이로 부모님을 모셔야 겠지만 어머니, 저를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가서는 아직 집에도 한번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8월의 농촌이라 모기가 많아서 로인 량주와 한모기장안에 나란히 누워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경복의 어머니가 집에서 늘 나를 기다리시는 어머니로 생각되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남포 우산장창작실에 여러달 가 있다가 함경남도 락원에 있는 집으로 가던 날 전보를 쳤습시다.

<중편소설 완성. 어머니, 래일 3렬차로 떠납니다.>

역에 어머니가 세 아이를 다 데리고 나와 계셨습니다. 물론 처도 나왔지요.

방안에서 벌벌 기여 다니는 막내이를 보고 떠났었는데 마중을 나온 애를 보니 경충경충 뛰어 다니겠지요. 내가 오라니까 슬슬 피해서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부여 잡았습니다.

<아버지다, 애야.> 할머니가 그래서야 어색하

게 나한테 안겼지요.

<소설을 완성하고 왔다지. 수고했다.>

소설 한편을 쓰고 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 하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기뻐 하시게 내 경북동무에 대한 글을 잘 써보겠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며 경북의 어머니가 소리없이 울었다.

훌륭한 자식을 둔 어머니만이 저렇게 울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흐느낌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내가 이제 쓰게 될 소설의 글줄마다에 그윽하고 진하게 흐르는 정서를 예감하였다. 아직은 주인공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수 없으나 예감되는 그 정서는 분명 소설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작가선생이 남갈질 않고 우리 경북이 형님처럼 생각되오. 우리 그 사람을 만나면 우선 장가부터 들라고 작가선생이 말 좀 해주. 좀 알아 듣게 깨우쳐 주시우. 장가를 들어 놓고 그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소. 내가 보아 듣 처녀는 있으니까 제격 와서 장가를 들던가 또 제게 마음 드는 처녀가 거기 있으면 데리고 와서 상이나 받아 놓은 다음엔 작가선생처럼 2년 이고 3년이고 내키는것 나가 다니라고 하시우. 작은머느리한테는 지금 또 태기가 있는것 같소. 그런데 말이라는 우리 그 사람은 서른여섯살이 돼오도록... 작은머느리 보기가 부끄럽수.》

《무슨 사상성이 없는 그런 말을 자주 하오? 부원동지앞에서... 사내가 한번 결심하고 나섰으면...》

아버지가 꽤 큰 소리를 쳤다.

《스물네살에 장가를 든 령감이 무슨 큰 소리요?》

로인량주가 다투기 시작하였다.

나는 어머니편이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어머니, 경북동무를 만나면 꼭 장가부터 들도록 말하겠습니다. 이제야 큰일을 해놓았는데 본인도 생각이 있겠지요.》

결국 김경복을 만나자고 찾아 갔던 내가 우리 경북이 지금 어디 있는지, 배를 꿰고 다니지나 않는지 작가선생이 수고스러운대로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를 떠나야 하였다.

경복이를 만나면 전해 달라고 얼마간의 현금과 간식주례미를 들고서 어머니가 멀리까지 나를 바래주었는데 헤어질 때 와서는 늙은이의 눈시울이 불깃해졌다.

《어머니, 내 그 사람을 만나면 꼭...》

이런 말로 로인을 위로하고 헤어졌다.

벌써 비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호젓한 달구지길을 걸어 가면서 나는 이제 만나게 될 김경복 당자보다도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

니, 이 나라의 소박하고 정 깊은 어머니들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뒤돌아 보니 아직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연한 계기에 김경복을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그의 기특한 마음을 높이 사주고 그한테로 지원품을 가지고 벌써 백두산에 두번씩이나 다녀 온바 있는 송림시 급양관리소 지배인이 김경복이가 지금 평양식물원 김정일 화온실에 가 있을거라고 하였다.

거기서도 김경복을 만날수는 없었으나 그한테 꽃나무가꾸기를 처음부터 배워 주고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고 있는 연구사동무가 평양역에 가면 김경복의 행처를 알수 있을거라고 하였다.

역보안원들도 김경복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여사모사한 건으로 그를 단속했는데 알고보니 사람도 좋고 참으로 좋은 일을 하는 동무여서 모두가 그를 도와 나서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도 식물원에 가서 가는 꽃모가 상하지 않도록 열차 수화물칸의 자리까지 골라 잡아 주고 가면서 잘 도와 주라고 승무보안원동무한테 부탁을 해두었다 하였다.

《경북동무를 어디 가야 만날수 있을까요?》

《글쎄 자기도 혜산에 가보아야 안다고 했습시다. 꽃모를 여러군데로 보내게 되는것 같아요.》

《열정가지요. 필필 나는 청년입니다.》

나는 기차를 타고 김경복을 따라 가면서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인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지극하고 구체적인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것은 가슴이 설레이는 생각이어서 이제 쓰게 될 작품의 글줄들도 그렇게 설레이게 될것만 같았다.

차칸이 어지간히 복잡하고 무더웠지만 작가적인 충동으로 설레이기 시작한 나의 마음을 괴롭히지는 못하였다.

평양발 혜산행 급행열차가 길주를 떠날 때는 차칸이 좀 험해 졌다. 그때에 와서야 나는 차 손님들의 옷차림이 달라 졌음을 알아 보았다.

함흥까지 올 때는 그런대로 여름옷을 입은 사람도 많았고 대체로 손님들의 옷이 희거나 밝은 색깔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두가 검정색, 진곤색, 쥐색 등의 차림으로 변해 버린것이였다.

평양에서부터 내내 나의 옆자리에 앉아 동무해 오던 녀인도 어느 사이에 옷차림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 녀인이 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얼굴이 화끈하였다. 하긴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였다.

바로 우산장창작실에서 폐의 그 중편소설을 끝내고 집으로 오던 때도 8월이였는데 그때는 또 집에서 떠날 때 입고 갔던 겨울옷차림이였었다.

숨옷과 숨신을 벗어 넣은 뽕뽕한 배낭을 둘러메고 그 더운 날에 어두운 색깔의 옷차림으로 기차에 오르려니 누구인가 나한테 증명서를 좀 보

여 달라고 하였다. 그때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신분증을 꺼내들수 있었다. 그랬더니 후에 따라 들어 와 아직 앉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나한테 다 자기의 옆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그때는 마치 포연에 그슬고 잔등에 소금기가 내뿜 군복차림으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 가는 전선군인의 긍지 비슷한 그런것이 있었기에 손님들의 눈길이 나한테로 쏠려 와도 부끄럽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물으면 대답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어느새 봄이 가고 여름이 온것도 몰랐구려. 쓰는데 미쳐 버리면 그런거라오. 그래서 창작은 아름답고 비참히 힘들고 놀라운만치 즐거운 로동이라고 했다오.》라고...

기차가 하늘아래 첫 동네인 백암령에 올라 섰을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몸이 으슬으슬 떨려 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차림으로 량강도땅 아직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김경복을 따라 갈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속이 덜컥하였다.

첫 새벽에 해산역에 내리니 백암령에서와 못지 않게 몸이 떨려 났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내가 열대지방에서나 온것처럼 완전히 놀라와 하는 눈길을 감추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벌거벗고 네거리에 나선듯 그들을 보기가 창피하였다.

출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작가동맹 량강도 창작실을 찾아 뛰었다.

처음 가보는 고장이었다. 해산창작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몰라 여기저기로 찾아 다니면서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참 덜통한 사람임을 쓰겁게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이번 출장준비도 그렇고 우산장에서 늘 같이 살다싶이 하던 해산작가동무들한테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창작실위치나 미리 알아 두었다라면 첫 새벽에 남의 집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런 미안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것이 아니었던가.

창작실을 겨우 찾아 갔는데 마침 동년배의 소설가가 밤 새워 글을 쓰다가 집으로 들어 가려는 참이었다.

그가 나의 말을 듣고는 억이 막혀 웃으며 《그러니 주인공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방대고 따라 왔군.》하였다.

《해산에 오면 알거라구 하더군. 어제 차로 왔다가. 리명수가 아니면 신파, 그가 갈수 있는데를 몇 군데 적어 주던데...》

《그러다간 백두산까지 따라 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있다가만 하면야...》

《그런 차림으로?! 엉터리야, 엉터리...》

그리고는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가 밤색양복을

내주었다. 나한테는 팔소매가 약간 작을사 했지만 별도리가 없었다.

거울앞에서 서성거리는 나를 보며 자꾸 입을 싸쥐고 웃기만 하는 소설가의 안해한테서 럽치불구하고 바지까지 달래 입고나서 다시 《추격》의 길에 나섰다.

《그렇게 덤비지 말구 전화로 행처를 알아 보세나. 여기 번쩍 저기 번쩍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리명수에 가 있는지 백두산에 가 있는지 세멘트때문에 어느 공장에 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나. 황해도에서 량강도에까지 쫓아 오면서도 못 찾은 사람을 쉽게는 만날 생각을 말게. 집을 떠난지 며칠인가?》

그 질문을 받고서야 나도 깜짝 놀랐다.

《이거 참 맹랑하구만, <여름>에 떠나 <겨울>까지 따라 오면서도 <서방님>의 얼굴조차 보질 못했으니...》

리명수립산사업소에 알아 보니 2~3일후에 경북동무가 거기에 올지 모른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립산로동자구의 한직한 려관에서 3일을 기다리며 해산농림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리명수립산사업소에서 현실체험을 하고 있는 대학생동무한테서 김경복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깊은 밤, 지함에다 어린 꽃모를 정히 포장해서 량손에 무겁게 든 청년이 려관의 문을 두드렸다. 접수구의 처녀가 자던 눈을 비비며 문을 열어 주었다. 처녀는 먼저 지함의 꽃모에 환성을 질렀다.

백두밀영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피우기 위하여 우선 이 지방에서 재배시험을 하기 위해 왔다는 청년의 말에 처녀는 더욱 반기며 그를 귀빈실로 안내해 주었다.

처녀의 각별한 관심속에 경복은 온실 몇평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로 뛰었다.

처음 그의 말을 듣고는 모두가 머리를 끄떡끄떡하였다. 하지만 그가 연구사가 아니란걸 알고는 미덥지 않아 하는 기색이었다.

날이 지나면서 그 미덥지 않아 하는 눈길이 의심스러운, 수상한 사람을 보는듯 한 눈초리로 변하였다.

저녁 늦게까지 뛰어 다니다 려관으로 들어오니 보면 불적마다 그렇게 반가와 하던 접수원처녀조차 이전과는 좀 다른 눈으로 보는것 같고 왜 그런지 좀 딱해 하는 눈치였다.

짙이는바가 있어 몰었다.

《동문 나를 평양식물원에서 온 연구사로 생각한건 아니요? 그렇지요? 그래서 호실도 귀빈실로 주구...》

그리고는 얼른 호실에서 짐부터 들고 나왔다.

《일반호실로 가겠소. 공연히 동무만 딱하게 만든것 같소.》

그러자 처녀가 더욱 당황해 하였다.

이 지방의 붓나무를 련상시키는 깨끗하게 썩 빠진 미모의 처녀였다.

《그냥 계세요. 귀빈실이 따로 없습니다. 좀 조용한 방으로 드리구 다른 손님을 넣지 않았을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이 방에도 손님을 넣어 주시오.》

바로 그날밤에 보안원이 러관으로 경복이를 찾아 와서 우선 배치지로 가서 입직수속부터 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러는 사이면 평양에서 애 써 날라 온 이 꽃모가 어떻게 되겠는가...

보안원도 더 다른 말을 못하였다.

하지만 그가 해내리라고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한입 두입 소문이 나서 김경복이 마을에 나타나면 아낙네들이 의아해서 머리를 기웃하니 내밀고 아이들이 줄줄 따라 다니며 이상스레 입을 비죽거렸다.

그 소문을 들은 리명수림산사업소에 현실체험을 나와 있던 대학생들이 김경복을 찾아 왔다.

그들은 처음부터 김경복의 말을 믿어 주었고 공감하였고 백두산을 가까이에 두고 살면서 황해도사람보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지 못한 자기들을 부끄러워 하고 자책하였다.

《경복동무, 우리 립산사업소로 갑시다. 숙식도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동무가 원하는대로 온실을 꾸려 주겠소.》

그들의 방조속에서 시험재배가 좋게 끝났을 때 김경복은 확신을 가지고 이번엔 백두산으로 자리를 옮기겠노라 하였다.

《**김정일**화온실을 짓겠소. 216평짜리.》

《좋은 생각인데 맨손으로 어떻게 짓겠소? 건설 계획에도 없다는데...》

《헐치 않겠지. 하지만 짓고야 말겠소. 이젠 나의 당적량심이요. 관리소에서도 적극 밀어 주겠다고 하오.》

그때부터 김경복은 참으로 안 가는데가 없이 동분서주하며 뛰었다.

시, 군당책임일꾼들의 사무실 문도 두드리고 들어 갔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철도분국 책임부원을 길목을 지켜 섰다가 마주 가기도 하였다.

유리때문에 남포로 뛰었고 비닐박막때문에 안주로 뛰었다.

끼니도 드문히 번지면서 설새없이 뛰어 다니다가 백두산으로 들어 가는 인적이 없는 길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마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정숙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이 중태에 빠진 그를 실고서 그 길로 곧장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보내었다.

얼마간 더 지체하였다면 생명을 잃을수 있었던

중병이었다. 병원의 이름 있는 박사가 그를 수술하였다. 입원의 날날에 김경복은 병동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 수십포기를 활짝 피워 직원들은 물론 환자들을 감동시켰다. 매일과 같이 꽃구경을 하러 사람들이 김경복이 입원한 호실로 찾아왔다. 김경복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경복의 일을 돕겠다고 병원이 나서고 환자들이 나섰다.

어느 한 공장에서는 김경복을 돕기 위한 당위원회가 열리고 책임일군이 직접 건설자재를 싣고 백두산으로 들어 왔다.

김정숙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재공급계획에는 없던 씨리카트벽돌 한차량도 그렇게 생겼다. 혜산철도분국 간부들까지 펼쳐났다. 태양의 꽃을 피우기 위한 이런 일에 무슨 계획이 따로 있고 예비가 따로 있으랴.

백두밀영속영각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이 김경복의 소원대로 216평짜리 온실을 번듯하게 지어 놓았다.

《허풍쟁이》로 인정되어 자그마한 산간러관에서까지 믿지 못하던 김경복에게 이제는 어디 가나 아는 사람들이고 도와 주려는 사람들이었다.

늘 색 날은 옷차림으로 다니는 그한테 옷을 지어 가지고 찾아 왔던 할머니도 있었다.

김경복은 그 할머니네 집에 꽃모를 안고 찾아가 그 붉은 꽃을 여러포기 활짝 피워 주었다.

그가 도움을 청하러 들어 갔던 군당책임일군의 사무실 창가에도 철도관리국 책임부원의 사무실에도 불멸의 붉은 꽃이 피어 났다. 그가 한번 들렀던 곳 마다 화분에 꽃모가 심어 지고 다시 한번 들릴 때면 망울이 부풀고 다시 들리면 방안에 붉은기처럼 붉고 붉은 소담한 꽃송이가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늘 백두산의 꽃, 붉은 태양의 꽃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피워 주려 애 쓰는 사람이었다.

그가 《꽃겨 났던》 러관호실의 양지쪽 창가에도 붉은 꽃송이가 소담하게 피어 났다. ...매출한 흰 붓나무를 련상케 하는 러관접수원처녀가 바로 그 창가에 서서 꽃앞에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수집계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러관에서 나간 그 동무가 립산합숙에 대학생동무들과 같이 있다는것을 알고는 너무나 부끄러워 머리를 들고 다닐수 없었어요.

늘 백두산을 바라보며 천지에서 흘러 내리는 물을 먹고 자라난 내가... 하는 자책에서였습니다.

<경복동무, 호실로 가지자요. 이제는 그 호실에 다른 누구도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내가 눈물을 보였던것 같아요. 무작정 그 동무의 배낭을 돌려지고 나왔습니다.

<고맙소, 접수원동무>

그때 그 동무가 안고 나온 꽃모가 지금 이렇게

피어 났어요. 그때부터는 늘 이렇게…》

처녀는 자기가 피운 꽃을 안고 래년 2월에 평양에서 열리게 될 **김정일** 화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였다.

래의 그 보안원동무의 방에도 그의 집에도 붉은 꽃이 활짝 피거나 망울을 터치고 있었다. 그 역시 어줍게 웃으며 《벗나무처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이 고장의 기상이고 정기인 이채로운 벗나무숲, 이깔숲을 바라보며 그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접수원처녀로, 보안원동무로, 대학생동무들로, 백두를 안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로 상상하였다.

백두밀영 속영각옆에 **김정일** 화온실이 완공되자 사리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경북의 녀동생들인 경희와 경월이가 온실관리원으로 자원하여 왔다.

그때 쓴 경월이의 일기가 있었는데 실레인줄 알면서도 읽어 보니 어린 처녀의 그 깨끗하고 열렬하고 가룩한 충성의 마음에 눈물을 금할수가 없었다.

김정숙군의 책임일군이 김경복을 자기 군으로 초청하였다. 자기 군에 짓기 시작한 **김정일** 화온실에 와서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경복이 김정숙군으로도 자주 다녔다. 리명수립산사업소에 온 대학생동무들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5일을 기다렸는데도 김경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는 그 5일간이 한달맛잡이로 길었다.

낮이면 몇명 안되는 길손들이 다 제 일을 보러 나가버리고 려관에는 나 혼자 남는데 그런 한적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제일 안타까운것은 가지고 갔던 책을 다 읽어 버린 것이었다. 이따금 다시 한번씩 읽군 하던 장편소설을 가지고 갔었는데 읽은 자리에서 거꾸러 읽으려니 읽을맛이 없었다.

할일이 없다는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럴줄 알았으면 원고지라도 두어권 넣고 왔을 걸 잘못했다고 후회하였다.

립산상점에 학습장이 있었지만 원고지에다 글을 쓰던 버릇이 되어 와서 그 학습장에 몇줄 써보자니 도무지 되지 않았다.

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 온 려관손님들이 주패를 하자고 나를 끌었다. 할줄 모른다고 하기는 멋적어서 생각이 없노라고 하였다.

그것때문에 손해를 보는 때가 적지 않았다. 이번엔 기차를 타고 오면서도 창문옆의 시원한 자리를 주패군들한테 양보해야 했었다.

한번은 함경남도 덕성군 락원리에 취재를 가자고 신북청역에 내리니 통근열차는 이미 떠난 뒤고 잘 아는 문학친구가 자기의 자전거를 내주었

다.

《난 자전거를 탈줄 몰라.》

《아니, 자전거도 아직 탈줄 모르고 지금까지 뭘했습니까?》

《소설을 썼지. 소설을… 이거 내 머리가 허애 진걸 보라구. 자동차도 운전했네. 동문 자전거는 탈줄 알아도 운전면허는 없지? 자전거나 탈줄 안다구 뽐내지 말게.》

높은 급의 작가가 자전거도 탈줄 몰라서 그 좋은 물건을 두고서 100리길을 걸어야 했었다.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서도 배울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놓쳐 버렸던가. 걸어 가면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였다.

작가이기에 더구나 놓치지 말아야 했던 기회들을…

군사복무시절에 나는 군무자예술축전에 창작성원으로 참가하군 하였다.

창작기간과 무대형상기간을 합치면 무려 수개월 기간이었는데 조직자측에서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경연에 참가한 모든 군인들에게 (후방조 성원들까지) 매일 두시간씩 음악리론 및 악기다루기, 무용강습을 조직해 주었다.

춤은 배워서 뭘하겠는가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무용강습에는 애당초 머리를 들이밀지 않았고 재담을 씹네, 가사를 씹네 하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었다.

노래와 함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가는 벽찬이 시대에 살면서도 기타 하나 다룰줄 모르다니 소설의 글줄마다에 반드시 흘러야 할 음악이 흐르지 못한다.

가는 길 험난하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더욱 노래와 춤을 즐기는 사람들속에 섞이지 못하니 소설이 혁명적인 랑만으로 설레이지 못하며 유연하지 못하다.

그리고 어디에 취재를 나가도 늘 고적하게 《손님》대접을 받는다.

작가의 실력이란 무엇인가.

력사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못했으니 써내는 글이 깊은 강처럼 흐르지 못하고 얇은 시내처럼 조잘거리기만 한다.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 늘 운전사, 어로공, 농민, 어머니, 안해의 생활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것도 머리에 둔것이 없기때문이다.

풍만한 자연도 내가 쓴 소설에서는 자기의 빛을 잃는다. 색조나 명암으로 자연을 볼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묘사나 초상묘사를 꺼리고 그저 《다채로운 색으로 단장한 가을의 수림》이라든가 《사내답게 잘 생긴 얼굴》하는 식으로 어물쩍해 버린다.

기회는 새와 같은것이어서 날아가기전에 붙잡

아야 한하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진귀한 《새》들을 놓쳐 버렸고 또 놓치고 있는것인가.

나는 어느 공장기계공장의 젊은 기사장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높은 목표》를 읽으면서 이 소설가가 이전에는 안주시인민병원 안과의를사를 주인공으로 좋은 중편소설을 썼다는것을 상기하였다. 용접공에 대해서도 썼고 당일군에 대해서도 썼다는것을...

《높은 목표》를 읽으면서도 작가가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한 실력 있는 일군으로, 중편소설을 보면서는 각막이식수술칼을 들고 수술장에 서 있는 안과의사처럼 여겨 졌었다. 당일군으로도 생각이 되었고.

나이가 나보다 크게 우가 아닌 작가의 박식과 진지함에 탄복하였다. 하긴 그 소설가도 나처럼 주패도 모르는것 같고 낚시질도 모르고 정구나 탁구장에 한번 나서는걸 보지 못했고 담배까지 안 태우니 남보다 시간을 더 많이 얻어 냈는가. 두부보다 콩 비지를 더 좋아 하는 이 소설가가 자전거는 탈줄 아는지...

작가라고 천가지 만가지의 일을 다 알수는 없는것이지만 취재를 떠난다는 작가가 가방에다 입을 책 하나 푼푼하게 넣지 못하고 원고지 두어권 넣고 가기를 꺼려 했으니-《여보, 거기 가서 원고지를 펼쳐 놓고 쓸 사이가 없소. 날씨도 더운데 가방을 간단히 꾸러 주오. 간단히》-그런 리치로 분석하면 내가 먼저 앉았던 창문열의 좋은 자리를 《빼앗긴것》도 당연하고 나를 가볍게 태우고 경쾌하게 굴러 갈 물건을 두고 발이 부르트게 걸어야 한것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할것이다. 주인공을 아직 못 찾고 헤매이고 있는 이것 역시...

상점에 가서 다시 학습장 한권을 사가지고 나 오면서 돈지갑을 열어 보았다. 어지간히 마음이 초조해 지었다.

앞으로 며칠을 더 따라 다녀야 하겠는지 자칫 하다가는 옷차림때문에 당해야 했던 그런 난처한 처지에 다시 빠질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저 한번 만나보고 실화문학이나 한편 제껴 쓰라고 잡도리했던 자신을 원망하였다.

문득 김경복이 하루길이면 뭘줄 알고 만삭이 된 돼지를 몰고 가다 몇끼 잘 굶었다는 이야기가 생각 나 혼자 웃었다.

조급해 지는 마음에 여기저기로 전화를 해보니 김경복이 지금 김정숙군에 있다고 하였다.

글을 쓰기 위해 김경복을 찾아 왔는데 아직 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사정이야기를 하고 나서 즉시 거기로 떠나니 그 사이에 어디 가지 않도록 위원장동무가 좀 붙들어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지만 혜산에 나와서 막상 거기로 가는 기차를 타자고 하니 김경복이 또 다른데로 갔을것만

같아 생각이 복잡해 졌다. 그렇게만 되면 정말 난처한 경우에 빠질수가 있었다.

좀 작을사한 남의 옷차림으로 주인공과 마주 서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다시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리라고 집쪽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설가 전동무가 나타났다.

《리명수에 전화를 거니 아침에 떠났다고 하기에 혜산에 내리면 들리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나타나야지...》

그래서 우정 찾아 나온것이였다.

《김정숙군으로 가는 길이라지?》

《아니, 아무래도 집에 다시 갔다 와야겠어.》

《려비가 떨어 졌지?》

《아니, 이것 보게나. 돈은 있다네.》

나는 가방에서 큼직한 돈봉투를 꺼내보였다.

《거야 자네 돈인가. 김경복이한테 전하라는 거지.》

《전동무가 그걸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알긴, 자네가 그렇게 말해서 알지.》

할수없이 그의 집에 다시 끌려 갔다.

이번에도 그의 안해가 입을 싸쥐고 웃는데서 려비를 그가 주는데로 받아 넣었다. 전동무의 책장에서 입을 책도 두툼한것으로 서너권 골라 넣고 원고지도 뒤킨 달래넣었다.

그냥 받아 넣기가 싫어서 한마디하였다.

《려비 주고 옷 주고 원고지까지 주느니 차라리 자네가 써까지 주었으면 더 좋겠구만.》

다그쳐 가느라 했는데도 리명수에서 떠난 날로부터 계산하면 3일이 걸렸다.

혜산-만포행 북부내륙선 철길을 그때 처음 구경하였다.

그 간고했던 철길건설의 나날에 우리 청년건설자들이 흘린 땀과 피가 너무나도 소중하여 어느 시인이 우리 이 길로 걸어서 가자. 걸음걸음 걸어 가며 삼가 머리 숙이자고 웨친 유명한 그 철길이었다.

리명수에서 본 이깔의 기둥, 흰 봇나무의 깨끗한 마음들이 이 철길을 받드는 수천수만의 침묵으로 깔렸으리라 생각하였다.

나도 이 길을 걸어서 가고싶다.

압록강과 장진강의 합수목에 자리 잡은 수려하고 청신하고 아름답고 기상 높은 김정숙군에 들어 서니 나와 전화를 한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이 경복동무가 오늘 아침까지 그냥 작가선생을 기다리다가 급한 일로 청진으로 나갔는데 3~4일 후에는 꼭 올거라면서 그가 남기고 간 쪽지를 전해 주었다.

《작가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떠납니다. 내 갔다 와서 선생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라니?》

화가 났지만 자료를 드리겠다는 소리엔 웃지 않을수가 없었다.

열정적이면서도 천진하고 순진한데가 있는 청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소설책은 좀 덜 보는 축일거라는 짐작을 해보았다.

그 짐작은 비슷하게 맞아 떨어 졌는데 그는 나와 어지간히 허물이 없어 진 때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도 텔레비존극을 쓰십시오. 난 소설책은 읽지 않습니다.》

《뭐라구?》

내가 여태 이런 사람을 안타깝게 찾아 헤맸단 말인가.

꼭뒤까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하였다.

아이처럼 솔직하고 순진한데가 있는 성품이 나의 화를 어지간히 녹았혀 준것이였다.

언제인가 만났던 한 일군도 그런 말을 했었다.

《언제 한가스레 소설책을 손에 들고 다닐새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군이 소설 한권 안 읽는다니. 이건 또 무슨 리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까. 나는 그가 아무리 큰 간부라도 시 한권 모르고 소설 한권 읽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그가 그 어떤 큰 일을 해놓았다 해도 쉽사리 믿질 않습니다. 혹시 동문 종종 큰소리를 치는건 아닙니까?》

《하하, 내 위낙 목소리는 좀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일 반가왔던가.

나의 취재대상이 책을 즐겨 읽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였다.

소설책을 읽지 않는다는 김경복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런 말은 내놓고 할것이 못되네. 자랑이 아니거든. 내가 동무에 대해 쓴 글도 안 읽겠나?》

《그거야 읽어야지요. 하지만 몇장 읽다 시시하면 내던지겠습니까.》

《그건 그러라구. 하지만 아무리 짜증이 나도 끝까지 읽고서 내버리든지 하게. 동무처럼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구나 그래야 하네. 그건 그렇고 경북동무, 이것 참 난사구만. 난 동무에 대해 본 그대로를 써야겠는데 무척 좋은 동무이지만 소설책은 잘 읽지 않더라고 쓰면 편집원이 필경 긍정주인공의 성격론리에 파탄이 온다고 밀줄을 그어 놓을거란 말이요.》

《난 보고 느낀대로 썼소.》

《아니 훌륭한 주인공의 잘 생긴 얼굴에다 굳이 흠점을 찍겠단 말이요?》

《그래서 김경복이요. 누군 미끈하게 그릴줄 몰라서 안그리요?》

《아니, 한 문장만 뽑아 버리면 되겠는데 왜 자주 고집이요?》

《못 뽑아. 단어 한개도...》

〈어디 그래 보구려. 이제 주필한테 올라 가면 시뻘건 연필로 쪽 그어 버리질 않나.〉

〈천만에, 주필은 동무의 그 고질화된 도식주의에 허를 찔걸.〉

경북동무, 내가 편집원동무와 언성을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어야 하네. 작품이 미끈하게 되면 서로가 다 좋지 않겠나.》

김경복을 기다리고 있는 나한테로 찾아 와 함께 잣죽을 나누면서 50대의 녀성인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이 걱정하였다.

《장가부터 들여야 할텐데 야단이에요. 작가선생, 우리 힘을 합쳐 보지 않겠어요? 소설에서처럼 그럴듯 한련애정황을 만들어서라도 말이요. 작가선생이 대본을 쓰세요. 연출은 내가 할테니...》

가다리던 김경복한테서 전화가 걸려 왔다.

백두밀영으로 곧장 들어 가니 따라 들어 오라고 하였다.

《선생님, 여기까지 왔다가 백두산에야 한번 올라 보아야지요. 한번 오기도 험치 않은데...》

《경북동무, 난 여름옷차림으로 왔다오.》

《하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백두산에 오를 마음속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떠났다 그 말이요. 부끄럽소. 얇은 여름옷처럼 마음까지도 얇게 먹고 떠났됐소. 송림에 가면 만나려니 했지. 거기서 만나보고 돌아 서리라 생각했됐소. 늘 백두산을 안고 사는 동무를 만나려 오면서도 말이요. 경북동무, 내가 무슨 책을 넣고 왔는지 아오? 빅토르 유고의 소설이요. 백두산에 올라야 할 작가가 그랬으니 지금까지 소경처럼 동무를 찾아 헤맸거요. 작가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공을 어데 가서 찾아야 하는것도 몰랐거든. 그게 바로 내 취재관이였소. 취재에 립하는 태도였구... 가겠소. 세상끝까지라도 동무를 따라 가야지.》

《선생님, 기뻐 하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제 백두산에 오시여 우리 경희와 경월이를 불러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였습니다. 영광의 사진을요.》

김경복이 울먹울먹해서 알려 주었다.

《언제? 어제?》

《예. 그 소식을 듣구서 지금 급히 들어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르시였던 백두산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김경복의 형제들을 축하해 주러 오는 평양의대병원의 선생들과 송림급양관리소 녀인들이 탄 빠스가 해산에서 나를 기다려 주었다.

그들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온실에 있던 경희자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고향집에 다녀 가셨다는 꿈 같은 소식을 듣고



숨 가빠 달려 올라 가니 뜰앞은 조용하였다.

뜰앞에 그들이 심어 놓은 불멸의 꽃 **김정일** 화가 감격을 안고 붉게 타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이 피워 놓은 이 꽃을 보셨으리라는 격한 생각에 자매는 꽃송이를 어루 쓸며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때 때 아닌 소낙비가 대줄기로 쏟아 졌다.

옷이 폭 젖어도 추운줄을 모르고 그냥 부동켜 안고 웃고 울고 있는데 문득 《동무들이 이 꽃의 주인들이요?》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화닥닥 일어 서니 일군이 부드럽게 웃으며 《어서 갑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 하였다.

《아까 강사동무들과 사진을 찍으실 때 동무들이 빠졌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되돌아 오시였습니다.》

불멸의 송시비앞에 우산을 받쳐 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매를 기다리고 계시었다.

《선생님, 옷이 이렇게 훌쩍 젖었는데 우린 어떻게 하나요.》

경월이가 울쌍이 되어 안타까와 하니 그 일군은 《일 없소. 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실거요.》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울먹울먹해서 다가서는 경희자매를 생각 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다 장하다고 칭찬하시며 송시비를 배경으로 옆에다 앉히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빠스는 백두산천지가 급경사로 아득히 울려다

보이는 산밑에서 멎었다.

모두 천지에 오를 차비로 비옷들을 꺼입었다.

지금 날씨는 맑아도 언제 눈비가 쏟아 질지 모르기때문이었다.

빠스에서 내리니 백두의 거센 숨결인양 휘회오리 치는 바람이 나의 몸을 장쾌하게 후려쳤다.

《작가선생, 그런 차림으론 천지에 못 오릅니다.》

운전사동무가 두툼한 잠바옷을 벗어 주었다.

창창 맑던 천지우에 눈꽃이 흩날리기 시작하였다.

눈꽃은 시시로 방향을 바꾸곤 하는 센 바람에 눈보라처럼 회오리쳤으나 그때 내 가슴속에서는 좋은 작품이 되리라는 그런 충동의 희열에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있었다.

만민이 우러르는 백두산, 오를수록 점점 더 높아만 지는 저 천지우에서 주인공이 작가를 부르고 있었다.

《선생님, 나는 늘쌍 여기에 있었는데 어데로 찾아 다녔습니까.》 하며.

백두산마루에 서 있는 주인공을 따라 나도 울랐다.

나의 심장도 평마루에 세워 보며...

이제 그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할가.

그래, 이제는 장가를 들라고 해야지. 어머니가 걱정하신다고

## 땀

### 한원희

흐르는 땀이

흐르는 강을 막을수 있는가

어느 때도 있어 보지 못했던

땀과 강의 대결이

대령강에서 벌어 졌다

콩크리트혼합물을 담은 맞들이

나무발판을 달려 오르고 내리는

발, 발, 발과 발들의 번개

땀, 땀, 땀과 땀의 경쟁심

사나이들은 옷동을 벗을수 있었어도

그렇게 못하는 처녀들이 미안해

옷을 입은채로 달리고 달리였다

낮에도 밤에도

땀에 젖은 옷

강의 나이는 수수천년

그 시원은 평북땅을 넘어 자강땅

돌격대원들의 나이는 20대

흐르는 땀의 시원은 묻지 말자

불 타는 심장이 끓여 내는 땀

시련을 겪는 조국에 바치는

의리와 양심, 애국이 깃들어

더없이 귀한 땀

하늘땅이 비껴 들어

우주의 무게를 안고 있는 땀

넓으나 넓은 강에선

세찬 물이 3년이나 흘렀다

돌격대원들의 온몸에서도

뜨거운 땀줄기가 3년이나 흘렀다

아, 그 마지막날

흐르는 땀이

흐르는 강을 막았다!

돌격대원들의 성스런 땀은

거창한 콩크리트언제로 솟아서

강물을 가두어 놓았다!

## 청춘회고

동기춘

### 청춘회고

내 미처 못 느끼던 날  
청춘이 있었고  
내 알고 아쉬워 할 때  
청춘은 갔다

오늘에 뒤돌아 보니  
청춘이여, 너는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고  
한생의 전부이기도 했다

기나긴 학창이 끝나던 날도  
그 시절에 있었어라  
불 타는 사랑의 시작과 맺음도  
그 시절에 있었어라

걸어 갈 한생의 먼 길도  
그 시절에 정해 졌어라

청춘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때가 오면 알게 되나니  
나에게 청춘시절은  
한생 정서의 푸른 령지였고  
청춘에 지닌 정신은  
한생 푼푼히 쓴 재산이었다

마음은 청춘이라고  
늙어서도 하는 소리  
그 소리 빈말 아님  
청춘이여, 네가 준 추억의 세기에 있어라

### 고와야 한다

발길을 매던 로동의 첫날  
내가 마구 짝은 엉성한 이랑을 돌아 보며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네  
-김 맨 뒤가 고와야 한다

그제사 아버지가 앞서 나간 이랑을 보았네  
얼마나 고우랴 제방같이 미끈한 이랑  
나는 들었네 악보 같은 이랑에서  
곡식포기 춤 추며 웃는 소리를

늦여름 새초 베려 갔던 어느 날  
나는 덤벼 치며 무더기만 찾았네  
묶어 놓은 단도 엉치가 내밀려 세울수 없었네  
아버지가 보다못해 말했네  
-간간히 베여 곱게 묶어라

나는 아버지가 일한 곳을 보았네  
빹빹 곱게 깎아 내는 풀판  
어렵지 않게 단을 채우는 그 솜씨  
묶어 세운 풀단들은 맵시쟁이 처녀들 같았네

그해 가을 벼가울할 때였네

나는 정신없이 낫을 휘둘렀네  
빨리 벨 생각에 말은 이랑만 쫓으며  
벼줄을 아무렇게나 뒤에 던질 때  
아버지의 핀잔이 들려 왔네  
-단을 곱게 지어라 그래야 묶을 때 쉽다

옆에서 아버지가 베여 나간 자리를  
허리 펴고 땀 씻으며 보았네  
아, 세상 고운 일매진 단의 행렬  
논판은 누런 수확을 금빛주단으로 편듯

겨울날 땀감하러 산에 갔을 때도  
탈구에 볼품없이 처실은 나무단을  
아버지는 다시 헐어 쌓으며 말했네  
-곱게 실어야 꺾여 지지 않는다

나는 말없이 일손 거들며 보았네  
아버지가 쌓고 바줄로 조이는 모습을  
날씬하게 동여 진 나무바리는  
아무리 험한 돌두렁길이라도  
새처럼 날아 내릴수 있었네

모든 완성은 아름다와야 한다  
촌늬은이가 로동으로 가르쳐 준 예술철학  
묵묵히 그 진리 배우던 날에는

우리 마을  
세포위원장네 집에서  
열렸다 엄숙히  
나의 입당을 심의하는 총회가

거기엔 앉아 있었다 46년도 당원들인  
나의 아버지며 이웃집로인, 동네어른들이  
50년 전선병사 세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보고를 하였다

나를 키운 사람들이  
나를 두고 묻고 토론하고 보증하는 회의  
보고도 길지 않았고  
회의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뉘집 아무개가 아니라  
나를 동무라고 부르며  
엄격히 절차를 밟아  
나의 입당청원서를 귀 기울여 들었고  
5년세월의 자육을 검토하였다

나는 그들이  
애젊은 내앞에서

5년세월  
내 짝은 발자육과  
흘린 땀  
성실한 로동의 총화가  
많지 않는 글줄에 담겼다

이제는 날 때가 되었다고  
대학으로 등을 밀며 말하던 목소리  
얼굴에 피였던 미소.  
바래주던 동구길의 당부가  
그 글줄에 있었다

나는 다시한번 산발을 돌아 보았다  
눈비 맞은 방목길이 거기 있고  
산누예를 치던 초막이 거기 있었다  
앞덕의 발이랑과 마을앞 논벌에는  
내 팔뚝이 스쳐 간 벼이파리  
내 손금이 찍혀 있는 흙이 있었다

꾸지람도 있고 대견함도 있는

그것이 한생 창조의 기틀로 될줄 알았던가  
지금도 나의 창조 하나하나에는  
놓여라, 그 발이랑이, 풀단이, 짐발구가...

## 보증

조선로동당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을  
얼마나 경건히 부르는가를 보았다!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한 당세포  
나의 경력이자 그들 경력의 한토막인  
살아 있는 중견자들과 숨결을 함께 하는 당세포

위대한 당의 위임으로 전권을 행사하며  
쳐들리는 손들을 나는 보았다  
반들반들 고운 손톱은 하나도 없는 손  
더러는 헝겊으로 덮여 맨 손가락  
하나같이 흙물이 배여 검은 줄이 간 손금들

욕됨이 있으랴 저 손에  
믿어 다오 내 인생을 고향아  
결심이 돌처럼 떨어 지어  
심장바닥에서 피숫음이 일었다

이것은 감상적인 추억이 아니다  
나는 고향의 보증으로  
그렇다 쉽지 않은 고향의 보증으로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  
그날은 1962년 4월 28일이였다

## 첫 평정

더운 숨결의 산천  
그 산천이 글로 적어서 조국에 보고한  
아, 그 평정

일하는 법을 배워 주던  
동네어른들의 추천이 깃들고  
나라를 섬기는 법도를 가르친  
조직의 믿음과 기대가 써준  
그 표창

그 표창을 훈장처럼 달고  
내 새로운 인생길을 떠났어라  
고향의 손저음 받으며  
청춘의 첫 기슭을

청춘, 그 기슭에서  
고향은 두번 다시 나를 낳아 주었나니  
자기의 흙 같은 공기 같은 물 같은  
그렇게 살 또 하나의 아들을

## 종 점

종점이 멀지 않는  
인생열차의 마지막직선궤도  
번거로워 지는 생각이여  
가슴 두드리는 바퀴소리 바퀴소리

고중을 졸업하던 시절  
도시로 학교로 날래게 새여 나간  
그날의 지름길 탄것 같던 사람들  
왜선지 별로 보이지 않는 종착구역

마라손 같은 인생달리기에  
내 비록 앞선 측은 못되었어도  
나의 발목을 붙잡은 향촌세월은  
공백이 아니라 극한점을 이긴 구간 아니었던가

게으른 아낙네같이 되는데로 살지 말라  
고향은 나에게 가르쳤거니  
조국 위한 삶의 모색은  
지새는 밤등밑에서 나를 소성했다

꼭절도 많았던 인생길

묻은 얼룩을 무엇으로 지웠던가  
가슴 저린 파오의 흔적도  
청춘에 얼은 그 솔로 닦았다

아, 청춘, 그 시절에  
속상했던 번민이 행운이었던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는 마음인가  
성공으로 꺾었던 꽃가지를 다 모아  
조용히 그 기슭에 놓은들 감사를 다하라

종점은 추억을 부르는 곳  
종점은 한생을 평가하는 곳  
제나름대로의 궁지는 있을지라도  
조국의 평정은 엄한것 아니냐

그앞에 내 부끄럼없이 드리노라  
조국이며, 그대가 나를 축복하여  
나의 청춘에 놓은 꽃다발에  
내 가꾼 열매를 익혀 삼가 드리노라

종점에는 조국의 미소가 따뜻하다

## 작가일화

### 《손에 무기를 들고 진행한 전투보다 어려운 전투였다》

장편소설 《차빠예브》를 쓴 푸르마노브의 창작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다.

공민전쟁에 참가하여 차빠예브가 이끄는 사단의 정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푸르마노브는 제대후 모스크바에서 살면서 자기가 차빠예브와 함께 겪은 군인생활체험과 자기의 일기, 력사자료들, 논문과 군부대일군들과의 담화자료에 근거하여 소설을 쓰리라 결심하였다.

체험을 통하여 차빠예브의 영웅적성격에 매혹되었던 그는 창작에 착수하기전에 두가지 문제점에 부닥쳐 골몰하게 되었다.

(력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차빠예브라는 인물을년대기식으로 그릴 것인가, 당시의 사건과 전투들, 도시와 지형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그리는데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적환상과 허구의 날개를 자유로이 펼칠수 있게 자료들을 활용할 것인가?...

작가는 모대기였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친구들과 여러번 의견을 나누었다.

많은 의견이 후자에 기울어 졌다.

작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국내 전쟁의 한 영웅을 예술적인 전형으로 창조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는 그때까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는 사색을 거듭한 끝에 몹시도 힘들게 초고의 첫장을 썼다.

우랄의 초원에서 차빠예브와 함께 벌린 싸움은 그것이 곧 소설로는 될수 없었다.

모든 전투와 사건, 일화들, 각이한 양상, 각이한 성격의 인물들은 그의 체험의 세계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그는 불 타는 애정과 열정을 안고 밤낮으로 펜을 달리었다. 작가의 머리를 때때로 사로잡은것은 모든 세부를 섬세하고 진실하게 다듬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예술적인 전형으로 끝까지 창조해 낼 인내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레브 톨스토이도 방대한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를 무려 여덟번이나 옮겨 쓰면서 수정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그에게 용기와 신심을 주었다.

그리하여 공민전쟁때 영웅의 전형적성격을 체현한 주인공을 감동 깊게 그린 장편소설 《차빠예브》가 함께 싸운 정치위원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소설이 발표된후 그는 창작하던 때의 고심어린 나날들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손에 무기를 들고 진행한 전투보다 어려운 전투였다》고.

## 서정시와 시인의 개성

장정춘

오늘 우리 시인들의 위치는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가장 격조높이 노래하는 선군시대의 가수, 나팔수들이라는데 있다. 시대의 앞장에 서서 시대를 이끌며 강성대국건설에로 우리 인민들을 힘 있게 고무하는데서 우리 시인들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시작품들마다에서 자기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서정을 풍부히 구현한 시작품들을 써내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 놓아야 한다.》**

선군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시인들이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길이 있다.

### 1

어떤 의미에서 시란 시인의 자기 개성의 서정적 또는 음악적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의 음성, 거칠거나 혹은 고르로운 그의 호흡, 급하거나 느린 그의 박자, 그의 리듬이다. 시인이란 누구든 자기가 류달리 좋아 하고 자기가 류달리 즐기며 또 자기가 류달리 사랑하는 그런 생활이 있고 그런 생활의 형식이 있는것이다. 자기가 생활에서 슬펐던 일들 혹은 기쁨에 겨워 울었던 일들... 자기만이 그렇게 느낄수 있었고 자기만이 그렇게 사랑할수 있었던 그 모든 생활들 그리고 가장 어려웠고 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에 자기가 불렀던 생활의 노래들, 생활의 음향들이 있는 법이다. 이렇든저렇든, 많은적든 시에는 그 시를 쓴 시인의 내면적 또는 외면적풍모들이 비껴 있기마련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하반기도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시작품들중에서 일부 작품들에 대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 독자들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을 방문하신것과 관련하여 씌어진 시들이다.

10호에 실린 김석주의 시 《원동에》는 선명한 화폭과 다감한 정서로써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을 방문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시인,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사상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내면세계에 국한된 사상감정이 아니라 전 인민적감정이

며 또한 민족적환희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문하셨던 로씨야의 원동은 얼마나 멀고 광활한 지역인가. 거기에는 설레이는 하얀 붓나무도 있고 초원과 바다도 있으며 그리고 숲도 강도 있다. 일찌기 뽕슈킨이 노래했고 레위탄이 화폭에 담았던 그 로씨야의 자연, 그것이 더구나 숭엄하고 아름다운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감정, 우리 인민의 마음이 거기에 비껴 있기때문이 아닌지, 바로 로씨야의 자연에 의탁하여 우리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인민의 감정을 그렇듯 절절히 뜨겁게 노래한 여기에 그의 시의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세계가 있다.

같은 호에 발표된 신문경의 시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도 역시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을 방문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김석주의 시에서 노래된 자연현상이 로씨야의 붓나무, 로씨야의 숲 그리고 로씨야의 초원과 강이라면 신문경의 시에서 노래된 자연현상은 별이다. 그의 시에서 노래된 별, 그것은 그리움의 별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별이 되고 별이 그리움이 되었다. 흔히 시들에서는 숭엄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자연의 미, 자연의 신비한 세계에 비유되어 노래되기 일쑤이다. 사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의 감정을 한두번만 노래해 온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작품들에서 이 사상감정을 그렇듯 뜨겁고 격조높이 노래해왔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시들에서 여느 시들과 같지 않은 이 시인들 고유의 자기 체험의 시세계를 보는것이다. 이미 수많은 노래된것이면서 매번 새롭게 태어나는 참신한것이 이 시들에는 있다. 그래서 우리 시들은 언제나 수많은 노래된 주제의 공통성속에서도 매 시인들의 개성의 다양성을 상실하지 않는것이다. 그들에게는 자기 삶의 토양이라느것이 있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생활의 개성적령역이라느것이 있다. 그 토양에서 그들의 온갖 삶의 노래도 그들의 각양각색의 감정도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움 트고 자라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렇듯 수많은 되풀이 되어 노래된 사상감정들과 시적표현들로써도 가리울수 없는 우리 시인들의 자기 얼굴, 자기 목소리가 있는것이다.

## 2

흔히 나이를 먹으면 시인들은 사물현상에 대한 판단력도 떨어지고 생활에 대한 시적감수의 능력도 점차 무디어져 창작은 어쩔수없이 쇠퇴기에 들어 가게 된다고 한다. (물론 거기에는 시인의 개성도 포함되는것이다.) 맞는 말일까. 우리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적어도 오늘의 선군시대에 있어서만은 더욱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 시인들에게 있어서 그 말은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문제는나이에 있는것이 아니라 삶의 열정에 있는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조선문학》잡지에 개성있는 시들을 발표한 시인들을 꼽아 보는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다. 오영재, 김정곤, 백하, 홍현양, 김석주, 리동후, 정동찬,... 이미 모두 60 혹은 70나이를 전후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시에서는 여전히 청춘의 열정과 량만과 환희가 느껴 진다. 청춘의 열정과 량만, 그것은 그들의 시에 생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다정다감한 정서와 풍만한 서정을 불어 넣어 주는 원천이다.

백하의 시 《토장의 밤》에 대해 보기로 하자. 이 시에는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바쳐가는 인간들의 로동의 희열과 긍지, 삶의 열정과 량만이 뜨겁게 노래되고 있다.

달빛 내리는 토장의 밤  
나무바리에 쇠고리 꿰면  
아름드리 통나무들이 비비대며  
하늘에 난다, 날아 오른다

푸실푸실 나무껍질들  
어깨우에 땅우에 내려 앉고  
우람스런 상차기와 힘찬 동음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  
...

누구인가 자연은 끝 없는 미의 세계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보다 삶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삶을 보람 있게 누릴줄 아는 로동하는 인간의 미와 결부될 때 더욱 아름다운것이다. 이 시에서 노래된 토장의 밤, 그것은 로동하는 인간의 미의 세계를 그대로 담은 산화폭이요 삶의 열정이 뜨겁게 굽이치는 자연 그자체인것이다.

아름드리 통나무들이 비비대며 하늘을 난다. 푸실푸실 어깨우에 땅우에 내려 앉은 나무껍질들. 향긋한 나무우에선 《내 땀》과 숲의 이슬이 함께 어울린다. 《별들은 내 이마에 부딪쳐 잠을 깨고 우리는 내 옷깃아래 단잠을 잔다.》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토장의 밤인가.

매 시구들, 매 시어들은 마치 그 밤의 호흡으로 숨 쉬고 그 밤의 맥박으로 뛴듯싶다. 이

런 시는 삶의 열정과 량만의 분출이 없이 썩여 질수 없다. 다른 시들도 더 들수 있다.

뜻밖에도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뵙게 된 박사부부의 크나큰 행복과 감격에 대해 노래한 서진명의 시 《박사부부의 행복한 삶은》, 한 전호에서 싸운 옛 전우들을 그리며 그토록 총과 더불어 그 시절로 되돌아 가고 싶어 한 서정적주인공 로병의 심정을 절절히 노래한 김정곤의 시 《로병의 말》, 《비바람이 몰아 쳐도 달은 떠 있으리/화약내가 풍겨 와도 달은 떠 있으리》라고 절절히 노래하고 또 노래한 오영재의 시 《6.15는 밝은 달》, 먼저 간 영웅들의 삶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자기 삶에 대한 투철한 자각을 노래한 정동찬의 시 《나의 노래》...

이 시들은 그 생신한 감정과 선명한 개성, 깊은 정서로 하여 그것들이 이미 로년기에 들어선 시인들이 쓴 시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과 환희에 가득 차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란 《청춘의 나이》가 쓰는것이 아니라 《청춘의 마음》이 쓴다는것, 따라서 나이는 젊었어도 마음이 먼저 늙어 버리면 그런 시인에게서는 시를 기대하기 곤란하지만 나이는 늙었어도 시대와 함께 사는 마음이 청춘이면 그런 시인은 어느 때까지라도 시를 써낼수 있으며 그것도 훌륭하게 써낼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시로써 받들어 나가는 오늘의 우리 시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특징짓는 하나의 이채로운 모습이기도 하다.

시인 홍현양의 시에 대해 보기로 하자. 그도 이미 60고개에 오른 시인이다. 그럼에도 이제 한창 창작의 청춘기를 맞는 사람과도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그는 지금 왕성한 창작적열정에 불타고 있으며 그렇게 그는 또한 삶에 성실하다. 그의 시에서 시적개성의 특징들 또는 시적감수의 형식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섬세해 지고 더욱 감성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시초 《사랑은 멀리에 있지 않다》를 통해서도 볼수 있었다. 그 시들은 이 시인이 가장 진실한 그리고 가장 절절한 감성적체험을 겪을 때 씌여진 시들이었다. 시 《어머니조국이며》를 읽으며 우리가 맨 처음 느낀것도 그것이다.

잠시라도 떨어 저 있으면  
저 하늘의 별과 바람과 함께  
언제나 가까이 오는  
가까이 와서는  
내 베개머리에 꿈으로 깃드는  
조국은 어머니 자장가이더라

자장자장  
어머니의 그 다독임으로  
지줄대는 시내물소리로

푸르른 버들의 설레임으로  
 병사들이 지새우는 전호가의 새벽빛  
 조국은 그 전호가의 빨간 산딸기로 안겨 오더  
 라

그의 시의 매력, 그것은 시적감수의 능력에 있어서의 섬세성, 생활의 매개 시적세부형상화에 있어서의 예리성, 참신성에 있다. 그의 시에서는 평범한 생활의 극히 작고 《미미한》 세부들이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의미를 체현하고 있는 사상 감정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서 거의 아무런 무리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조국은 푸른 하늘의 《별》과 《바람》과 함께 언제나 가까이 와 《배개머리》에 《꿈》으로 깃드는 그 어머니의 《자장가》이다. 그것은 혹은 어머니의 《다독임》이며 《지출대는 시내물소리》이며 혹은 병사들이 지새우는 새벽빛 어린 전호가의 《빨간 산딸기》이다. 얼마나 생동하고 개성적이며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답고 또 친근한가. 그의 시에서는 조국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임을 설명이나 선언으로가 아니라 실지 생활로 폐부로 느낄 수 있게 형상되고 있다.

김석주도 오랜 시인의 한사람이다. 그는 지난 해 《조선문학》잡지 7호에 시 묶음 《고향과 추억》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는 《민들레》(1, 2), 《어쩌서인가》, 《추억은 사랑이다》 등 시들이 들어 있다. 이 시들은 이 시인에게 있었던 유년시절에 대한 추억의 노래, 유년시절의 나무와 유년시절의 바위와 그리고 유년시절의 그 바다와 그 민들레 《우산》에 대한 노래이다. 그러나 시 《추억은 사랑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시들은 주제며 생활적소재며 그 추억자체에 깃든 서정적의미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닥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유년시절에 대한 추억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의 참뜻을 더 의미심장하게 되새겨 보게 된다. 이 시들은 그런 측면에서 긍정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들의 추억속에서는 뭔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것이 부족한 감이 있다. 그 생활자체는 감성적이며 정서적인 생활임에 틀림 없으나 그럼에도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되기보다는 이성과 논리로써 더 많이 이해되는것이다. 따라서 이해는 되나 공감은 별로 크지 못하다. 대체로 유년시절의 추억은 고향에 대한 추억속에 깃들고 고향에 대한 추억은 유년의 동요이다. 그것은 어제와 오늘에 대한 사색이며 오늘에 바라보는 어제의 모습이다. 김석주의 시들에서는 시구들을 읽기보다는 주로 많이 시구들을 사색하게 된다. 시 《고향바다》에서 시인은 아무런 시적으로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색한다. 시인은 그저 바다와 마주 앉

아 오래도록 바라보기만 할뿐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의문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서정적 주인공이 왜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기만 하고 말은 없는지, 왜 그는 자기 생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유년시절의 그 바다-《고향친구》앞에 터놓기를 주저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것이다. 물론 그모두를 독자들의 생각에 맡겨 버릴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색의 구획은 시인이 그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시에는 그런 구획조차 그어 져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인이 쓴것처럼 너무 그리워 하던 나머지 정작 만나고보니 할 말을 잊어버린때문이라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침묵이 때로 말보다 몇배 더 힘 있고 값 있다는 격언 그대로 어쩌면 인생에 실패하고 돌아 온 사나이의 마음속 쓰라림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결국 이것은 시로 하여금 어떤 《주소불명》의 시처럼 되게 하였다.

긴 세월... 이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없이 헤어  
 졌어도  
 멀리 가면 또 그리워 지겠지

어째서 우리는 몸은 멀리에 있어도 사랑은 우리로부터 멀어 지지 않고 더욱 뜨거워만 지는것일까. 어째서 우리는 고향에 《류다른 나무》들도 《기묘한 바위》들도 없는데, 어데서나 볼수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집들뿐인데 그토록 못 잊어 하는것일까. 시 묶음의 시들은 이런 문제들에 있어 사색할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 사색은 오늘의 선군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시대에 대한 투철한 자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시들에서 읽을수 있는 시구의 길이보다 사색할수 있는 공간의 길이가 더 중시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서정시의 힘, 그것은 여운, 음악성, 사색의 힘이다. 여운, 음악성, 사색, 그것은 공간의 세계이며 공간의 음악인것이다. 행과 행, 련과 련사이의 공간과 공간들에 사색이 깃들고 시가 깃든다. 하여 시밖에도 시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시밖의 시도 어느 시대 혹은 어떤 생활의 토양에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그 《주소》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시문학에서는 현실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점에서 노래하는것도 중요하다. 그러한 생활반영은 선군시대 인간의 자주적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생활 그자체의 요구이기도 하다.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노래해야 생활을 개성적으로 더 특색 있게 형상할수

있으며 생활의 보다 심오한 의미를 실감 있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각이한 생활영역은 더 말할 것 없고 한 분야의 생활도 여러 측면이 있고 또 그 내용도 다양한 것이다.

가령 조국해방전쟁을 노래한다고 하면 전쟁환경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노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는 당시의 환경과 오늘의 환경과의 련관속에서 노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인에 따라 그의 개성에 따라 그리고 그의 감정, 체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김정순의 시 《옛 전장에서》는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이 어떤 가렬치열한 전투속에서 그리고 어떤 영웅적희생과 피의 대가로 마련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정서깊이 새겨 주고 있다.

불 타던 땅...

가렬한 싸움의 옛 전장에  
꽃은 폈구나 바람은 맑고나  
하늘은 높고 푸르고나

이렇게 시는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의 생활을 보는 각도, 생활을 보는 시점 그리고 생활에 대한 그의 사색과 체험의 남 다른 세계를 본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대조, 1950년대 영웅들의 희생과 오늘의 우리 삶의 대조가 있으며 그 대조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자각과 각성의 의미가 있다.

문선건의 시 《50년 그해 여름》과 《전호속의 웃음소리》(우와 같은 잡지 8호) 등은 우리의 높은 요구의 수준에서 볼 때는 그 시들에 어떤 심오한 감정이나 별로 짙은 서정은 없지만 《심오한》 내용의 시들보다 오히려 잘 읽힌다. 더우기 시에는 1950년대 투쟁정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있다. 대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생활을 노래한 시들을 보게 되면 그 생활은 준엄하고 그 정황은 가렬치열하며 또 때로는 비장하기까지 하다. 거기에는 전우들의 희생에 대한 비분도 있고 복수의 맹세도 있으며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정신과 영웅주의, 대담성, 용감성에 대한 격조 높은 토로도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전쟁환경을 상상하게 되는 경우 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이고 생활적감정들이 아니겠는가. 그만치 그런 시들에서는 안온한 정서라던가 인간심리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고민상태라던가 혹은 조국해방전쟁의 준엄성과 상반되는 그 무슨 유희나 오락이나 룡담 같은 여유 있는 생활 또는 그런 생활감정들이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어찌 삶과 죽음을 판가리하는 고지에서 레하면 어떤 룡담 같은 것이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문선건의 시 《전호속의 웃음소리》에서는 그런 룡담이 아주 잘 어울

린다. 한바탕 전투를 치르고 난 설참에 전호벽에 척 기대인 전라도내기 익살군 상등병이 신입병사 꼬마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집에 누이가 있지?  
-예, 있습니다  
-나 매부 안 삼을래?

너무도 뜻밖의 물음에  
어리둥절했던 꼬마병사  
무엇을 생각했던지  
해죽 웃으며 대답했다네  
-이제 세살이야요

와하하하...  
고지를 들었다 놓는 웃음소리  
그런 익살끝에 오는 웃음은  
가렬한 결전의 순간에도 생각나  
저 혼자도 히죽 웃어 본다네

강자의 징표의 하나는 어려운 때일수록 생활을 락천적으로 대하는데 있다. 가장 엄혹한 정황에서도 가장 여유 있는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력은 강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용사들속에서 발양된 락관주의정신이 있으며 또 그들이 미제를 타당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시인이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각이한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노래할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아 지지만 생활을 외췌므로만 바라보는 시인은 역시 그 생활을 외췌므로밖에 더 노래 할 수 없게 된다. 시인의 개성의 특징들은 이 생활을 보는 측면과 각도에서도 다양하게 굴절되지 않을 수 없다.

## 4

대개 잘 읽히우는 시들을 보면 거기에는 흔히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어떤 시들은 서정의 충만성으로, 어떤 시들은 심오한 감정으로, 어떤 시들은 그 체험세계의 진실성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틀어 잡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잘 읽히는 시들이 많지 못하다. 적지 않은 시들에서 우리는 무미건조한 감정 혹은 따분하고 혹은 조잡하며 혹은 까다로운 시구들때문에 곧 지쳐 버린다. 지어 어떤 시들은 읽기를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다. 마음 먹고 읽으려 해도 어느새 시줄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단숨에 읊었다는 서사시도 있고 하루밤새 다 보았다는 장편소설도 있는데 몇행 안되는 서정시 읽기가 이처럼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이라면 이것



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짧은 시에서 언젠가 한번 읽은적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기때문이다. 물론 그것을 류사성이라던가 무슨 모방때문이라고 말하는것은 아니지만 왜서인지 전혀 다른 시들인데도 이전의 어떤 알지 못할 시와 닮은데가 많은 시처럼 생각하게 되는것이다. 한마디로 《낮 선 구면친구》 같은 시들이다. 레하면 박현철의 시 《12월 아!》(12호), 문용철의 시 《만세의 환호성》(11호), 허일의 시 《글발》(8호), 김덕선의 시 묶음 《광부들에게 바치는 노래》(12호) 중의 일부 시들, 최정용의 시 《나더러 무슨 말을 더 하랍니까?》(10호) 등의 시들을 들수 있다.(물론 그밖에 또 들자면 더 있다.)

이 시들에서는 주제며 사상이며 생활소재며 시적발견이며 등이 새롭다는 느낌도 간혹 없지 않지만 동시에 시들이 어떤 구태의연한 틀거리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있

을것은 다 있는 시, 그러나 단 하나 독창적인 자기 체험의 세계만은 없거나 희박한 시들이 이런 시들이 아닌가 한다. 바로 그때문에 이런 시들은 그저 무난하고 그저 미끈하며 또 그래서 그저 《멋들어 진》시들로는 될수 있을지언정 독특한 개성으로서 매력적인 서정세계를 펼친 시, 특색 있는 생활감정과 시적표현들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게 한 그런 시들로는 될수 없었던것이다. 여기에 이 시들의 결함이 있다.

우리 시인들은 생활이 안고 있는 시대의 진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구현되어 있는 생활의 형식은 다양하고 개성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기의 시작품들에서 개성적특성을 살리기 위해 탐구하고 또 탐구하여야 할것이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시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우리 시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를 시로써 높이 받들어 나갈수 있는 길이 있다.

## 초불의 바다

홍현양

들고 있는 초불은 천만  
분노한 심장도 천만이다  
그것이 모이고 합치여  
초불의 바다가 되었다  
민족의 넋을 부르는 불이 되었다

초불이란다  
방을 방을 가슴 찢는 피눈물인듯  
방을 방을 초불이 녹아 곡성을 터친다  
신호순 심미선 꽃나이 열네살  
그 혼을 불러 몸부림친다

바다가 기슭이 있다면  
초불의 바다는 그것을 모른다  
어찌 더 참고 견디랴  
어찌 더 이상 죽음으로 모욕을 참고 넘어 서랴  
내 조국의 남녘아

네가 말해 다오  
살인자가 무죄로 되는 세상이  
우리가 태줄 묻은 이 땅이란 말이나

미국은 하늘도 아니다  
미국은 하느님도 아니다  
두눈도 감겨 주지 못한 열네살 꽃방울들  
그 순진한 가슴을  
장갑차의 무한궤도로 짓밟겐  
미국은 이 세상 악마이다

악마는 죽어야 한다  
원통하게 가버린 민족의 혼을 부르는  
저 초불의 바다가 하늘이다  
이 준엄한 심판의 하늘앞에서  
미국놈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라  
아, 저 초불의 바다가 력사의 십자가다!

# 나는 선반공시인이다

류동호

그 누구에게나 작가라만  
문학통신원시절이 있다  
따사론 해빛아래 꿈을 키운 터전  
나의 그 터전은 선반공시절이다

아득한 추억의 언덕을 넘어  
못 잊을 명곡의 선율처럼 안겨 오는  
내 정든 선반기의 동음소리  
우리 장군님 모셨던 영광의 일터에로  
나를 불러 주는 시와 노래의 시절이어

나는 그 일터의 선반기앞에서  
15년세월 하루같이 쇠를 다듬었다  
내 열정처럼 타래치던 철의 불꽃  
나는 마음 먹은대로 강철을 주물렀다  
이것은 문학통신원의 랑만이었다

월계획을 초과완수한 그 저녁  
《로동자시인》은 혁신자축하모임에서  
《공장의 미녀》 볼반공처녀의 꽃다발을 받았다  
그런 날이면 즐겨 읊던 즉흥시  
나는 이 생활을 무척 사랑했다

돌아 가는 선반기우에 지령서를 펴놓고  
나는 기름 묻은 손으로 첫시를 썼다  
장군님 우러러 마음속 순정을 속삭이며  
한 로동청년의 꾸밈 없는 진정을  
그리움의 눈물에 찍어 적은 나의 첫시여

선반공의 그 첫시가  
로동자신문에 발표된 그날에  
그 소식을 대서특필한 공장속보판  
나의 미래를 축복해 주던  
한작업반 벗들의 점심짜뚜껑축배...  
가슴을 적시던 눈물은 오늘도 마르지 않는다

내 마음을 비쳐 보며 산다  
0.1밀리미터 오작품을 앞에 놓고

세계성구속담

능동자에 0.1밀리미터의 오차가 생기면  
심장에는 통구멍이 난다고  
넓은 량심을 빠는 비누는 없다고  
준절히 타이르던 로당원의 그 모습에

시 쓰는 법보다 먼저  
로동을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 주고  
서툴러도 체손으로 작아도 제 목소리로  
당을 노래하는 법을 배워 준 나의 공장  
나는 문학을 교실에서 배우지 않았다

오, 이처럼 사랑한 내 선반공시절  
땀 흘려 가꾼 생활의 터전우에  
아름다운 행복의 씨앗을 묻은 시절이어  
은혜로운 어버이장군님 펼쳐 준  
내 시의 영원한 터전이어

내 한생 그 터전우에서  
선군시대 인민이 사랑하는  
시와 노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이름 없는 선반공시인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  
내 시의 본적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리라

티없이 깨끗한 사람들과 한작업반을 이루고  
열렬한 애국자들과 한식솔로 살며  
쇠를 깎던 그 손으로 내 조국을 받들고  
그처럼 열렬한 진정으로 선군혁명을 노래하며  
내 한생 선반공시절  
문학통신원시절에 살리라

아, 우리 장군님 사랑 담아 불러 주신  
선반공시인, 로동계급출신시인  
내 한생 다듬은 강철의 붓대로  
나는 쓰리라  
선군혁명 태양찬가를  
강성대국 최후승리의 서사시를  
오, 나는 선반공시인이다!

## 지혜와 총명, 어리석음

- 높은 산봉우리에는 구름과 안개가 떠나지 않으며 총명한 사람의 손에서는 책이 떨어 지지 않는다.(몽골)
- 지혜가 없으면 생활은 고통을 겪는다.(이란)
- 지혜는 인생의 앞길을 가리키는 빛발(영국)
- 하늘에 사다리를 세우는 사람(인디아)

- 양이 법과 맞서는 격(인도네시아)
- 총명한 사람은 배울수록 더욱 총명해 지고 미련한 사람은 배우지 않아 한평생을 어리석게 산다.(로씨야)
- 흰 머리털은 나이를 나타내는것이지 지혜를 나타내는것이 아니다.(그리스)

## 생활의 《진주》는 어디에 있는가

한미영

《...시인은 목숨 같은 한마디를 터치기 위해 시를 씁니다.》 누구의 말이었던가. 대학시절 시창작 수업시간에 머리 흰 로교수가 젊은 《희망시인》들에게 하던 말씀이다. 그때 나는 《목숨 같은 한마디》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세번이나 곱씹다가 (난 그 《한마디》를 《진주》라고 부르고파.) 하고 혼자 뇌이였다.

종자!-《목숨 같은 한마디!》-너는 곧 《진주》! 그때문이었던지 지금에 와서도 나는 자기 시를 쓸 때나 남의 시를 마주할 때나 매한가지로 하나의 《진주》를 캐내기에, 단 하나의 《진주》를 찾아 보기에 마음 태운다.

그러나 《진주조개》는 쉽게 캐지지 않는다.

### 발견, 착상-그것이 곧 《진주》일까?

개천-래성호물길을 노래한 시가 여러편 나왔다. 욕심대로 한다면 하나의 물길에 바쳐진 여러편의 시에서 웅당 개개의 《진주》를 찾아야 했었다. 그러나...

두편의 시에는 발견이 있었다. 시 《수문을 열며》(박상민)와 《병사들의 물마중》(리운기)이다. 시 《수문을 열며》는 첫행부터 남 다른 의미를 예감하게 한다.

이 수문  
운명의 대문이 던가  
나의 아버지 연풍의 수문을 열며  
물소리에 취했다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나도 취하며 수문을 연다

다음편 역시 첫행부터 더더욱 남 다른 의미를 예감케 한다.

아버지가 취했던  
감철륜대신 발간 단추 가볍게 놀려  
대각언제의 거대한 수문을 여니  
그리운 고향으로 달려 가듯  
사뭇치는 물모습이 장쾌하구나

미끄러지듯 또 다음편을 더듬었다.

가자 나도 함께 가자  
맨발로 물 따라  
보도랑 달리던 그 시절처럼

400리 굽이굽이  
물 따라 나도 함께 가가

확실히 발견이 있다.

시에서의 발견이란 《새롭다》는 의미인 동시에 형상적인 모든것이 잡혔다는 의미일것이다. 그리하여 시적발견이자 착상이라고들 한다.

이 시에는 바로 그 귀중한 착상이 있다. 시인은 우선 완공의 수문앞에 섰을뿐만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수문을 열고 있다. 서정적주인공으로서 무심히 대할수 없는 《운명의 문》이다.

전후 재더미만 남았던 어려운 시기, 복구건설의 웅대한 전망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어 제겼던 연풍의 수문! 《연풍저수지, 연풍저수지, 돌레돌레 어깨 결고 연풍저수지》하며 울며 흐느끼던 평안남도 농민들의 가슴속에 활짝 열렸던 운명의 문! 자고로 하늘만이 줄수 있는 물인줄 알았건만 하늘도 못 준 그 물을 우리의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셨다. 뽕기뽕기 아프게 널려 있던 《천수답》들이 수령님 부어 주신 생명수를 들이키며 몇천년 억눌려 참아 왔던 눈물의 분수를 솟구치던 그 감격을 무슨 말로 노래하랴.

그때 우리 농민들에게는 연풍의 그 수문이 그 대로 사회주의의 큰 《대문》이었다.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열어 놓았던 사회주의 《대문》, 그것은 정녕 이 나라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한 《운명의 문》이 아니었던가.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 새 세기의 오늘에 《나》가 그날의 아버지처럼 《운명의 문》을 연다.

사회주의를 지켜 자주적인강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를 버리고 노예가 되느냐 하는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속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잊지 못할 날과 달이 흘러 갔다. 조선의 운명은? 사회주의의 운명은? 바로 이때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앞에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전망도를 펼쳐 주시었다.

우리는 붉은기를 지킬뿐만아니라 더 높이 추켜 들고 펄펄 휘날려야 한다. 앉아서 난관을 극복하기만 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땅을 차고 일떠서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이야 말로 우리를 고립압살시키려는 미제에게 주는 조선의 대답이며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는 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지, 배짱과 담력을 그대로 받아 안은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우리 인민이 열어 제낀 《수문》은 몇십개던가, 몇백개던가. 오늘 서정적주인공이 《강철룬대신 빨간 단추 가볍게 놀러》 열어 제끼는 대각언제의 수문이야말로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그 불멸하는 위력을 과시하는 《운명의 대문》 인것이다.

후련하다. 여기까지 생각하고보니 속이 개운해진다. 헌데 문제는 《여기까지 보았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생각했다》고 쓰지 않으면 안되는 나의 서글픔에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주정토로》는 시인의 착상에 잇달아 내 나뉘므로 《무르익혀 본》 사색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시인은 앞에서 인용한 세개의 련을 통해 착상만 내보였을뿐 충분히 무르익히지 못하였다. 시인은 결구를 빌어 《나는 물만 보내지 않는다/선군시대 크나큰 쌀대문을 연다/》라고 《선언》했는데 이것이 굳이 종자라면 섭섭하거니와 그조차 자연스럽게 무르익지 못한것이다보니 낮 설기 그지없다. 그래도 가느다란 안도의 숨을 쉬었다. 왜? 불꽃 같은 발견이 있기때문에...

시 《병사들의 물마중》도 발견이 있는 시이다. 시인은 구체적인 아담한 생활화폭속에서 착상을 펼쳐 놓고 있다.

...

덤벼 치며 내뿜다 어푸러진  
조무래기들 안아 일으켜도 주며  
평충평충 매달리는 검둥이까지  
은 마을을 앞세운 병사들의 물마중

언제 보았던가 공사의 나날에야  
불이 일게 앞에서만 달렸지  
한모금 샘물로 갈증을 덜던  
그 쪼박시간마저 아까와  
달리며 입술을 훔치던 그때  
앞자리를 양보 몰랐던 병사들  
...

시적발견에 대한 기쁨에 앞서 눈곱이 먼지 달아 오른다. 그래, 그렇게 열린 우리의 물길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고 하며 물길공사장천막에 복무의 배낭들을 걸어 놓았던 병사들, 붉은기는 달려야 휘날린다고 질통을 진채 바람같이 내닫던 군인건설자들, 그들이 샘물 한모금도 서서 마셨던가, 물 한모금도 불이 일게 마셨다. 곡괭이와 삽과 정대를 사회주의수호의 총대로 받아 안고 강바닥에 선군병사의 긍지를 묻은 그런 영웅들이 있어 개천-태성호물길은 그리도 뜨겁게 고래쳤다.

《새 물길 앞장에서 열어 온 그들》, 앞장서 물마중해야 할 그들일진대 진작 완공의 오늘에는 어이하야 뒤편에만 서는가. 한마디가 기다려 진

다. 단 한마디가 추측된다. 선군시대 병사의 자리는 불마중 갈 때는 앞자리요, 물마중 갈 때는 뒤자리라는... 혹시 이보다 더 무겁고 더 뜨거운 한마디가 있을수 있다. 아니 많다. 그러나 시인은... 시의 맨 마지막련을 되풀이해 보자.

...

아 군모의 별이 빛난다  
새 물길우에 출렁이는 웃음과 행복  
인민의 가슴가슴에 채워 주며  
뒤에서 달려 가는 병사들의 머리우에...

허전하기 그지 없는 결구이다. 하긴 시 7련중에 이제까지 인용한 3개 련이 련달아 5,6,7에 이르는것이니 털어 놓고 말하여 시인의 착상은 5,6련에 불꽃이 튀어서 7련에서 꺼져 버린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상이었다.

발견, 착상-그것이 곧 《진주》일까? 아니다. 무르익히지 못한 발견, 착상은 꽃은 폼이 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 《시》는 있으나 《진주》는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생활을 늘 해부학적으로 보면서 그속에 스며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어떤 인간문제를 찾아낼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모대기기 때문에 생활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득하고 있을수 있다.》

생활의 본질은 모대김으로써만 체득할수 있는 값 높은 진리이다. 생활의 본질은 표면에 발려있지 않기때문에 작가에게 끝없이 사색하고 탐구하고 또 체험할것을 요구한다.

앞에서 언급한 두편의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편들을 여러번 읽어 보았다. 시형상측면 즉 서정의 흐름이라든가 운율이라든가 시어라든가 하는데 대해서는 말고라도 형상의 핵으로 되는 종자를 찾아 보았다. 그러나...

필요상 몇개의 시에서 그 마지막부분만을 인용하고자 한다.

...

거창한 대변혁의 천지개벽으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다 이뤄 진 땅에  
물농사 기계농사 과학농사 꽃이 피니  
억년 가물도 일썬 못하고  
마음 먹은대로 마음껏 농사 짓는  
새 계절이 새 물길을 따라  
벌써부터 두리둥둥 복소리 울리며  
만복을 싣고 찾아 왔습니다  
그 물결에 이끌려 서둘러 온 봄이  
세세년년 오곡백과 주렁 지을것입니다

(시 《내남벌의 새봄》)

새삼스럽다.

...

오는 물 흘러흘러 먼 길 왔어도  
힘든줄 모르고 설레이는 물결은  
시집 간 딸이 오듯 군대 간 아들 오듯  
어쩔줄 모르는 기쁨이런가

물이 오네 물이 오네  
장군님 열어 주신 물길을 따라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이 마주 오네  
꿈 같은 세월이 반기며 달려 오네  
(시 《물마중하네》)

그저 기쁘기만 하다는것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개천-태성호물길은 《시집 간 딸이 오듯, 군대 간 아들 오듯》만 출렁일수 없으며 《꿈 같은 세월이 반기며 달려 오》듯만 보일수가 없다.

다시,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보자. 시인이 아닌 한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적 있다. 개천-태성호물길이 완공된 다음 어떤 기회에 공중에서 물길을 내려다 볼수 있게 되었다. 개천-태성호물길은 끝은 길이 아니었다. 굽이굽이 몇굽이이던 지 미처 셀수가 없었다. 문득 내가 차를 타고 철령을 넘을 때 우리 장군님 먼저 가신 그 굽이굽이를 하나하나 세여 보던 일이 생각났다. 가슴이 뜨겁고 눈굽이 달아 올라 더 이상으로 셀수 없었다. 그런데 그처럼 굽이 많은 물길을 내려다보느라니 또다시 가슴이 뜨거워 갔다. 우리 장군님 열어 주신 저 물길, 전선길에서 구상하시고 펼쳐주신 400리 물길. 그러고보면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은 높고 험한 산악에만 뻗어 있는것이 아니었구나. 서해별방을 다 적시며 끝없이 이어 진 저 물길도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전선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크게 공감하였다. 그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위해 철령도 넘어 본 사람이고 개천-태성호물길공사에도 직접 참가한 사람이였다. 그는 시인이 아니였지만 그의 체험에는 바닥이 없었고 사색 또한 웅심 깊었다. 그를 《시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한 청년돌격대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나는 하많은 추억가운데서도 개천-태성호물길공사의 밤들을 가장 뜨겁게 간직한다. 우리는 밤마다 횡불을 켜들고 작업을 하군 하였는데 완공을 앞둔 최후결사전에서는 건설자전체가 자기 신발들에 불을 붙여 달고 돌진하였다. 지금은 이렇게 물이 출렁이고 있지만 그날에는 불이 흘렀다.

그날 물길을 따라 굽이치는 횡불의 대오를 보면서 나는 우리가 열어 가는 이 길이 물길이 아니라 불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물을 두고 불이라고 말하고 싶다.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한 청년돌격대원의 불 같은 토로였다. 그 역시 《시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이 두사람뿐이겠는가. 지금에도 그 건설자들의 심장을 두드리면 이런 《진주》알들이 몇천, 몇만개 나올것이다. 바로 그 헤아릴수 없이 많은 《진주알》들을 하나씩 집어다가 우리 시들에 박아 넣을순 없을가.

청년돌격대원은 단순한 물리적의미로서의 물과 불에 대해 말한것이 아니였다. 그보다는 자기의 심장에 불을 달았음을 토로하였다. 그러한 불길이 우리 시들에 활활 타번질순 없을가.

물론 시 《내남벌의 새봄》(김승남)은 시형상의 측면에서 볼 때 격이 있는 작품이다.

시인은 자기의 시에 참말로 새봄과 같은 짙은 정서를 부여하기에 애 썼다. 그는 붓에 먹물이 아니라 봄물을 찍어서 내남벌의 새 풍경을 정성스럽게 묘사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마치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을 방불케 한다. 기지개를 켜며 깨어 나는 벌, 새봄맞이, 새물맞이에 더 이빠지는 처녀들, 젊어 지는 로인들... 좋다. 형상이 매우 좋다. 이제 시인의 붓이 마지막점만 잘 찍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시는 그만 끝났다. 아쉽다. 정말 아쉽다. 그 아름다운 《풍경화》에서 핵이 빠지다니, 결국 종자탐구가 부족하였다. 기대했던 《새봄》의 새 의미는 밝혀지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이 시도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시인이 농민들속에 끼여 《얼씨구 절씨구》하며 어깨춤만 추고 있는듯이 보일수밖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가는 생활의 표면에서 일어 나는 파동에 현혹되지 말고 한결을 더 들어 가 그 파동을 일으킨 근본요인까지 파헤쳐야 작품에 담을수 있는 종자를 면바로 골라 잡을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언급한 시들에 종자가 없는 원인은 작가가 생활의 표면에서 일어 나는 파동에 현혹되어 생활의 본질을 깊이 투시하지 못한데 있다. 즉 선군시대의 기수인 시인이 응당 갖추어야 할 철학적인 사색과 탐구능력이 부족한데서 나타난 결함이 라고 본다.

아무 조개나 다 진주조개는 아니다.

진주빛을 띤 조개비는 많으나 진주알을 감추고 있는 진짜 진주조개를 찾기란 험치 않다.

진주조개는 기슭에가 아니라 한결을 더 들어가 깊은 바다속에 있다.

생활의 《진주》는 어디에 있는가.

시인들이여, 가자. 개천-태성호물길로, 그 거창한 생활의 바다속으로.

깊디깊은 생활의 바다속에 몸을 잠그자. 그속에서 체험과 사색과 탐구가 비낀 종자, 생활의 《진주》, 시의 《진주》를 건져 내자.

## 흙과 속삭인다

한광춘

피줄이 툭툭 뛰는 생명처럼  
나의 숨결이 이어진 살붙이처럼  
소중히 안고  
마음속 뜨거운 말을 속삭인다  
드넓은 전야의 한줄 흙이어

은가루를 뿌린듯  
아침이슬은 보석처럼 반짝이는데  
내 심장을 그려잡는 흙이어  
너를 두고 누가 묵묵하다 했더냐  
너에겐 뜻도 열도 없다 했더냐

조용히 귀 기울이면  
세월을 넘어 울려 오는 소리  
분여된 땅에 주인의 첫 발목을 박던  
그 봄날의 환희를 너는 내뿜고  
잠 못들던 그밤들의 걱정을 너는 터치고 있구나

어디 가나 밟을수 있고  
어디서나 보이는 혼한것이라 해도  
귀중한 목숨들이 이 한줄과 바꾸어 졌다  
너를 잃으면 삶을 빼앗기고 조국도 잃기에  
너 없이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에

전선에서 못 돌아 온 나의 할아버지생은  
색 날은 사진첩속에 숨 쉬고 있어도  
이 흙속에선 오늘도 고동치며 흐르고 있거니  
그 모든 피와 땀에 젖어  
너의 빛같은 이리도 검붉은것인가

나도 너도 어이 잊으리  
고난의 그 나날  
거품 물고 달려 든 원수들과의 결전은  
이 한줄한줄의 수호전이었다  
그 나날에 증오의 창검을 비껴 든  
우리 운명의 전호가 여기에 있었나니

기쁨과 추억 한쟁까지도  
다 묻고 사는 땅아 나는 너의 주인  
그 어떤 금싸라크도  
이 손에서 부서져 내리는  
한점한점의 흙보다 귀중치 않아라

아 그 무엇으로 너의 무게 헤아려야 한다면  
나는 이 한줄에  
내 삶과 내 행복의 무게를 얹으리라  
선군의 봄빛아래 젊어 진 청춘대지여  
나는 영원히 너의 주인이다

## 정다운 발동소리

김충기

발동소리 어둠을 깨치는  
열두삼천리벌의 이른 새벽  
젊은 안해 들가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덥힌 남편의 밥그릇 싸들고

사연 많은 토지정리전투의 나날  
결혼의 첫정을 마음 다해 나누며  
대지를 넓혀 온 운전수부부  
시장가에 달 지고 별 지도룩  
늘쌍 불도젤 나란히 함께 몰더니

얼마전부터 밤작업은  
남편 혼자 도맡아 하군 합니다  
몸이 무거워진 안해 찬바람 맞을가  
아끼는 그 마음

허나 귀 익은 발동소리 새겨 들으며  
간밤에도 잠들수 없었던 안해  
알릴듯 말듯 불룩해진 몸

제 남편앞에서조차 부끄러워 하며  
불도젤을 마주 향해 다가가는데

보십시오  
며칠밤 지새운 피곤도 다 잊은듯  
안해를 반겨  
이 땅에 태여날 미래를 반겨  
새벽의 노을빛마냥 피여 나는 저 미소

남편은 지금 들려 주고 있습니다  
정 깊은 안해에게 이제 안아 볼 아기에게  
긴밤 속삭이고 싶었던 그 모든 이야기  
다만 발동소리 발동소리에 다 담아

아, 머지 않아 태여날 새 생명의 고고성인듯  
젊어 지는 대지의 새 교향악인듯  
들 가득 우렁차게 울려 갑니다  
새벽녘의 발동소리  
정다운 발동소리...

## 신광사의 물소리 외 2편

김니(1540~1622)

김복련역

류당 김니(1540~1622)는 함경남도 정평군의 평민가정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문장과 무예에 뛰어났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 나자 그는 김응서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싸움에 떨쳐 나서 큰 공을 세웠으며 그후 왜적들이 독도에 쳐들어왔을 때에는 수군대장으로 용약 전장에 달려가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남달리 문장에 뛰어났으며 시 읊기를 몹시도 즐기던 그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 지는 싸움터에서 옛시를 류창하게 읊어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류당집》이 전해 지고 있다.

아래에 그의 시를 소개한다.

### 신광사의 물소리

산아래로는 높은 루대  
루아래로는 맑은 시내물  
이 나라의 흥망사 다 담아 싣고  
애절하게 흐르누나

소식

## 《언어올림픽》에서 패권을 잡은 조선어

최근 국제무대에서는 《언어올림픽》이라는 명칭을 단 《언어경기》가 진행되었다.

《언어올림픽》이란 세계의 다종다양한 언어들이 참가하여 자기의 고유한 언어학적특징들을 겨루어 등수를 가르는 경기이다.

일반체육경기와 마찬가지로 《언어올림픽》에도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언어도 현재 공식적으로 쓰이는 공용어, 방언, 소수민족어, 토착어들이 다 망라되고 있다.

현재 세계에는 약 2만개를 헤아리는 각이한 민족들이 5,600개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중에서 사용인구가 5,000만명이 넘는 언어는 조선어를 비롯하여 15개 정도이다.

《언어올림픽》은 매개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세계적인 판도의 언어에 비해 볼때 어떤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가를 겨루는 경기이다.

최근에 진행된 《언어올림픽》에서는 19개의 경기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에 따르는 최우수언어들을 선출하였다. 그중에서 의성의태어가 가장 많은 언어로서는 조선어라는것이 인정되어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어는 말소리가 아름답고 류창하며 발음에 의한 형상이 풍부할뿐 아니라 어휘와 표현, 문체가 세련되어 있는 등

밤낮으로 구슬피 울며 흐른다  
시내물 무정타 말하지 말게  
천고에 쌓이고 쌓인 원한  
저 물소리 다 씻어 준다오

### 임진년의 싸움터에서

삼태성도 기운 밤 만명 군사 거느리고  
징복소리 요란히 싸움터에 앞장 섰네  
관가정사 능하여 으름으로 뿔히더니  
승전고 노래높이 궁성으로 돌아 오네

### 독도에서의 승리

수군대장 풍류시 무던히도 즐기여  
변란 보고 듣고도 옛시를 읊었더니  
해 지는 바다가에 쇠북소리 울리고  
돌격나팔소리에 승리의 기 떨치누나

우수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의성의태어는 세계의 다른 언어들에 비할바없이 풍부하다.

의성어는 외부세계에서 들리는 음향이나 각종 동물의 울음소리 등을 묘사한 단어를 말하며 의태어는 소리 없는 사물의 모양을 묘사한 단어를 말한다. 실례로 물흐름과 관련된 단어 《졸졸》, 《철철》 등은 의성어이며 별이 비치는 모양을 나타낸 《반짝반짝》, 《깜빡깜빡》 등은 의태어이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언어들에는 이러한 어휘들이 매우 적는데 사전에 의태어는 전혀 없고 의성어가 좀 있을뿐이다.

최첨단수단에 의거하여 산출해 낸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전들에 대한 조사에서 조선어의 의성의태어는 8,800~10,000개이상으로, 어휘사용률은 16.9~34.2%로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통계값은 의성의태어수가 몇백개정도인 유럽어는 물론 그 어느 나라 언어와도 비할바가 안되었다.

따라서 조선어는 사물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원만히 표현할수 있는 풍부한 형상적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어휘의 산생이 매우 활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으로써 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 새로 온 려단장

김성희

개천-태성호물길의 첫 어구-취입구로부터 시작된 량강도려단이 맡은 구간은 온 물길건설장의 관심사로 되었다.

파연 해낼수 있을것인가. 그것도 그럴것이 착공한지 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전량의 20프로계선을 넘지 못했고 더우기 물길의 운명을 안은 대절토구간의 25만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앉아 있었기때문이었다. 어느 틈에 중앙지휘부의 일군들에겐 이 구간은 량강도려단의 자체력량만으로는 점령 못할 요새로 인정되어 버렸다.

물길중앙지휘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각 려단의 우승대대들을 집중시키는 조치를 취할것인가, 대절토구간을 피하여 물길을 돌릴것인가.

량강도려단돌격대에서는 중앙지휘부의 이 제안에 무언으로 항변하였다. 우리는 백두산을 안고 사는 량강도사람들이다. 우리가 어찌 남에게 의존할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백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증명하여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때 량강도려단에 새 려단장이 도착하였다.

술진 눈섭밑에 파묻힌 두눈은 사색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어 학자다운 인상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50대 중반기의 체대 큰 일군이였다.

새 려단장과 함께 려단이 맡은 구간을 돌아 보면 려단정치부장 강문철은 말 한마디없이 침중한 빛으로 묵묵히 걸음을 옮겨 짙는 그에게 물었다.

《그래, 돌아 보니 어떻습니까?》

《여개가 무겁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뜬개천으로 새옷을 만들기는 더 힘들다는...》

강문철은 애돌줄 모르는 려단장의 직선적인 표현에 웃음으로 공감하였다.

《흔히 옷을 마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하더군요. 새천으로 옷을 만들기보다 낡은걸 뜯어 고치는 일이 더 품이 들고 더 머리를 써야 한다고요.》

재단사나 재봉사들이면 레사롭게 체험하는 일에 자기의 무거운 심중을 태워 보는 이 학자풍의 지휘관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이 어망치만한 《뜬개천》으로 추세에 어울리는 《새옷》을 제 시간에 만들어 낼수 있을것인가.

강문철의 마음은 왜선지 든든해 졌다. 짧은 말속에 깊은 뜻을 담을줄 아는 침착하고 무게 있는 언행앞에서 속대 있고 배짱 있는 지휘관이라는 믿음에 가슴이 넓어 졌다.

《우리한텐 이제 1년밖에 없습니다. 다른 려단

들에서는 남은 1년동안에 20프로의 잔량을 돌파하면 되겠지만 우리 려단은 반대로 80프로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를 안고 려단장동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녀성들의 일감에다 대비하니 굳어 켜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군요. 허, 허》

《너무 아름답치니 객적게 튀어 나간가 봅시다.》

려단장의 사색적인 두눈이 짙은 눈섭밑에 더 깊이 들어 갔다. 앞으로 남은 1년동안에 공사의 전량과 거의 맞먹는 80프로를 해제끼자면 그야말로 초인간적인것이 필요하다. 초인간적인것이...

려단장 공하준은 25만산 대절토구간에서 땀발파로 한꺼풀씩 벗겨 내는 작업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저런 식으로는 10년도 모자란다. 저런 식으로야 언제 끝장을 낼수 있단 말인가. 우린 공사기일을 보장하는 길이라면 한몸이 그대로 화약이 되고 도폭심지가 되어서라도 저놈의 25만산을 단번에 들어 내야만 한다. 그래 출로는 대발파다! 대발파만이 저 거만한 25만산의 몸통이를 빼개낼수 있다!

《대발파를 왜 결심하지 못했구요?》

벌써 두번째로 묻는 말이였다. 묻고 보니 아가 정치부장이 자세히 설명한것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랬으나 처음 들을 때처럼 귀 담아 여겨 들었다. 혹시 대발파가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으면서...

정치부장은 진중하게 또 한번 설명하였다.

...여기 개천은 석회암지대로 유명하다. 석회암지대에는 의례히 파쇄충암반과 공동이 있기마련인데 여기 25만산이라고 청암과 진흙충만일수 없다. 만약 이런 자연지리적조건을 무시하고 대발파를 시도했다가 기대하는 발파효률을 보장 못하는 날에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현지조사를 한 세 발파전문가들중 두명은 완전히 머리를 짓고 한명만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의사를 달리하였다. 그것도 《혹시》라는 막연한 전제가 달린 가능성이였다.

하지만 가능성은 곧 현실성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대발파가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군요. 33프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공하준은 혼자말처럼 뇌이며 꺼뒀한 응자로 틀고 앉은 25만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우리는 단 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



을 현실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죽어나사나 대발파를 해야 한다. 내가 너무 서부른건 아닐가. 전 러단장도 선뜻 결심하지 못한것을 너무도 단순하게 결심하는건 아닐가. 단순하다?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서부르고 단순하단 말인가.

한초한초가 귀중한 이때 지휘관인 내가 결심 하나 제때에 채택하지 못해 공사기일을 지연시킨다면...

결심하자, 대발파다! 대발파만이 공사기일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결심했습니까?》

아까부터 러단장의 옆얼굴을 주시하던 강문철이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공하준은 입을 꼭 다문채 고개만 끄덕이였다.

《전 러단장은 웅근 1년이나 결심하지 못한걸 새 러단장은 단 하루동안에 결심하다니요, 러단장동무 별호가 <해산혁명가>라더니...》

강문철의 어조는 문득 감탄조로 넘어 갔다.

《새로 온 사람이 새롭게 보면 더 큰것을 보게 되지요. 당에서는 우리 지휘관들이 대담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할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담하게 작전한다구 해서 대발파의 기술적조건을 무시하는건 아니겠지요.》

《물론입니다. 래일이라도 당장 대발파를 주장한 박사선생을 찾아 가겠습니다. 좋은 수가 있을겁니다. 거 속담에두 있지요. 지향이 강하면 문이 열린다는...》

《웁니다. 일을 할수 있는 사람보다 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말도 있지요. 참 그 별호 있잖습니까. <해산혁명가>? 무슨 사연이 있을것 같은데요?》

《사연이야 무슨... 뭐 별거 아니지요.》

공하준은 대발파라는 어마어마한 결심을 한 자기의 마음을 농쳐 주려고 애 쓰는 정치부장이 고맙게 여겨 졌다.

《참, 여기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요? 어느 대댐니까. 여기루 부를가요?》

《차츰 만나보지요. 이젠 줄창 코 맞대고 살것인데요.》

새 러단장을 맞은 대대장, 중대장들의 표정은 환희에 찬것들이였다. 새 러단장에 대한 호감이랄가 신뢰감이랄가. 마주 잡은 손아귀는 역세고 뜨거웠다.

새 러단장의 《부임인사》는 곧 참모회의로 넘어 갔다. 사람들은 공사를 1년동안에 다그치기 위한 평소의 자기 생각들을 발표하는데서 주저 않고 기탄없었다.

공하준은 대발파소리가 나오길 은근히 고대했

으나 그들은 《F-10》(암질의 군기를 표시한것)이라는 청암에 위압 당한듯 싶었다.

대발파가 불가능하다는 발파전문가들의 선언을 이미 확고한것으로 받아 들였는지도 몰랐다. 이제라도 중앙지휘부 의견대로 설계를 고치고 물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울렸다.

속이 답답해 난 공하준은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누가 담배 없소? 한대 좀 불이گی오.》

저마다 주머니를 뒤지며 담배를 찾았다.

《러단장동지! 여기 있습니다.》

이때 마치 이런 때를 기다리기라도 한듯 한 청년이 벌떡 일어 나 처벅처벅 다가왔다. 달려 와서는 줌안의것을 닥치며 내밀었다. 량강도특산인 독한 씨레기담배였다.

그 순간 공하준의 사색적인 눈에 놀랍고 반가운 표정이 확- 어렸다.

(경진이?)

그는 1년전에 물길공사장으로 떠났던 아들을 알아 보았다.

아들은 태연자약한 눈길로 아버지를 굽어 보고 있었다.

《러단장동지! 우린 무조건 대발파를 해야 합니다. 물질을 돌려자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우린 죽어나사나 대발파를 해서 물질을 끝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대발파를 결심 못하겠으면 러단장동지도 물려서십시오. 물려 서겠으면 하루라도 빨리 물려서란 말입니다. 그래야 할 사람이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공하준은 아연한 눈으로 마주 선 아들을 지켜 보았다.

마치 꿈을 꾸는듯 한 환각이 들었다. 1년만에 만나는 아들이 이런 장소에 불쑥 나타나 자기를 다물아 대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본 일이었다.

아들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갑자기 무엇을 상기시키듯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러 단 장 동 지!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약속? 무슨 약속 말인가. 가만, 저렇게 단호한 어조로?...

생각났다. 아들이 물길공사장에 떠날 때 아들이 하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버지, 전 영웅이 되기전에 아버지앞에 절대루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때 자기는 그저 웃어 넘겼다. 아버지의 그 웃음이 너그러움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안 아들은 저으기 조바심이 나서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아버지가 불원천리 찾아 오신대두 말이예요.》

《영웅은 청춘시절에 누구나 풀수 있는 꿈에 있

지 않다. 보다는 꾸준한 노력에 있는거다. 애, 난 네가 영웅이 되는건 반대 없지만 영웅이 뒤집 애이름이 아니라는걸 강조하고 싶다.》

《아버지두, 그런 포부도 없어야 무슨 청춘이겠습니까. 꿈이 커야 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전 약속했습니다.》…

려단장은 아들의 말뜻을 깨닫는 순간 목직한것을 받아 안은 때처럼 온몸이 빠근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여 그 《약속》을 지킬것을 다시금 약속하였다. 그 순간 자기 마음이 넓어 지고 굳건해 지는것을 푹푹히 체험하였다.

《한데… 동문 누구요?》

대발파를 적극 지지해 나서는 아들이 고마왔으나 아들의 《약속》에 성실하는 목소리는 틀지고 령정하였다.

《해산대대 1중대장 공경진.》

경진은 쟁쟁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대대장들은 술렁거렸다. 전 려단장한테도 받게질을 잘하더니 그 본새가 새 려단장앞에서 또 살아 났다고 수군들 댔다. 아들은 그런 분위기엔 주눅이 들지 않은채 말을 이었다.

《려단장동지, 전 려단장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있을지 말지 한 공동에 지내 겹을 먹었지요. 두사람이 반대했다고 한사람의 가능성에 기대 조차 걸지 않았습시다.

우린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보냅시다.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남아 무조건 대발파를 하잔 말입니다.

려단장동지, 대발파준비에서 제일 어려운 곳에 우리 중대를 불러 주십시오.》

아들은 말을 마치자 의미 깊게 건듯 목을 숙여 보이고 돌아 섰다.

공하준은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 보았다.

(원, 누굴 닮아 저렇게 감때 사납담. 참, 세차기 두…)

《려단장동지!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옆에 앉았던 참모장이 조용히 말했다.

《저 1중대장은 어떤 사람이요?》

공하준이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여기 공사장에선 나무랄데 없다 했는데 너무 뻔칩니다. 이자두 보셨지요? 전 려단장한테두 내놓고 공격했습니다.

<오늘의 거창한 공사를 지휘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를 내라. 자리를 내졌으면 하루빨리 내라!> 이렇게 호통을 쳤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는데 참 명답입니다. <그 사람이 설사 아버지였대두 지휘관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로는 받들지언정 지휘관으로는 받들지 못하겠다.>》

《음-》

려단장의 꼭 다문 입에서 신음소리 같은 미묘한 소리가 흘러 나왔다. 한참만에야 려단장은 결연히 고개를 쳐들었다.

《저 동무가 옳게 말했소. 지휘관동무들! 우리 각성합시다. 모든것이 우리 지휘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혁명군대지휘관들이 지녔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발휘해 나갑시다. 그러지 않으면 현실은 우릴 밀어 냅니다. 현실이 밀어 내기전에 우린 스스로가…》

그 이어 지지 않은 속대사가 사람들의 가슴을 슬그머니 울리었다.

공하준은 다음날로 발파박사를 만났다.

박사는 새로 온 려단장의 무엇에 반했는지 아무말 없이 자기 이름을 수표한 대발파설계를 내놓았다.

그것이 천만마디를 대신하는것이여서 그는 박사의 연하고 부드러운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 잡았다.

25만산 대절토구간은 대발파로만 돌파해야 한다는 의식이 한마디의 웅변도 없이 누구나에게 스스로 인식되었다.

공하준은 려단의 기본력량을 대발파준비에 배비하고 총 공세를 들이대었다. 사회주의경쟁요강이 세워 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려단은 대발파준비로 활기를 띠었다.

한겨울씩 벗겨 내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25만산의 지심깊이 맞굴을 뚫고 술한 가지굴을 치는 대발파준비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착암기며 압축기, 동발목으로 주춤거리기도 했다

함마와 정대가 보충되었다. 대대들에서는 야장간을 차려 놓고 정대를 버려 내었다.

수굴을 전문으로 하는 대대들이 늘어 났다.

려단장은 암질세기가 《10》인데다가 도간도간 진흙층이 끼여 있어 붕락이 심하게 예견되는 2호 구역에 해산대대를 배치하였다.

《어떻습니까. <새웃> 만들기가 조련치 않지요?》

부임 첫날에 난감해서 한 말을 상기시키며 정치부장이 려단지휘부에 들어 섰다.

공하준은 대발파설계에서 머리를 들며 정치부장을 맞았다.

《혈하지야 않지요. 오죽하면 전 려단장도 물려시켰겠습니까. 나두 뭐 그럴 생각이 없은건 아닙니다. 한데 아들놈한테 된 방망이로 맞은게 약이 됐는지 약한 생각은 흑- 달아났습시다.》

《허허… 아들은 만나보았는가요? 어떻습니까? 추가진 않았습니까?》

《추가다니요? 박달나무보다 더 든든해 졌는걸요. 참, 부장동무도 봤지요? 저 25만산에서 참모

회의를 할 때 나를 다귀 대던 그 혜산대대 1중대장 말입니다.》

공하준은 허거프게 웃으며 자기와 아들사이에 있는 《약속》을 털어 놓았다.

《예-예? 그 중대장이 아들이요? 그러구보니 신통합니다. 그 말하는거랑 행동거지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 녀석이 엉큼하던데요.

술한 대대장들앞에서 <려단장동지!> 하고 깎듯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다 속았다니까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교양을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휘관들한테 반개질이나 하구 호통을 쳤다니...》

《아니지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만이 속에 있는 소리를 배짱 있게 하는 법이지요. 듣기 좋은 말로 외교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슬릴지 몰라도 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후련합니까.

허허... 영웅이 되어서 아버지앞에 나선다?- 아들을 장하게 여기십시오. 그쯤도 안하구야 려단장동무 아들이 아니지요. 도와 줍시다. 나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하준은 정치부장의 너부죽한 얼굴을 새롭게 마주 보았다. 마주 앉으면 언제나 속을 터놓고 의지하고 싶어 지는 당일군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어 졌다.

《아래서 려단장동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시다.》

강문철은 웃으며 말꼭지를 뗐다.

공하준은 긴장해 졌다.

《어떤 의견인데요?》

《운전사가 교체해 달라더군요. 새 려단장이 자기가 싫어서 <제비>만 탄다구요.》

《예-예? 난 또... 새벽에 한바퀴 돌아 봐야겠는데 곤한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기가 미안하지요.》

《려단장동무, 이 물길은 려단장동무 혼자선 안됩니다. 아래사람들 심정을 리해해 주셔야지요. <갱생>은 새벽이든 야밤이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공하준은 버릇대로 려단지휘부마당에 있는 《제비》에 몸을 솟구는데 웬일인지 탄력이 느껴 지지 않았다. 얼핏 보기에다 바람이 센것이 알려졌다. 엿저녁만 해도 팽팽했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바구니에서 뿔프를 꺼내려는데 환한 불빛이 쏟아 졌다.

그 순간 공하준에게는 어제 정치부장의 비판이 떠올리며 가슴 뭉클 솟구치는것이 있었다. 그는 《갱생》에로 다가가며 손을 쳐들어 보였다.

《고맙소! 원 사람두 장밤 운전칸에서 쟤구만.》

《그럼 어쩍니까. 또 놓치겠는데요.》

《내 동무 수엔 졌소. 한바퀴 돌아 보자구. 로정은 동무가 정하오.》

《갱생》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공하준의 입에서는 문득 노래가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나 준엄한 날이 이 땅에 흘렀던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었던가

피눈물언덕에서 장군님 시작하신

고난의 그 행군을 우리는 잊지 않으리

《풍산대대에 나갔다가 거기 동무들이 부르는걸 귀동냥했소. 난 왜선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이 뭉클해 지군 하오.》

공하준은 그저 묵묵히 조향륜을 돌리는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려단장동진 류별난데가 많습니다. 어떤 땐 마음 좋은 외할아버지 같기도 하구 또 어떤 땐 범같은 아버지 같기도 하구...》

《장동무! 이제 대발과를 해놓구 대대별 예술소조경연을 해보자구. 그땐 나두 멋 있게 한곡조 불러 보겠소... 노래 부를 내기를 하면 아마 풍산이 제일일거야. 그 동무들은 수굴을 노래로 지휘하는데 정말 볼만 하다오.》

《수굴을 노래로요?》

《굴췌 말이요. 한가지씩 전형을 창조하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런 멋진걸 생각해 내지 않았겠소. 작업실적은 1.7배로 뛰어 오른다오. 어젠 텔레비존 촬영가들이 찍어 갔소.》

《이거 사기나는데요. 흥할 집안에 좋은 손님이 있다더니... 이제 두고 보십시오. 우리두 장훈을 부르지 않나.》

《갱생》은 어느새 25만산에 이르렀다. 운전사는 진흙덩이들이 널린 길을 툭아 한치한치 전진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진흙덩이를 타고 넘을 때마다 차체가 들썩거렸다. 길 아닌 길에 들어 서서 한참이나 험썩이는데 덩달아 발동까지 죽어 버렸다. 운전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바를 몰라 했다.

《장동무! 내 돌아 보고 갈테니 먼저 들어 가오. 어떻소, 그러니 나한테 <제비>가 잘 맞지? 여긴 그제 더 기동성 있거든.》

《알겠습니다. 이제 <제비>정비를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

공하준은 혜산대대쪽으로 발길을 옮기었다.

어둠이 덮인 공사장에 고요가 깃들었다.

그 고요를 휘젓기라도 하듯 전지불이 비쳤다.

휘 휘 비치는 전지불이 무등 반가움을 자아냈다.

그는 전지불이 다가오는것을 기다렸다가 놀라지 않도록 전지불을 마주 비쳤다. 넓은 흰 이마에 두툼한 입술의 인상적인 청년이 비쳐 졌다.

《어, 해산대대 시공참모! 내 려단장이요!》

그 청년은 자기를 대뜸 알아 보는 려단장이 신기한듯 멍하니 마주 보기만 했다.

《듣던바 그대로군. 내 동무에 대해서 좀 아오. 전직은 해산농림대학 연구원생, 별명은 <베아링>!...》

참모장의 말이 해산대대가 반복시공이 없이 실적이 있는 대대라더니 그말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베아링》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것을 깨닫는 순간 공하준의 가슴은 그들먹해 지는 기쁨으로 숨이 다 가뻐다.

《내 동무를 만나고 싶었었는데 이런데서 만나니 더 기쁘구만.

직방 말하겠소. 난 동무 의향을 묻지 않고 려단으로 소환할 결심을 했소!》

려단장의 갑작스러운 제의에 바빠 맞은 넓은 흰 이마가 언뜻 다가왔다.

《우리 대대장동진 찬성 안할겁니다.》

《그럴수 없소. 그도 찬성할거요.》

인재를 찾아 내고 쓸줄 아는것도 지휘관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제 아무리 실력가라 해도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수는 없다. 더구나 매일매 시각 달라지는 드넓은 물질공사장이 아닌가!

공사장의 전반실패를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 보듯이 확연히 알지 못한다면 그만큼 자기 사업의 빈 공간을 의미하는것이다. 려단장은 바로 이 《베아링》이 그 공간을 메워 주길 바랐다.

공하준은 《베아링》을 참모부의 시공참모로 임명하였다. 건설에서 특히는 토량공사를 기본으로

하는 물질공사장에서 시공은 0.1밀리미터의 에누리도 그 오차가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는것이어서 높은 책임성과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임이었다. 더구나 1년동안에 80프로의 공사량을 제껴야 하는 긴박감과 촉박한 정황으로 반복시공은 그 어떤 사소한것이든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것이였다.

해산대대장이 반대할거라는 《베아링》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해산대대장이 붉으락푸르락해서 나타났다.

《려단장동지, 이거 낮도 익히기전에 너무합니다. 대대 인재를 가을무우 뽑듯 그렇게 훌 뽑아가는 법이 어데 있습니까.

난 못 보내겠습니다. 구간은 제일 험한데다 붙여 놓구 사람은 뽑아 가구...》

《우리 이렇게 합시다. 며칠만 려단일을 맡아

보시오. 그동안 내가 그 동무없이 대대를 지휘하겠소.》

려단장의 침착한 목소리에 대대장은 어쩔수 없다는듯 머리를 주억거리더니 무슨 기발한 생각을 해낸듯 려단장을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굴착기를 하루만 주십시오.》

《그건 안되오. 굴착기는 처음 토론한대로 대대들에서 한시간을 초과할수 없소.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하오.》

하루 한시간! 굴착기는 그 한시간동안에 온 대대가 하루종일 일할수 있는 선행공정을 맡아 제껴야 하는것이다. 굴착기가 해산대대에 하루 머무르면 다른 대대들에 파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려단장은 굴착기와 인력의 작업효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는 방도로써 이 계획을 한지도 양보하여서는 안되리라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어느 대대든 이것을 어기면 순탄하게 올리는 대교향곡에 인차 불협화음이 울릴것이였다.

려단시공참모는 대대들의 작업조건에 맞는 계획 대 실적을 정확히 장악하고 구체적인 수자를 안받침하며 설계의 요구에 맞게 진척되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느라 그 별명 그대로 《베아링》이 되어 돌아 갔다.

주먹구구식으로 돌격구령만 치던 지휘관들이 각성되였다.

대대장들은 자기들부터가 매 사람의 구체적인 작업분담을 가지고 수자를 생각하게 되였고 수자를 가지고 실적을 말하기 시작했다. 불비한 조건만 앞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적을 더 낼수 있겠는가에 더 열을 올리였다. 하루공사실적을 놓고 총화 할 때에는 웬만큼 속대가 센 대대장들도 속이 후두두 떨려 나 몇번이고 사업수첩을 뒤지며 정확한 수자를 도출해 내느라 모지름을 썼다.

대대의 전투사기를 올리려고 우선 이기고 보자는 승벽심에 불군 수자를 마른 침과 함께 내뱉기도 했다. 그런 대대장은 영낙없이 려단장의 《독살》에 혼줄이 나군 했다. 그들은 려단장이 《베아링》에 앞서 《제비》와 함께 현장을 속속들이 답사하고 끈끈이 장악하고 있는줄은 미처 몰랐었다.

려단장의 첫 《독살》을 맞은것은 풍서대대장이였다. 그는 전 려단장때처럼 가동로력은 얼마, 한로력당 토량운반은 몇팅방 하고 얼마간씩 보태가며 실무적으로 보고하다가 추상같이 부르짖는 려단장의 교함소리에 정신을 벌걱 차렸다.

《대대장! 쉼세기를 다시 배워야겠어? 여기가 소학교 산수시간인줄 알아. 아직 수자가 뭔지도 모르는게 무슨 대대장이야!》

려단장은 상대방을 지그시 노려 보았다. ...  
저녁식사를 설 때린 려단장은 중앙지휘부에 보  
낸 문건을 정리하는 《베아링》을 찾았다.

《어데 가서 장기관을 구해 쓸수 없을까?》

《갑자기 웬 장기입니까?》 하고 묻는듯 한 《베  
아링》의 눈빛이 려단장을 보았다.

《글쎄, 오늘은 장기를 두고 싶구만.》

《베아링》은 한밤중에 큰 장기관을 옆에 끼고  
나타났다.

《고맙소. 내 풍서대대에 갔다 오겠소!》

《이 밤중예요? 가겠으면 함께 갑시다.》

저녁총화때문이라고 짐작했는지 말리지를 못하고  
《함께》 하고 나서주는 《베아링》이 고마왔다.

《동문 제 할 일이 있잖소. 내 한판만 두고 오  
지.》

공하준은 《베아링》한테서 장기관을 넘겨 받고  
어둠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질척거리는 진창  
길이었다. 낮에 바람이 난 《제비》를 제동시키느  
라 앞바퀴살잡에 콧 쑤서 넣었던 오른발이 뜨끔  
거리며 쑤서 났다. 저 멀리 풍서대대의 외등이  
반짝거렸다. 공하준은 입술을 으깨물며 외등을  
향하여 절룩절룩 진창길을 재우쳤다.

《아니, 이거 려단장동지가?... 웬일입니까?》

뜻밖에 나타난 려단장을 맞이한 량주홍대대장  
은 놀랜 소리를 냈다.

《내 듣기에 장기귀신이라는데 수가 어떤지 내  
기 하러 왔소!》

《나하구 장기내길요? 이 밤중예요?》

《놀라긴 되젠 놀라는군. 왜 이길것 같지 못한  
가?》

《누가요? 내가요? 내 다른진 몰라두 장기만은  
양보 안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 두겠습니다. 려  
단장동지! 제발 이리저 마십시오. 날 차라리 더  
때려 주십시오. 려단장이 장기만 두려 오지 않았  
다는걸 내 다 압니다.》

량주홍대대장은 려단장에게 자기 베개를 놓아  
주며 잡자리에 눕혀 주었다.

공하준은 잡자리에서 일군이라면 경제실무수준  
을 높이고 수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한  
마디 하려다가 급게 잠을 청하였다.

대대장의 감심한 태도에서 그가 자기의 실책을  
통절히 뉘우치고 있음을 잘 알았던것이다.

하늘에서는 장마비 땅속에서도 물주머니가 터  
졌는지 온통 물, 물세례였다.

소랭이, 바께뜨... 물을 퍼낼수 있는 그릇들은  
충동원하였다.

장마철이어서 퍼낸 물이 다시 굴속으로 스며  
드는지 퍼내고 퍼내어도 한본새로 불어 나는 물  
이 야속해 처녀들은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이런 뎨 우는게 아니다. 봐라! 너희들이 우니  
물만 더 보태지지 않니?》려단장이 둘러 메고 온  
양수기호스를 물속에 들이박으며 처녀들을 우스  
개소리로 달래었다. 호스가 미어나게 물이 나갔  
으나 비 때문인지 굴안의 물은 여전히 허리를 차  
게 출렁거렸다.

《제길, 큰일났는데... <하느님>이 오줌사텔 만  
났어. 제기랄것, 밤낮없이 싸대거든.》

경진이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해대며 투덜거렸  
다.

《시비질하기 좋아 하면 하늘에 대고도 시비한  
다더니... 1중대장! 그 호킨 다 물에 떠내려 보냈  
나? 비라는건 소학교 학생들이 등산 갈 때나 안  
오면 돼. 그 외야 뭐...》

려단장은 제잡담하고 허리치는 물속에 뛰여 들  
어 소랭이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려단장의 해학적인 말에서 사람들은 따스하고  
포근한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정말 이러한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배짱을 가다듬게 되었다. 정  
말이다. 이간놈의 비!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자연의 도전! 아무리 내려 봐라. 어데 누가 이기  
나 보자.

양수기와 인력으로 근기 있게 립체전을 벌렸더  
니 어느덧 물사태도 바닥이 나는듯 했다. 그러자  
기다린듯 봉락이 다가섰다.

혹시 공동이? 매번 봉락때마다 이런 생각이 번  
개 치듯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려하는 공동이 아니었다.  
다행한 한숨끝에 봉락극복전투가 진행되었다.

물 아닌 물, 흙 아닌 흙을 퍼내느라 처녀도 총  
각도 모두가 감탕사람이 되었다. 감탕이 된 진흙  
을 마대로 퍼담아 내고 동발을 세우는데 어데선  
가 려단장을 찾는 소리가 다급하였다. 20여리 량  
강도려단구간에서 어데서나 《려단장!》, 《려단장!》  
이다. 려단장은 한열에 세워 두었던 《제비》에 몸  
을 싣고 물길공사를 하는 광업대대로 달려 갔다.

《요즘 광업동무들이 정말 혁신하고 있어. 하부  
도 갱을 엇그제 끝내자바람에 벌써 아치를 치더  
군. 이제 버력실이를 하면서...》

《베아링》이 려단장의 뒤모습에 눈을 주며 감탄  
하는 소리였다.

경진은 동발목을 제 자리에 세우고 책기를 박  
으며 《베아링》의 감탄에 선배연해서 맞장구쳤다.

《그 버력실이가 간단치 않을거야. 레루를 늘이  
구 광차를 들이밀어야 하는데 레루, 광차가 어데  
있어...》

《동문 아직 몰라? 광업에선 지금 프락포르적재  
기를 개조하고 있어. 버력실이를 광차로가 아니  
라 프락포르로 한다는거야. 굴작업하는데 편리하  
게 편결차를 직결시키거든.》

《베아링》의 목소리는 시공참모로서의 자랑과

공지로 들떠 있었다.

경진의 고집스러운 눈빛이 사뭇 빛나기 시작했다.

《그럼 버럭실이를 프락프로로? 거 정말 대담한 발기인데...》

《우리 러단장동지의 발기야. 우리 러단장동지가 정말 대틀이야.》

참, 중대장동무! 우리 러단장이 동무와 동성이야. 공가성은 혼치도 않은데 통성해 보라구. 혹시 삼촌별이 될수도 있어.》

《베아링》의 말에 경진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동문 그렇게도 눈치가 무딘가. 새 러단장이 나의 아버지란걸 그렇게도 몰라 보다니... 그러구두 뭐 《베아링》?)

경진은 《베아링》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시종 태연자약이다. 그 태연자약함이 주위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기연가미연가 하다가 너무나 범상하고 엄정한 러단장과 중대장의 관계를 두고 부자간이 될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앞에 떳떳이 나서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경진은 마음속으로 재삼 이렇게 부르짖었다.

《참, 우리 러단장 별명이 <혜산혁명가>래. 들어 봤나? 정말 멋 있지? 글썄 결혼식날에도 큰상을 못 받았다는거야.》

경진은 깜짝 놀란 눈으로 시공참모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별호-《혜산혁명가》는 외할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다. 밤낮없이 집안을 나가사는 아버지를 두고 무슨 큰 혁명가가 돼서 그러느냐고, 혜산시 일은 그 사람 혼자 다 하느냐고 꾸념 삼아 한마디 한 것인데 아주 별호가 돼버려 여기 물길공사장에까지 나돌게 된 것이었다.

《우리 러단장이 결혼식날도 잊었었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베아링》이 경진의 일손을 거들며 동발목을 붙잡으며 건네는 말이었다.

《세상에 자기 결혼식을 잊을 사람이 어데 있겠나?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날에야 만사를 다 복종시켜야지.》

《그랬으면야 <혜산혁명가>가 아니지. 안 그래?》

경진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변호한데 얼굴을 붉히며 《자, 빨리, 빨리!》 하고 대원들을 발파준비로 재촉했다.

물을 퍼내고 봉락을 쳐내고 동발목을 꺼들여 세우느라 시간을 한정없이 허비했다고 대원들을

다우쳤다. 한 발과라도 더 해야겠다는 초조감에 마음이 급해 났다. 그는 도화선을 자르는 발파조장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아 한뼘정도로 절단해 치웠다.

《이보, 중대장! 어째 그러는거요?》

발파조장이 눈을 크게 뜬채 경진을 훑어 보았다.

《무슨 겁단지가 그렇게 크나? 이 동문 붉은넥타이시절 동무야.》

그제서야 사태의 진상을 알아 차린 《베아링》이 벌컥 소리를 내질렀다.

《동문 무슨 일을 치고파 그래?》

《여, 참모동무! 붉은 내가 달테니 걱정말어. 동무두 내가 100미터 달리기에서 매번 1등한걸 알지. 시간을 좀 당기려는데 눈을 감아 줘.》

《팡! 짜-앙!...》 하는 여물진 발파소리가 불을 단지 1분도 안되어 터져 나왔다.

경진이 부리나게 뛰어 오는데 발치앞에 큰 돌들이 우박처럼 떨어 졌다.

《에쿠, 한발자국 앞섰더라면 정통 맞을뻔 했군. 난 운수가 좋거든!》

경진은 야영소모래불에 텅굴던 때처럼 쓰러져 자를 벗고 머리를 흔들었다.

1중대는 가스가 채 빠지지 않은 굴속에 술있을 물고 들어 갔다.

《베아링》은 아연한 눈으로 경진을 쏘아보았다.

《난 러단에 보고하겠네. 초보적인 발파규정도 지키지 않구. 이젠 또 뭐가? 30분도 안된 굴속에서 착암을... 안되네!》

《씩 사라지지 못하겠어. 우리한텐 제동기 같은 시공참모는 필요 없어.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경진이 거친 숨을 뿔으며 주먹을 내흔들자 《베아링》은 슬금슬금 뒤걸음질쳐 《위험구역》을 벗어 났다.

화약가스가 빠지지 않아 매캐한 연기가 떠도는 굴속에서 식초에 적신 천을 댄 마스크를 낀 착암수들이 착암기소리를 요란히 울리었다.

《시공참모! 사실대로 보고하라구. 혜산대대 실태를...》

러단장의 노려 보는 기상앞에서 《베아링》은 줄지에 몸을 웅크렸다.

그는 눈 둘 곳을 바로 정하지 못한채 허둥거렸다. 그러나 목소리만은 다기차게 울리었다.

《보고하겠습니다. 모든것이 정상이였습니다. 봉락이 한번 있기는 했지만...》

《참모! 내 눈을 보면서 사실대로 보고하오.》

순간 《베아링》의 다기찬 어조가 푹 끊기었다. 그는 한참이나 갑자르다가 떠듬거리기 시작했다.

《러단장동지. 전 입을 다물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해산대대에선 사생결단의 각오로… 려단장 동지! 그 결사관철의 정신이 없어야 우리가 무슨…》

《사생결단? 결사관철? 그러니 동무두, 좃소! 당장 려단을 폭풍시키시오!》

《려단 폭풍!-》

때 아닌 때에 온 려단이 대줄기같이 퍼붓는 폭우속에 줄 지어 서 있었다.

《내 명령을 들소. 해산대대장은 3보! 해산대대는 1보 앞으랴!》

폭우속에서 대렬의 움직임이 바빠 이뤄 졌다.

《지금 이 시각부터 해산대대는 존재하지 않소. 공사에 무규률을 조성하고 돌이킬수 없는 인명피해를 낼번 한 해산대대는 추방이요.

대대는 사회주의경쟁에서도 제명이요. 대대장! 대대를 인솔하시오.》

비소리를 누르는 려단장의 거센 목소리는 추상 같았다.

《려단장동지! 1중대장 공경진 말할만 합니다. 우린 경쟁에서나 이기자고 모험한게 아닙니다.》

《1중대장, 월 말하겠다는거요. 동문 이미 죽었소!》

《려단장동지, 우린 월말까지 대발파준비를 끝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 명령을 관철하기전엔 죽을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려단장의 눈빛이 타는듯 번쩍했다. 그 번쩍이는 눈빛과 경진의 눈빛이 비속에서 부딪쳐 센 섬광을 일으켰다. 그 섬광이 대줄기 같은 비를 몰아 와 《폭풍》한 려단우에 휘뿌려 졌다.

《!…》

《?…》

《좃소. 대대추방은 철회시키겠소. 그 대신 1중대장은 철직이요. 그 동안의 중대사업은 대대시공참모가 겸해 보시오. 내 말은 끝났소.》

후- 한숨끝에 나오는 려단장의 어조는 한결 누그러지고 타협조로 울렸다.

역수로 퍼붓던 비도 점차 뜸해 지기 시작했다.

《려단장동지! 우리 중대장동지 철직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린 중대장동지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어 저마끔 웨치는 소리가 비소리를 눌렀다.

려단장은 그 애 뾰는 목소리엔 귀가 없는듯 했다. 핵 돌아 서서 몇걸음 움직이다가 참모장에게 다가가 몇마디 이르는것으로 이미 자기 말은 끝났다는것을 시위하였다.

공하준은 군의소에 들렸다. 25만산의 지심깊이 들어 갈수록 외상환자가 늘어 났다. 대대군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려단군의소도 현장에 깊숙이 접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토론허기 위해

서였다.

의사실에 들어 서자 무엇을 하겠는지 처녀의사가 와 뜰 놀라며 이쪽을 보았다. 군의는 당황함이나 채 가서 지지 않은 얼굴에 반색을 띠었다.

《어마나?! 려단장동지가?…》

《해산대대장이 앓는다면서, 몹시 앓소?》

《몸살에 감기가 겹쳤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껍 호전되었어요.》

려단장동지! 저두 래일부턴 현장에 나가 치료하겠습니다. 가설막처럼 현장치료실을 꾸려 주십시오. 거기서 전투원들을 돌보겠습니다.》

아, 고마운 처녀! 어느새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읽었을가.

려단장은 속이 달아 오르는것을 느끼며 아까 처녀가 당황해 하며 치우던것을 띄어 보았다. 목조가공품-배가 소독수소랭이결에 놓여 있었다.

공하준은 손을 뻗쳐 손바닥만 한 장난감을 잡았다. 갑판이며 선실이 빠짐없이 갖추어 진것이며 나무결이 또렷한게 손칼에서 방금 몰려 난것 같았다.

《이건 누구 솜씨가. 정말 잘 만들었는걸. 솜씨가 괜찮아!》

《해산대대 경진동물 아시지요. 이번에 철직된… 그 동무와 저의 공동합작품입니다. 저두 만 들고 보니 너무 고와서 자주 꺼내보게 된답니다.

우린 물결이 완공되어 통수하는 날에 저걸 띄우자고 약속했습니다.》

《음, 통수식에서… 좋은 약속을 했구만!》

순간 공하준의 가슴에 온화한 가정적기분이 깃들었다. 그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처녀를 여겨 보았다. 그렇게 보아선지 처녀의 고운 얼굴에 행복의 물결이 굼났고 있었다.

《애인이요? 공경진이 말이요!》

《아이 참, 려단장동지두…》

처녀는 입귀를 썰룩거리며 두눈을 내리까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영큼한 녀석, 언제 이런 보배덩이를…

《려단장동지, 경진동무 말입니다. 그 동무 말이 려단장동지 성미에 당장 추방시키지 않은건 최대의 용서라고 하더군요.

저… 언제 벗깁니까. 책벌 말입니다.》

처녀의 어조엔 그 어떤 하소가 질게 풍기고 있었다.

《동문 군의지? 돌격대원들의 생명을 직접 책임진! 그동물 처벌하자고 제기해야 할 동무가 책벌을 벗기자? 나빠! 애인이라구 두둔하는거지. 지휘관들은 어떤 정황에서두 자기 대원들을 아끼고 보살펴야 하오. 대원들의 희생으로 높아 진 실적은 인정하지 않소!》

《전 그 동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동안, 경진동문 물길공사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여기에 그런 각오없이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소? 다신 그런 제길 마오. 현장치료실은 오름중으로 꾸리겠소.》

치너는 또 한번 입귀를 썰룩거리며 두눈을 내리까는것으로 대답을 했다.

군의가 푹푹해. 경진이가 좋은 처녀 사귀었어.

공하준의 눈앞에는 두 젊은이- 아들과 처녀가 띄운 꼬마배가 물결쳐 오고 있었다.

려단장은 예비재굴의 버력실이에 《자주》호도 끌어 들였다.

한쪽 굴에는 트랙포르가, 맞은편 굴에서는 대형자동차가 나들었다. 이제는 버력 싣는 시간을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했다.

적재함에 사다리를 대고 맞들이로 연방 올린다 해도 상차시간이 따라 서지 못하는것이였다.

《대절토구간의 소형유압식굴착기를 굴안에 들이밀자! 그 대신 굴안에 굴착기를 지휘하는 지휘원만 남겨 두고 모두는 성토장에 나가 흙마대를 쳐 올리자!》

려단장의 방안은 참모부성원들의 귀를 번쩍 띄워 주었다.

가능할가요? 그러다 굴착기가 굴천정을 들이박는 날엔...

만회할수 없습니다. 그야말루 계두 구력두 다 잃게 되지요 하고 우려하는 눈빛들이었으나 인차 자신만만해 하였다.

지금까지 경험에서 려단장의 대담한 작전과 실천을 목격해 온 그들은 벌써 성공의 희열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새로운 배비변경에 호응하여 력량을 재편성하였다.

...

《려단장동지! 사고입니다. 혜산대대 경진동무가...》

온몸이 찌릿하도록 전율이 지나갔다. 공하준은 온몸이 얼어 드는것을 느끼며 《경생》에 올랐다.

《어떻게 됐소?》

《불발해제하러 들어 갔다가...》

공하준은 입술을 피나게 깨물었다.

현장치료실을 들이받음듯이 《경생》이 급제동하였다. 대공전화기를 목에 건 려단장이 황급히 내려서더니 현장치료실 문을 와락 들치였다. 채광이 잘 안되어 컴컴한 《방안》에 환자가, 경진이가 누워 있었다.

《어떻소? 군의!》

려단장은 걸레처럼 된 피 젖은 작업복과 감탕칠을 한것처럼 거뭇한 아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출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걸 군의동무가 자기 피를 수혈했습니다.》

경진아, 살아 나라! 이건 명령이다, 무조건 살

아 나야 해. 그까짓 돌부스레기에 네가 죽을수 없다. 넌 나한테 약속했지? 영웅이 되어서 나서겠다구...

누가 말했든가. 영웅은 쉽게 죽지 않는다구. 아니 실제로 죽음을 딛고 선 영웅이 얼마나 많은가.

가슴에 열발도 넘는 총탄을 받고도 죽지 않은 전쟁영웅의 이름과 장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현장에서 일어 난 사고경위를 알려 주었다.

...썩! 파-앙!

《하나! 둘! 셋!...》 발파공들은 자기들이 심어 놓은 《불의 열매》를 온몸이 귀가 되어 켜켜였다.

하나! 한방이 튀지 않았다. 불발인가? 아니면... 규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발파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지루한 한초한초가 더디게 흘러 갔다. 이때 발파조장이 움쭉 몸을 일으켰다.

《이보우, 내가 나가지. 난 총각이 아닌가.》

경진은 발파조장의 바지가랭이를 나꿔 잡은채 씩 웃어 보였다.

《동무두 내가 특별히 운이 좋다는걸 알지. 비록 강직은 됐지만 말이야.》

경진이 후닥닥 몸을 날려 갱쪽으로 다가갔다...

《1번! 1번! 나 3번! 내 말이 들리는가, 아?》

대공전화기에서 마지막말을 길게 끄는 참모장의 목소리가 건드러지게 울려 나왔다.

《나 1번! 3번 말하라. 무슨 일인가?》

《여기는 예비재굴! 빨리 와달라! 계획대로 굴착기를 굴에 정착시켰다. 곧 시운전시키겠다.》

《알았다. 곧 가겠다.》

려단장은 뒤걸음 옮기다 말고 무춤 멈추어 섰채 누워 있는 아들을 뚫어 지게 보았다. 마치 그 강렬한 눈빛으로 온몸에 박힌 예리한 돌부스레기를 뽑아 내기라도 하려는듯...

군의의 따거운 눈길이 려단장의 옆얼굴을 뜨겁게 주시했다. 그 눈빛이 무엇을 기대하며 희망한다는것을 공하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하준은 《군의동무! 부탁하오. 난 동무를 믿겠소!》 이렇게밖에 말할수 없다는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군의는 려단장의 단호한 어조에 얼굴에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과 군의를 스쳐보는 공하준의 짙은 눈썹은 부르르 떨리었다.

겹쌓이는 난관과의 투쟁이 끊임없는속에 무슨 일인들 없으랴.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이 거창한 흐름속에 자기만이 아닌 경진이또래 젊은 이들이 두렵없이 나선것이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대견스러웠다.

경진아, 장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꼭 일어나게 될거다. 친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동지



들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이제 물길공사가 끝나는 날 우리 반갑게 만나자꾸나. 러단장과 중대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러단장을 맞는 제비재굴은 가벼운 흥분으로 일렁이었다. 과연 굴착기의 상차동작이 가능한가.

모두의 눈길이 뜨겁게 주시하는 속에 러단장은 굴착기에 작업을 개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굴착기는 가볍게 진동하더니 서서히 동작을 시작 하였다. 성토장에서 마음대로 활개짓을 하던 때와는 달리 굴천정에 닿을듯 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능란한 기교를 부리는것이 마치 맷시를 부리며 춤 추는 무용수를 방불케 했다. 누구나 손에 땀을 쥐고 지켜 보다가 《만세!》의 환성을 올렸다.

공하준은 문자판이 보이지 않게 뽀얀 땀이 스며 오른 손목시계를 연신 털고 보았다.

5분도 되기전에 차가 움직였다. 육중한 《자주》호가 움직일 때마다 일자리가 푹푹 났다. 이런 기세로 나가면 버력은 일주일이면 처리될것이다.

온몸을 휩싸는 성공의 희열이 현훈증을 가져 왔다.

(경진아, 일어 나라! 우리 또 시간을 당겼다! 정말 멋 있게 말이다.)

누구든 붙잡고 앉아 독한 씨레기를 말아 피우고 싶었다.

정치부장 강문철이 나타나 담배를 내밀었다.

《한대 피우십시오.》

공하준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돌아 보았다.

《러단장동무! 경진인 도병원에 후송했습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의사들의 말이 생명은 담보합니다.》

강문철은 러단장의 안색을 살피며 가만히 건네었다.

공하준은 아무말없이 뼈끔뼈끔 마라초만 들이빨았다. 독한 마라초향기가 가슴을 찡하게 했다.

초가을 날씨는 쾌청하였다. 25만산 대발파는 성공적이었다.

대발파의 퇴성이 지심을, 하늘땅을 진감시켰다.

온 러단은 뿌연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목이 터지게 만세를 불렀다. 붉은기들과 각 대대기발들이 세차게 나뭇겼다.

누구의 얼굴을 보아도 땀인지 눈물인지 짐작키

어려운 물줄기가 줄줄이 내리었다. 우린 끝내 25만산의 몸통이를 갈라 놓았다. 드디어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백두산을 안고 사는 량강도사람들답게 자연과 싸워 이겼다! 이런 공지가 돌격대원들의 가슴에 파고 들어 눈물을 터치였다.

기록영화촬영가들인 력사의 장엄한 순간을 남기려고 분주히돌아 갔다.

《아버지-》

혜산대대 기발을 쥐고 흔들던 경진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아직 봉대를 풀지 못한 머리는 찌리모자에 깊숙이 감추어 저 있었다.

러단장은 떠날듯 품에 안긴 아들을 보자 눈물이 콧구치는것을 어찌지 못하였다.

《아버지, 축하합니다. 우리 이겼습니다. 우리 힘으로 대절토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제길... 아버지두 우시는군요.》

《경진아! 장하다. 용타! 지금의 너를 보면 네 어머니도 기뻐서 울었을게다.》

《아버지!》

《너석두 다 자라났구나. 어데 한번 안아 보자!》

부자간의 상봉은 감격적이었다. 혜산대대 1중대장 공경진이 러단장의 아들이라는 소식은 대발파소리보다 더 크게 온 러단을 놀래웠다.

《글쎄 어쩐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하더니...》

부자간의 상봉에 《베아링》도 군의도 혜산대대장도 눈이 화등잔만 해서 달려 왔다.

대발파구역에서 촬영기를 거두던 촬영가가 정치부장을 의아쩍게 돌아 보았다.

《저기선 왜들 저럽니까?》

《한장면 찍어 두시오. 지금 우리 러단장동지가 자기 아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도 돌격대원 같은데...》

촬영가가 의아한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예, 같은 돌격대원이지요. 아버지도 아들도...》

《그런데 오래간만이라는건?...》

촬영가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치부장 강문철은 시라도 읊는듯이 포박포박 뇌이였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 물길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라틴아메리카 환상사실주의의 대표적작가이다.

마르케스는 주체 17(1928)년 3월 6일 콜롬비아 마그달레나강반의 소도시 아라꾸따꾸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성격이 과묵한 의사였다.

마르케스는 어린 시절을 외할아버지네 집에서 보냈다. 외할아버지네 집은 조용하고 널찍하였는데 집안의 가구들이 다 마술사의 도구와 비슷하여 어데서나 신비롭고 환상적인 감을 느끼게 하였다.

외할아버지는 대좌로서 마음씨가 어질고 성격이 강직하였다. 외할머니는 신을 믿었으나 문학과 역사지식이 매우 풍부하였으며 옛 이야기를 잘하였다.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어찌나 생동하고 실감있게 하였던지 어린 마르케스는 눈을 잃고 듣곤 하였다. 이렇듯 환상과 신비의 세계로 충만된 유년시절의 생활은 마르케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추억을 남겼으며 후날 그의 문학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마르케스는 어려서부터 환상이 풍부하고 문학을 사랑하였다. 일곱살때 벌써 《천하루밤이야기》를 읽었으며 보고마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세계문학명작들을 많이 읽었다.

열여덟살 나던 주체 35(1946)년에 국립보고마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다.

주체 37(1948)년에 내란이 일어 나고 정국이 혼란되자 마르케스는 학업을 중단하고 신문계에 진출하여 기자가 되었다. 몇년간의 기자생활을 통하여 그는 전쟁이 인민들에게 주는 고통과 불행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식견을 넓히고 경험을 쌓았다. 주체 43(1954)년부터 마르케스는 유럽주재 기자로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뿔스까 등 여러 나라들에서 활동하였다. 이 시기 그는 주되는 정력을 문학창작에 바쳤다.

주체 45(1956)년에 마르케스는 콜롬비아로 돌아왔다. 주체 48(1959)년부터 그는 꾸바의 라틴아메리카통신사 기자로 있었다.

주체 50(1961)년부터 주체 56(1967)년 사이에 마르케스는 메히코에서 문학, 신문, 영화부문에 종사하였다. 주체 71(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후 프랑스-에스빠냐어 사용국가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직에 있었다. 주체 72(1983)년에 다시 조국에 돌아와 정착하였다.

주체 36(1947)년부터 마르케스는 신문지상에 10여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는것으로 문학창작을 시작하였다. 이 초기작품들은 비록 미숙하고 모방한 흔적도 현저하였지만 이것을 통하여 마르케스는 문학에 대한 신심을 가질수 있었다.

주체 43(1954)년 후에 마르케스는 단편소설 《주

말의 하루》[주체 43(1954)년], 장편소설 《락업》[주체 44(1955)년], 중편소설 《편지를 보내주는사람이 없는 대좌》[주체 50(1961)년], 장편소설 《악의 시각》[주체 50(1961)년], 단편소설집 《크랑드아주머니의 장례》[주체 51(1962)년] 등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실제상 《백년간의 고독》을 쓰기 위하여 진행한 습작이라고 할수 있다.

주체 56(1967)년에 마르케스는 자기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백년간의 고독》을 발표하여 에스빠냐어문학계를 격동시켰으며 자기의 문학적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마르케스는 이 소설에서 7대의 부엔디아일가의 곡절 많고 기괴한 운명과 마흔도 마을의 100여년에 걸치는 건설, 발전, 번성, 소멸의 역사 그리고 잡다하고 지어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정치, 역사 및 신화, 전설, 종교적풍습 등과 재치 있게 융합시킴으로써 환상적사실주의수법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표현하는데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주체 56(1967)년부터 주체 64(1975)년 기간에 마르케스는 《호인 브라꾸만, 기적의 판매자》, 《날개돋친 로인》, 《순진한 애론대와 잔인한 할머니-민기 어려운 비참한 이야기》 등 일련의 중편소설들을 발표하였다.

주체 64(1975)년에는 장편소설 《가장의 몰락》을 발표하여 다시금 에스빠냐어문학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소설의 창작기법 역시 독특하였다. 마르케스는 이 소설에서 다인칭독백의 필법을 구사하여 주인공의 처지를 서술해 나가면서 동시에 파장, 허구, 풍자조소로써 집권 200년간에 걸친 폭군의 우매하고 무능하고 사치하고 탐욕스러운 일생을 투철하게 그려 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포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과두독재통치를 맹렬히 규탄하였다.

마르케스의 그밖의 작품으로는 단편소설집 《파란 개의 눈》[주체 44(1955)년], 중편소설 《사전에 광고된 살인사건》[주체 70(1981)년], 문학담화록 《반석류 향기》[주체 71(1982)년] 등이 있다.

마르케스는 자기의 작품내용을 거의 모두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역사적사건, 사회적문제, 현실생활속에서 취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독재통치의 죄악을 폭로하고 제국주의의 침략, 대자산계급과 대농장주의 잔혹한 약탈을 규탄하고 있다. 또한 인민대중의 간고한 생활과 각계층 인물의 정신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마르케스는 자기가 거둔 문학성적으로 하여 콜롬비아의 문학예술가동맹상과 국가문학상, 미국, 베네수엘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문학상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수여 받았다.

## 5월이 부르는 노래

리광선

나는 5월이다  
나는 봄이다  
허나 나는 바란다  
내가 봄이 아니기를  
어쩔수없이 풍기는 이 향기도  
봄의 훈향이 아니기를

나는 세상에  
봄이라 이름하는  
꽃의 계절로 태어났건만  
광주여  
너에게만은 어찌하여  
찬서리의 계절로 되려 하는가

나도 너에게  
따뜻한 봄바람을 실어 주고 싶다  
실버들 휘날어 진 유보도가에  
꿈 많은 청춘들의 속삭임 불러 오고 싶고  
너의 거리와 트랙들에  
소담한 고운 꽃을 피우고 싶다

오, 허나 무등산기슭에  
연분홍 진달래를 피우기에는  
여기에 습배인 피 너무도 짙고  
유보도가에 청춘들을 부르기엔  
너무도 차거운 살풍이  
이 땅우에 휘몰아 치거니

보라 오늘도

나어린 두 소녀를  
장갑차로 깔아 죽인  
아메리카 식인종들이  
빠젼이 활개치며  
광주의 더운 피 식지 않은  
이 땅을 우롱하고 있다

진정 자주가 없이는  
이 땅에 핀 하나의 잔디풀조차  
봄을 즐길 터전이 없는 곳  
통일이 없이는  
사랑을 깃 들일 품이 없는 곳

일어 나라 광주여  
겨레의 소원을 위해  
이 땅의 통일을 위해  
아낌없이 청춘을 바친  
그 모든 령혼들의 넋을 지켜  
광주여 분명히 일어 나라

하여 이 땅우에 몰아 치는 살풍이  
민주의 해별아래 가시여 지고  
통일의 환호성 높이 울릴 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향기로운 봄꽃들을 피워 안고  
봄노래 부르며 나는 찾아 오리라

오, 용서하라 광주여  
그날까지 그날까지 나는 봄이 아니다!